



문화재청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추진단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2021~2025)

2021



문화재청

# 목 차

제1장 종합계획 수립 배경 .....	1
제2장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현황분석	
제1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개요 .....	4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현황 .....	4
2.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법령 .....	4
제2절 신라왕경 핵심유적 추진 현황 및 성과 분석 .....	8
1. 추진 현황 및 성과 분석 .....	8
제3장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제1절 기본 방향 및 목표 수립 .....	58
1. 기본 방향 .....	58
2. 목표 수립 .....	59
3. 가치 체계 .....	60
제2절 추진 방법 설계 .....	61
1.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확보하는 활용 기반 .....	61
2. 핵심유적의 디지털 재현과 복원 활용 기반 .....	62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관련 법률 간의 적용 관계 .....	63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시행사업 평가 방법 .....	69
제3절 핵심유적 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 .....	71
1. 교육 .....	71
2. 홍보 .....	72
3. 대외협력 방안 .....	72
제4절 핵심유적 활용 방안 .....	73
제5절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세계유산 영향 분석 .....	75

1. 세계유산영향평가와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	75
2.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고려 사항 .....	76
3. 세계유산영향평가에서 유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유형 .....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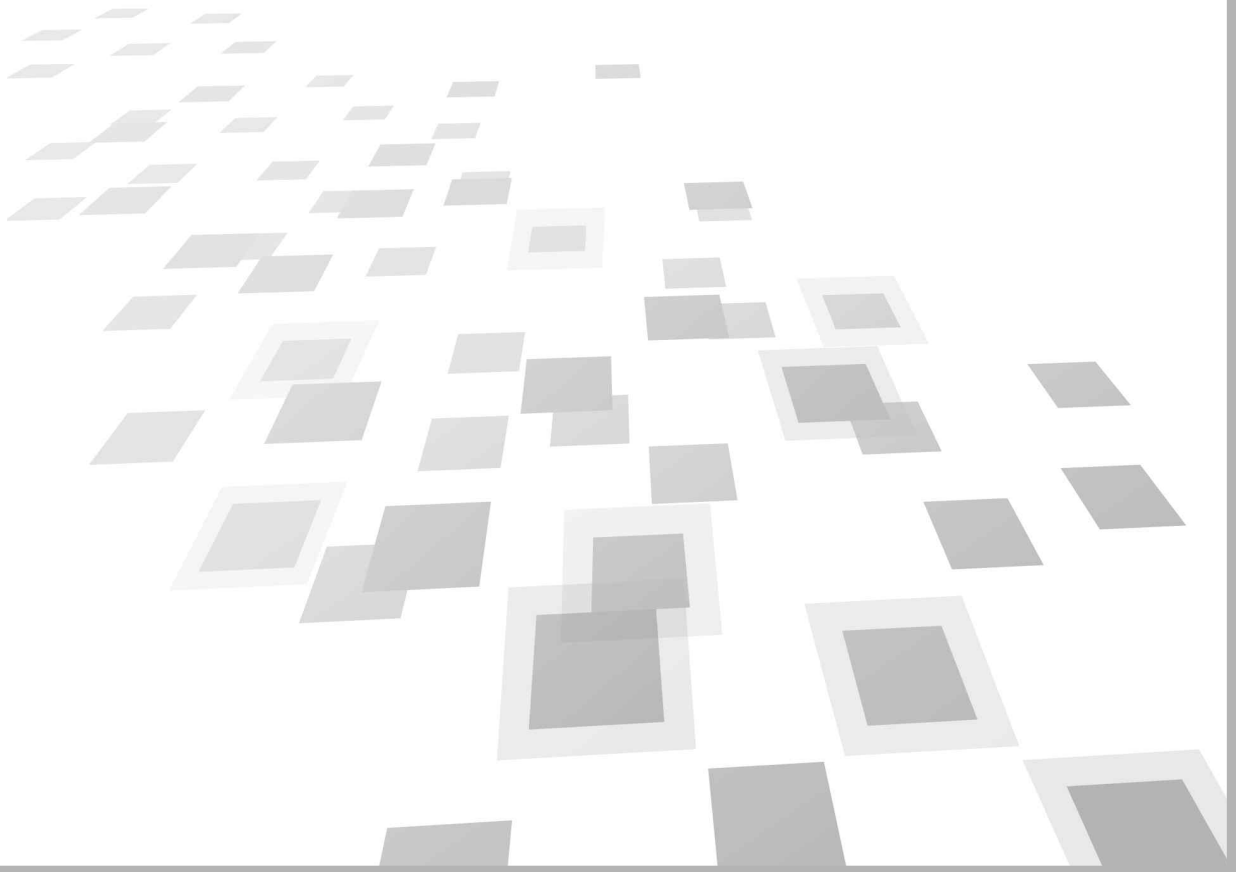
## 제4장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실행과제

제1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우선순위 도출 .....	81
1. 전문가 FGI 조사분석 .....	81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우선 순위 .....	81
제2절 전략 목표별 과제 내용 설계 .....	82
1. 전략목표 : 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가치 창출 .....	82
2. 전략목표 : 미래형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시스템 구축 강화 .....	84
3. 전략목표 : 국민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문화 보존 .....	85
4. 전략목표 : 세계유산의 책임있는 보존 및 활용 .....	87
제3절 재원 투입계획 수립 .....	89
제4절 전략 과제 이행 로드맵 수립 .....	90
제5절 핵심유적 별 세부 이행 과제 및 로드맵 .....	92
1. 경주 월성 .....	92
2. 경주 황룡사지 .....	93
3. 경주 분황사지 .....	94
4.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	95
5.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	96
6. 경주 동궁과 월지 .....	97
7. 경주 첨성대 .....	99
8. 경주 대릉원 일원 .....	99
9. 경주 동부사적지대 .....	101
10.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	102
11. 경주 인왕동 사지 .....	102
12. 경주 천관사지 .....	103
13. 경주 낭산 일원 .....	104
14. 경주 사천왕사지 .....	105

제5장 맺음말 .....	107
---------------	-----

#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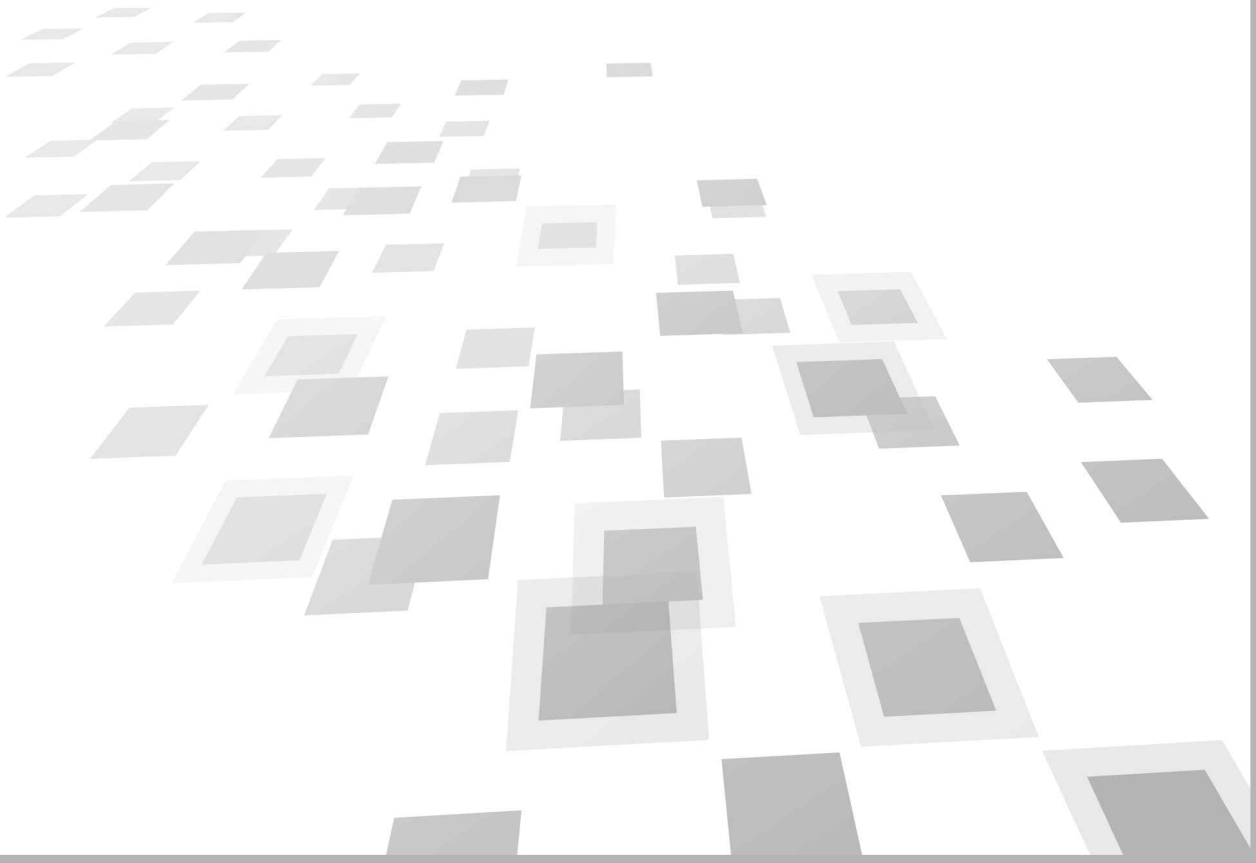
## 종합계획 수립 배경



- 신라왕경 골격 복원을 통한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 및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 증진과 적극적 활용기반 구축을 목표로 2014년부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약칭:신라왕경법)”이 제정(법률 제 16779호, ‘19.12.10.)되었으며, 그동안 총리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은 신라왕경법 제7조에 의하여 법률에 근거한 조직으로 개편되었음
- 신라왕경법 제5조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라왕경법 제5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추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재원확보,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연구,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신라왕경법 제8조에서는 복원정비 사업을 월성 복원·정비, 황룡사 복원·정비,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월정교 복원·정비, 대형고분 재발굴·전시,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정비,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쪽샘지구 발굴·정비로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27호, ‘20.10.27.)이 제정되었으며,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를 경주 월성, 경주 황룡사지, 경주 분황사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경주 동궁과 월지, 경주 첨성대, 경주 대릉원 일원, 경주 동부사적지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경주 인왕동 사지, 경주 천관사지, 경주 낭산 일원, 경주 사천왕사지로 정하였음
- 이에,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신라왕경법 제정에 따른 관련 자료를 분석·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제 2 장

# 신리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사업의 현황분석



# 제1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개요

##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현황

### 1) 설립 목적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대해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4년 4월 28일자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설치됨

### 2) 주요 기능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종합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과 관련된 기술지도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현장 점검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사후 관리 및 활용도 제고에 관한 검토
- 신라왕경 생활상 파악을 위한 동 시대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연구 및 조사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와 관련된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대외홍보 및 추진단의 기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법령

- 2019년 12월 10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신라왕경”이란 신라 및 통일신라 시기의 수도를 일컫는 말로서 주로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경주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하고 “신라왕경 핵심유적”이란 신라 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을 말함
- 특별법 제정(’19.12.10. 공포, ’20.12.11시행)으로 천년 고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 토대를 마련하였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을 가능하도록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한 대상을 정하고자 2020년 10월 27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음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업무·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따라서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제2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제5조)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제2조)는 특별법 제정으로 천년 고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사업의 합리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한 대상을 정한 것임
- 제정내용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대상 범위를 신라 왕궁(경주 월성), 경주 황룡사지, 경주 분황사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경주 동궁과 월지, 경주 첨성대, 경주 대릉원 일원, 경주 동부사적지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경주 인왕동 사지, 경주 천관사지, 경주 낭산 일원, 경주 사천왕사지로 명확하게 명시함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제3조)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현황, 역사문화환경 현황, 수리 이력 및 보존·관리 현황, 복원·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복원·정비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복원·정비의 추진현황과 성과분석 등으로 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경상북도지사 및 경주시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정함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추진방향·세부계획·사업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 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제5조)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련 기초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
- 또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추진단의 단장은 문화재청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며, 단장은 문화재청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도록 정함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기존 8개이던 신라왕경 사업의 대상이 14개의 핵심유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업무와 조직이 구성되어, 신라왕경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총괄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음



<표 2-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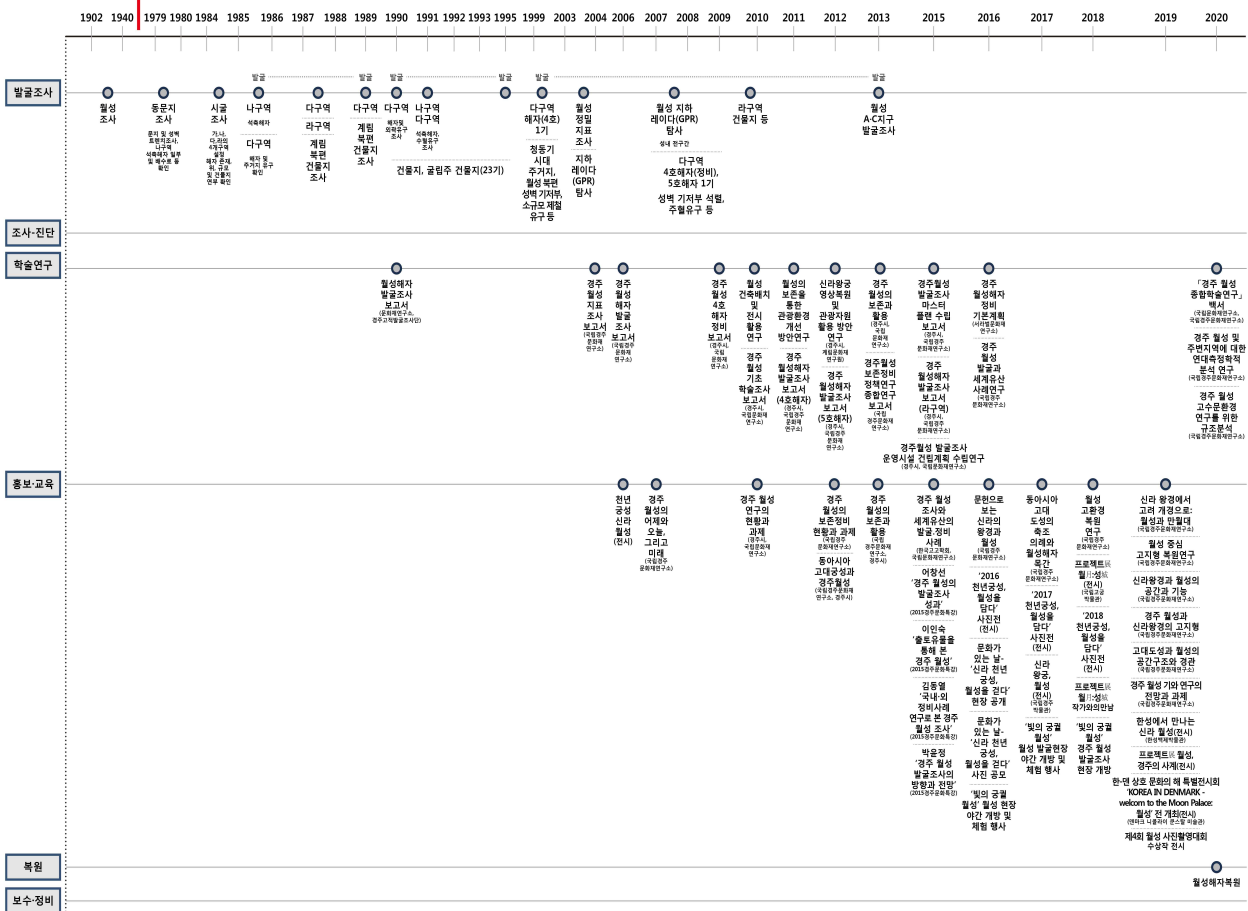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p>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신라왕궁,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라왕궁[경주 월성(月城)을 말한다]</li> <li>2. 경주 황룡사지 일원(一圓) : 다음 각 목의 유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경주 황룡사지</li> <li>나. 경주 분황사지</li> <li>다.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li> <li>라.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li> </ol> </li> <li>3. 경주 동궁과 월지</li> <li>4. 경주 첨성대</li> <li>5. 경주 대릉원 일원</li> <li>6. 경주 동부사적지대</li> <li>7.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 다음 각 목의 유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li> <li>나. 경주 인왕동 사지</li> <li>다. 경주 천관사지</li> </ol> </li> <li>8. 경주 낭산 일원</li> <li>9. 경주 사천왕사지</li> </ol>
제3조	<p>제3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①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li> <li>2.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현황</li> <li>3. 법 제8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하 “복원·정비사업”이라 한다) 추진</li> </ol> <p>②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현황</li> <li>2.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역사문화환경(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현황</li> <li>3.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수리 이력 및 보존·관리 현황</li> <li>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대외협력</li> <li>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li> <li>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가 세계유산(「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li> </ol>

	<p>합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p> <p>7. 복원·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p> <p>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주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p>
<p><b>제4조</b></p>	<p>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복원·정비사업의 추진방향</p> <p>2. 복원·정비사업의 세부계획</p> <p>3. 복원·정비사업 비용 및 자원조달계획</p> <p>4. 그 밖에 복원·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사항</p> <p>② 경주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각각 알려야 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은 지체 없이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p>
<p><b>제5조</b></p>	<p>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p> <p>2. 복원·정비사업의 총괄·조정</p> <p>3. 복원·정비사업 관련 기초 조사·연구</p> <p>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대외협력</p> <p>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p> <p>6. 복원·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p> <p>7. 그 밖에 복원·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문화재청 소속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p> <p>④ 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문화재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p> <p>⑤ 단장은 문화재청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p>

# 제2절 신라왕경 핵심유적 추진 현황 및 성과 분석

## 1. 추진 현황 및 성과 분석

### 1) 경주 월성



- 지정번호: 사적 제16호
- 소재지: 경북 경주시 인왕동 387-1
- 지정면적: 201,116㎡
- 관리단체: 경주시

- 경주 월성은 신라의 궁궐이 있었던 도성으로 성의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 하여 반월성·신월성이라고도 하며, 왕이 계신 성이라 하여 재성(在城)이라고도 함. 『삼국사기』에 의하면 파사왕 22년(101)에 성을 쌓고 금성에서 이곳으로 도성을 옮겼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 성은 신라 역대 왕들의 궁성으로써 문무왕 때에는 동궁과 월지·침성대 일대가 편입되어 성의 규모가 확장되었음
- 성의 동·서·북쪽은 흙과 돌로 쌓았으며, 남쪽은 절벽인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음. 성벽 밑으로는 물이 흐르도록 인공적으로 마련한 방어시설인 해자가 있었으며, 동쪽으로는 경주 동궁과 월지로 통했던 문 터가 남아있음. 성안에 많은 건물터가 남아있으며, 1741년에 월성 서쪽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석빙고가 있음

###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월성은 일제강점기부터 고적 조사의 대상이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월성 내부 및 외부시설인 해자, 성문 등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각종 학술조사연구, 학술대회 등이 이루어졌음
- 월성은 1902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의 조사, 1910년대 도리이 류쥬[鳥居龍藏]에 의한 월성 성벽 발굴조사, 1922년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의 조사, 1929년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의 건축조사, 1930~40년대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의 조사 등이 이루어졌음
- 동문지, 해자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최근 성벽 내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월성 전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이외에도 경주 월성 기초학술조사연구 보고서와 경주 월성 보존준비정책연구 종합연구보고서가 간행되어 월성의 종합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자료 및 보존준비 방안 등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 및 보고되었음. 또한 월성 발굴조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보고서가 간행되었음
- 최근 월성 내부를 A-D 4개 구역으로 나누고, 외부는 가~라 구역으로 나누어서 발굴조사를 진행함. A지구는 서성벽과 남성벽 부분을 발굴조사를 했고, C지구 조사에서는 건물지 17동, 담장 4기, 연못지 1기, 기타 유구 2기 등이 확인됨. 월성해자 유적 정비를 위한 목적으로 1호 해자를 조사하여, 호안 목제구조물 등이 확인되었음
- 월성 중심의 고지형 복원을 위한 연구를 통해서 유적 범위 및 하천, 지하 용출수와의 상관관계가 검토되었음
- 월성에 대한 조사연구는 초기의 성벽, 해자 그리고 해자 주변의 대형 건물지 발굴조사에서 월성 내부 조사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월성의 내부의 획기적인 변화가 문헌에 기록된 시기와 일치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삼국사기』 초기기록의 신뢰성을 재확인 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현재까지 이루어진 월성 조사연구는 삼국시대 초기의 범위, 통일신라시대의 영역 확대와 공간별 성격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월성 내부 공간구조, 성벽축조방법, 해자의 성격 및 구조, 월성 주변 건물지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었음
- 다만 월성 내부에 관한 연구가 이제 시작 단계이고 발굴 조사로 확인된 건물의 존속 시간이 늦은 시기의 모습을 보여주며, 공간 안에서 건물 간 중복 및 변화 모습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경주 월성의 내부는 성토작업 이후 재건축되면서 공간별 기능과 영역이 확정되었으며, 이후까지 계속 이어진 모습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월성이 신라 초기 왕궁으로 존속했던 시기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하층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 상층 문화층을 제거하고 조사를 할 수 없는 점은 안타깝게도 조사의 문제점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굴착 등으로 훼손된 지역 안에서 삼국시대 초기 문화층을 찾는 노력

이 필요함

- 월성과 관련된 여러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성 내부와 외부시설인 해자 그리고 월성 북쪽에 위치한 발천과 그 북쪽의 대형 건물지군으로 각각의 공간을 구분하여 조사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접한 동궁과 월지 유적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월성 내부 개별 건물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문헌사를 중심으로 월성 내 신라 왕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다소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월성 성벽 하부에서 발견된 인골을 성벽 축조와 관련된 제사유적으로 추정되고 있음. 인신 공양과 관련된 모습이 한정적인지 월성 안에서 다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성벽에 대한 축조방법과 시기별 특징에 관한 연구도 현재 이루어진 성벽 조사결과와 함께 논의될 필요성이 있음
- 월성의 문지와 도로에 관한 연구는 신라왕경 공간구조의 넓은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하나, 아직 확인된 도로가 일부인 점과 동궁과 월지 유적에서 확인된 황룡사 남쪽 광장과 연결된 도로와의 관련성 등이 아직 논의 중이므로, 향후 조사에 따라서 새로운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됨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경주 월성에 관한 연구는 초기 출토유물과 월성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월성 내부 GPR 탐사 결과와 해자의 변천 과정이 밝혀지면서 그 연구 대상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음
- 발굴조사 성과가 새롭게 보고되면서 이에 기초한 해석과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출토유물 편년, 신발견 유물에 대한 해석 등이 이루어졌음. 또한 월성 공간구성과 주요 전각들의 위치, 그리고 월성 출입문의 위치와 구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그리고 월성 외곽의 고분군과 동궁과 월지 유적과 황룡사 남문 광장을 연결하는 도로를 통해 신라왕경 내 월성 공간을 살펴보려는 연구가 이루어졌음
- 최근 해자 내부 출토유물의 자연과학 분석에 힘입어 당시 식생 환경 등이 복원된 점은 매우 주목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 더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월성에 관한 연구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유구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유구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확대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3) 복원·정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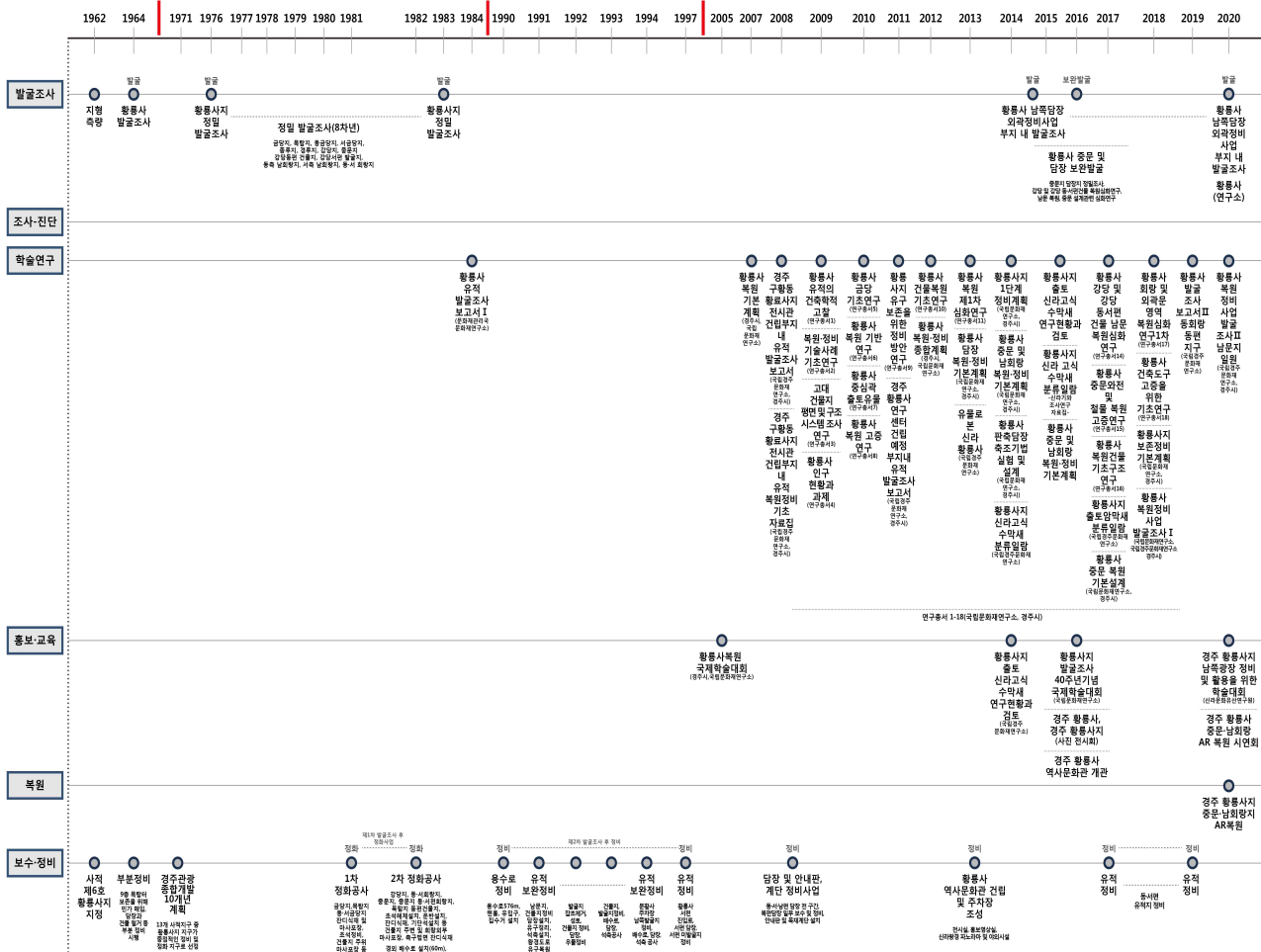
- 월성 해자에 대한 정비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 월성 내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유적의 복원 · 정비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려움

(4) 활용에 대한 평가

- 월성은 시내와 지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에 여러 유적이 존재하여 탐방객들의 방문과 접근이 많으며, 특히 월성 북쪽의 동부사적지대 내 여러 유적과 교촌마을 내 경주향교와 계림, 월성 남쪽에 있는 복원된 월성교는 월성을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 탐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월성 내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가 종료되기까지는 유적 전체에 대한 탐방은 어렵지만 구 월성과출소 자리에 마련된 월성 영상상영관을 통하여 유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음
- 또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현장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월성 내부 유적에 대한 체험행사와 관련 내용을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영상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람객을 위한 정보제공을 시행 중이므로 이를 통한 유적 이해 및 체험 활동이 가능함

2) 경주 황룡사지



- 지정번호: 사적 제6호
- 소재지: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1
- 지정면적: 390,418㎡
- 관리단체: 경주시

- 황룡사는 신라 진흥왕 14년(553)에 경주 월성의 동쪽에 궁궐을 짓다가, 그곳에서 황룡(黃龍)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절로 고쳐 짓기 시작하여 17년 만에 완성되었음
- 그 후 574년, 인도의 아소카왕이 철 57,000근, 금 3만분으로 석가삼존불상을 만들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금과 철, 그리고 삼존불상의 모형을 배에 실어 보낸 것이 신라 땅에 닿게 되자, 이것을 재료로 삼존불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5m가 넘는 이 불상을 모시기 위해 진평왕 6년(584)에 금당을 짓게 되었음
- 선덕여왕 12년(643)에는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자장의 권유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9층 목탑을 짓게 되는데, 층마다 적국을 상징하였으며, 백제의 장인 아버지에 의해 645년에 완공되었음
- 황룡사는 93년간에 걸친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큰 절이었으며, 신라의 3가지 보물 중 천사옥대(天賜玉帶)를 제외한 2가지 보물이 황룡사 9층 목탑과 장육존상이었다는 점에서 황룡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음. 그러나 황룡사는 고려 고종 25년(1238)에 몽고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 없어져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음
- 황룡사는 중문·목탑·금당·강당이 남북으로 길게 배치된 1탑식 가람배치였음. 장육존상과 목탑 등이 조성된 후 금당 좌우에 작은 금당이 배치되는 1탑 3금당식으로 중건되고, 탑의 전면 좌우에 종루와 경루가 대칭을 이루어 배치되었음
- 사방은 복도와 같은 회랑으로 둘러싸여 독특한 가람배치를 보이고 있으며, 『삼국유사』에 의하면 종루에는 거대한 종이 있었는데, 몽고가 침입했을 때에 소실된 것으로 보임
- 발굴조사에서 금동불입상·풍탁·금동귀걸이·각종 유리 등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높이 182cm에 이르는 대형 치미는 황룡사 건물의 웅장한 규모를 짐작하게 함
- 금당에는 솔거가 그린 벽화가 있었다고 전하며, 목탑지에서 발견된 당나라 백자 항아리는 당시의 문물교류를 잘 알 수 있게 함

###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황룡사는 신라칠처가람지(新羅七處伽藍址)의 하나로 규모나 사격에 있어 신라 제일의 사찰로 흥륜사(興輪寺)에 이어 조영된 신라의 국찰임
- 1976년부터 1983년까지 8년에 걸쳐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서 발굴조사한 결과 황룡사는 담장 내의 사역이 동서 288m, 남북 281m로 정방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당시 신라왕경 방 4개의 면적을 차지하는 모습으로 확인되었음

- 황룡사는 『삼국사기』의 기록과 같이 진흥왕 14년(553)에, 월성 동쪽에 새 궁궐을 짓고자 하니 황룡(黃龍)이 나타나서 절을 짓고 황룡사(皇龍寺)라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사역이 위치한 지역이 저습지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늪지를 매립하고 성토를 한 것으로 나타나 발굴조사결과와 부합함
- 황룡사는 대략 4번에 걸쳐 큰 변화를 보이면서 완성된 것으로 확인됨. 창건가람은 중문, 탑, 금당, 동서의 승방(僧房)으로 추정되는 긴 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후대에 조성된 가람보다는 사역의 규모가 작았음
- 9층의 목탑이 완성된 후의 중건가람은 강당이 정면 10칸, 측면 4칸이고, 강당 좌우에는 각각 정면 11칸, 측면 3칸의 건물을 남향으로 배치시키고 중문은 정면 4칸, 측면 4칸으로 창건 중문보다 6m 더 남쪽에 세웠음
- 중문에서 들어오면 남측 중앙에 9층의 목탑을 배치하고, 북측 중앙에 정면 9칸, 측면 4칸의 중금당을 놓고, 그 좌우에 중금당보다 규모가 작은 정면 7칸, 측면 4칸의 동금당과 서금당을 배치하였음. 그리고 창건가람 중 동서의 긴 건물이 있던 곳과 중문 좌우를 수리하여 복랑(復廊)의 회랑을 설치하였음
- 세 번째의 변화는 각각 정면 5칸, 측면 5칸인 장방형의 종루와 경루가 세워지면서, 중건 중문이 다시 남쪽으로 이동되어 정면 4칸, 측면 2칸의 2차 중건 중문이 되었음. 남회랑도 남쪽으로 이동되어, 2차 중건 남회랑은 전시기보다 길어져 동서회랑과 마주치는 범위를 벗어났으며, 남회랑이 남쪽으로 이동되면서 동서회랑의 남단과의 사이 공간에 남북으로 2칸의 복랑이 조성되었음
- 마지막으로 종루와 경루가 정방형의 정면 5칸, 측면 5칸으로 바뀌고, 중문은 2차 중건 시의 원래 자리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건물로 수리되었으며, 중건 가람의 강당이 정면 9칸으로 축소되었고, 강당 좌우의 건물도 같이 축소되었음
- 황룡사지 발굴조사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9층 목탑 심초석 안에서 출토된 사리구와 심초석 주변에 매납된 의례유물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음
- 황룡사 동회랑 동편지구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되면서 동쪽영역의 특징이 확인되었음. 이 지역은 황룡사지 회랑 외곽 중 공간분할이 가장 명확하게 확인되는 영역이면서, 폐쇄성을 갖는 공간임. 이는 개방적인 공공시설이기보다는 고승들이 수행이나 수양을 위해 독거하는 공간, 혹은 중국 당대 사찰의 성용원, 영당원, 육조원 등과 같은 의례공간으로 추정하였음
- 2016년~2017년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황룡사 중문지와 동문지, 남회랑지, 담장지, 도로 등에 대한 재발굴조사 결과, 기존에 4차의 변화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던 중문지는 3차례의 변화 모습을 확인하였고, 새롭게 동회랑지 북쪽 부근에서 동문지가 조사되었음. 2018~2019년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황룡사 남문지와 동·서건물지의 구조를 검토하고 폐와수혈을 조사하였음
- 황룡사지 재발굴조사 및 보고서 발간을 통해 회랑 바깥쪽에 위치한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짐. 당시 황룡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었으며, 개별 공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 2016년부터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조사 중인 황룡사 남쪽 광장에 대한 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의 광장과 연결된 도로의 존재가 확인되었음. 경주 황룡사 남쪽담장 외곽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황룡사 남문 앞쪽에 마련된 동서도로와 도로유구 남쪽에 위치한 방리 구조가 확인되었음. 도로는 현 임해로에서 들어오는 모습으로 확인되었음
- 도로와 배수로의 중복관계로 볼 때,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고, 동서도로의 규모는 너비 15m, 남북도로는 너비 7m 내외로 수차례 정비된 모습임. 동서도로는 현 동궁과 월지 유적의 추정 문지와 연결된 모습이며, 남북도로는 동쪽에 위치한 방리와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로 보임. 광장은 동서도로를 먼저 조성하여 사용하다가 남쪽으로 확장한 모습으로, 규모는 남북 너비 50m, 동서 길이 500m 정도이며, 잔자갈과 20~30cm 내외의 넷들을 촘촘하게 깔았고 2~3차례 정비되었음
- 황룡사 광장은 신라 왕경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 공간으로 판단되며 법회를 비롯하여 국가행사가 행해졌다고 여겨짐. 동쪽 경계는 방리가 조성되어 있어서 동서방향으로 관통된 모습이 아니며 서쪽 경계에는 동궁과 월지로 연결되는 추정 문지가 있고 그 앞을 남북방향으로 지나가는 남북도로가 확인됨. 남북도로는 국립경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건립 부지에서 확인된 너비 23.7m의 대로와 연결되므로 당시 월성과 연결되는 중심도로로 볼 수 있음
- 황룡사 광장을 출입하는 방법은 월성 동쪽에 위치한 국립경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건립부지에서 확인된 대형 남북도로를 따라 올라와서 동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야 함. 이런 출입방법은 황룡사 광장을 중심으로 신라왕경 내 도로가 구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월성 북쪽에 위치한 남북도로를 통해서 왕경 내 주요지점을 연결한 것으로 보임
- 후지시마 가이지로는 이 남북도로가 분황사 서쪽을 지나서 북천을 건너 백률사 서쪽에 위치한 굴불사지 부근으로 연결된다고 <신라왕경 복원도>에 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황룡사 발굴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초기 회랑 내곽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점차 회랑 외곽과 중문 남쪽 광장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신라 왕경 내 공간구조와 그 특징을 살펴보는 모습임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황룡사지에 관한 연구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황룡사 복원정비사업>과 <황룡사 연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경주 황룡사지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는 발굴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출토유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공간구조와 영역에 관한 연구, 창건과 관련된 당시 사회상과 정치문제에 관한 연구 등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음
- 창건 배경과 관련해서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전륜성왕> 신앙과 함께 왕권을 부처와 연결시켜서 “왕즉불” 사상으로 발전시켜나간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장유존상의 조성이 인도 아육왕이 보낸 금, 철로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발전했음을 밝히고 있음

- 황룡사지 발굴조사보고서가 연이어 발간되면서, 새롭게 해석된 유적과 공간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향후 황룡사 연구에 큰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아직까지 황룡사의 공간구조에 대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 크며,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발굴조사보고서가 완간된 후 유적에 대한 이해가 커질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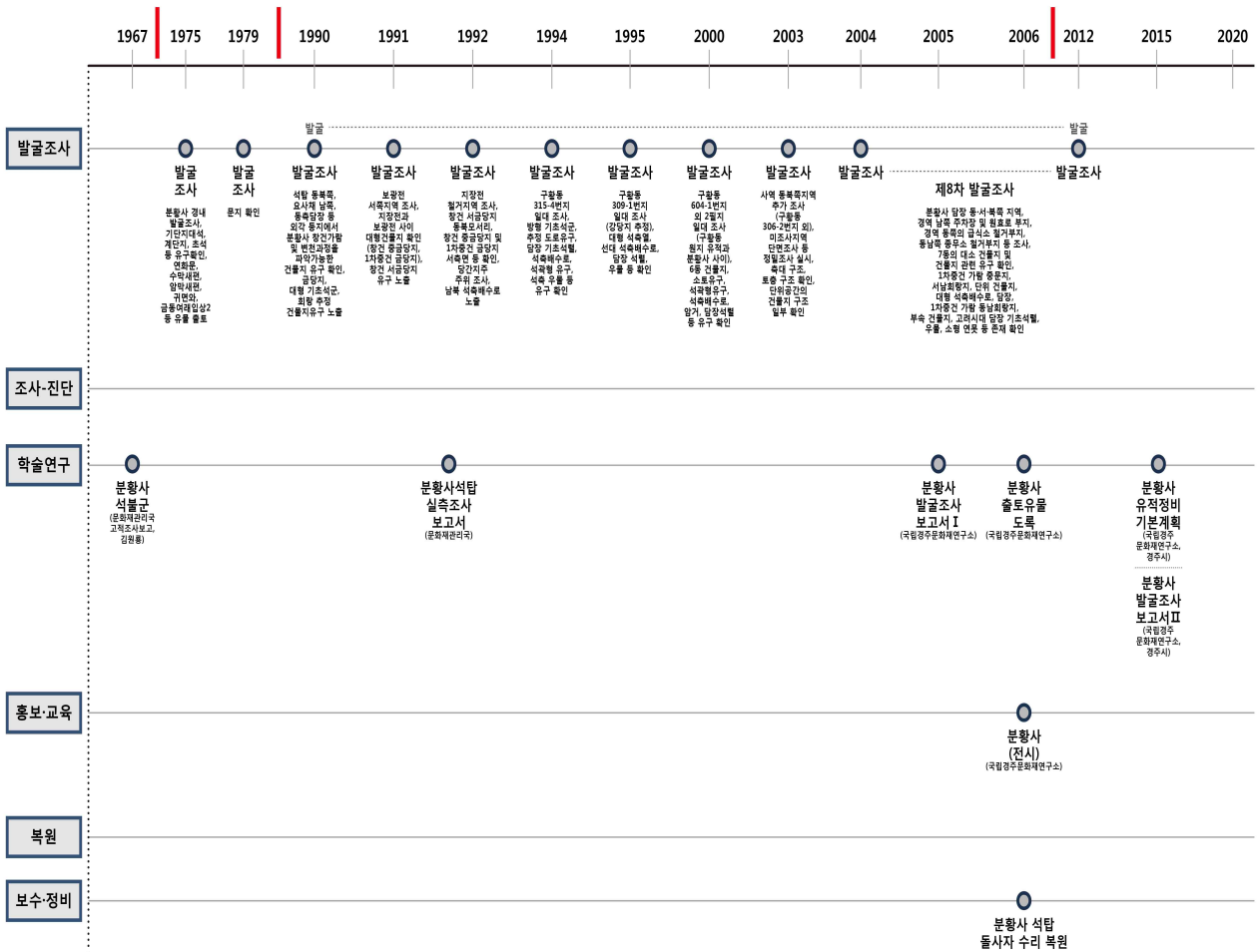
### (3) 복원·정비에 대한 평가

- 경주 황룡사지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바로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사역을 가로지르는 관람객 통로를 중심으로 경주 월성 유적에서 분황사로 연결되고 있음. 발굴조사 후 정비가 이루어진 기간이 짧지만, 사역 내 개별 건물지에 대한 전체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점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까지 사역 내부에 대한 관람환경은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설명문과 건물지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시설이 마련된 정도임.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역 서쪽에 황룡사역사문화관을 건립하여 황룡사를 3D 영상으로 구현하고 황룡사 9층 목탑을 재현하였음
- 증강현실 디지털기술로 황룡사지 중문지와 남문지를 복원하였으며, 추후 관람객에게 태블릿피서를 이용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또한 대형 주차장과 화장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음. 하지만 황룡사 사역 내부에는 별다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개 유적에 대한 안내판만 설치되어 있음. 따라서 유적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4) 활용에 대한 평가

- 경주 황룡사지는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후 바로 사역을 가로지르는 탐방로가 개설되어 일반 관람객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그동안 방치되어 오던 주변 일대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황룡사 위치를 안내하는 글자판을 설치하였음
- 관람객을 위한 전시공간을 설치하고 영상물과 설명을 통해서 황룡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점은 과거와 비교하여 발전된 모습이지만, 체계적으로 황룡사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음
- 황룡사 중문 남쪽을 비롯한 사역 내 여러 지점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부 지점에 대한 출입은 통제되고 있음. 발굴조사 현장 주변에 조사내용을 알려주는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유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임

### 3) 경주 분황사지



- 지정번호: 사적 제548호
- 소재지: 경북 경주시 분황로 94-11
- 지정면적: 28,703㎡
- 관리단체: 경주시

- 경주 분황사지는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 가운데 하나로,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선덕왕 3년(634)에 창건되었으며, 신라의 승려 자장(慈藏)과 원효(元曉)가 머무르면서 불법을 전파하였던 유서 깊은 사찰임
- 1990~2014년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현재의 경역 내·외부를 확인하였는데, 창건 당시 신라 최초의 품(品) 자형 일탑삼금당식 가람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그 후 세 번의 중건을 거쳐 광해군 원년(1609)에 현재의 금당인 보광전을 조성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음
- 분황사는 황룡사, 흥륜사 등과 함께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 왕경(경주)에 조성되었던 칠처가람(七處伽藍)의 하나이며, 국보 제30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 조성되어 있음. 또한, 장기간의 체계적 발굴을 통해 가람의 배치 양상과 그 변화상뿐만 아니라 경역의 대부분을 규명한 사찰로써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분황사 석탑은 일제강점기인 1904년에 세키노 다다시가 모전 석탑으로 보고한 이후, 1915년에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졌으며 이때 사리구가 출토되었음. 이후 1930년과 1933년에 후지시마 가이지로의 건축조사가 이루어졌음
-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구라고 할 수 있음. 당시 『朝鮮古蹟圖譜』3에 보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리함과 함께 부장된 금속유물의 성격이 불교적이기보다는 장신구처럼 보이는 점과 일부 여성 물품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당시 선덕여왕과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시각이 있음. 다음으로 사리함과 함께 출토된 복제의 상평오수전과 고려시대 송의 송녕중보로 인한 석탑 개축설이 있음. 고려시대 동전이 사리구 안에 포함된 점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 수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1965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분황사 뒷담에서 북쪽으로 33m 떨어진 구황동 857번지 내 우물 조사에서 훼손된 석불과 보살상이 수습되었음. 이들 석불과 보살상은 조선시대 훼손정책에 따라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었음
- 동국대학교 박물관은 1975년 2월 8일부터 18일까지 분황사 실측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11월 8일부터 12월 4일까지 보광전 주위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서향 건물지가 확인되었음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7차 발굴조사를 했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차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음. 발굴조사 결과 삼국~조선시대까지 가람배치가 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지형으로 인해 차이는 있지만, 금당, 강당 등 중요 건물의 위치와 규모가 밝혀졌음. 또한 사찰 외곽 공간에 기와가마, 단야공방 등 생산유적이 확인된 것은 사역 내 중심공간 바깥쪽에 사찰에 필요한 공방이나 부속시설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함
- 1991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석탑 실측조사를 실시하였음. 실측조사 결과 분황사 석탑의 원 층수를 노반석을 기준으로 하여, 9층과 7층으로 보는 복원안이 검토되었으며, 이 중 9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음
- 분황사 발굴조사 결과 창건 당시의 1탑 3금당의 품자형 가람배치 구조는 이후, 고려시대 중기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그러나 보광전 건물의 규모 변천을 살펴보면 조선시대까지 지속해서 건물 규모가 축소된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분황사의 사세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분황사에 대한 발굴조사는 현 사역을 중심으로 전모가 밝혀진 상태로, 동쪽에 위치한 구황동 원지 유적과의 관련성이 지적되고 있음. 원지 내 설치된 석축 시설이 분황사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과 구황동 원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 <芬王> 명 도장이 찍힌 그릇들과 판불 등의 존재

는 본 유적의 성격이 분황사와의 관련성이 깊음을 나타낸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결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최근 분황사 서쪽을 비스듬하게 가로지르는 분황로 서쪽 지역 유적의 조사 결과 출토유물과 유적의 시기가 분황사와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이 유적에서 확인된 대형 배수로는 현 분황사에서 확인된 대형 배수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분황사의 사역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큼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분황사에 관한 연구는 초기 황룡사와 같은 1탑 3금당 구조에 주목한 연구가 중심이었음. 하지만 발굴조사를 통해서 가람구조와 공간배치가 지형조건에 따라서 변화한 모습이 확인되고 사찰 내 예불공간과 외곽의 생산유적 등의 부속공간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분황사 창건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서 당시 사회상을 살펴보려는 연구도 시도되었고, 연화문수막새, 중문지 출토 치미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분황사 사역 공간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현재 사역 외에도 분황로 서쪽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까지 포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중심사역 이외 공간에 마련된 여러 건물지와 기와 가마를 비롯한 생산 유구의 존재는 분황사의 기능과 관련해서 그 사역 공간의 범위와 규모가 거대했음을 알려주므로 이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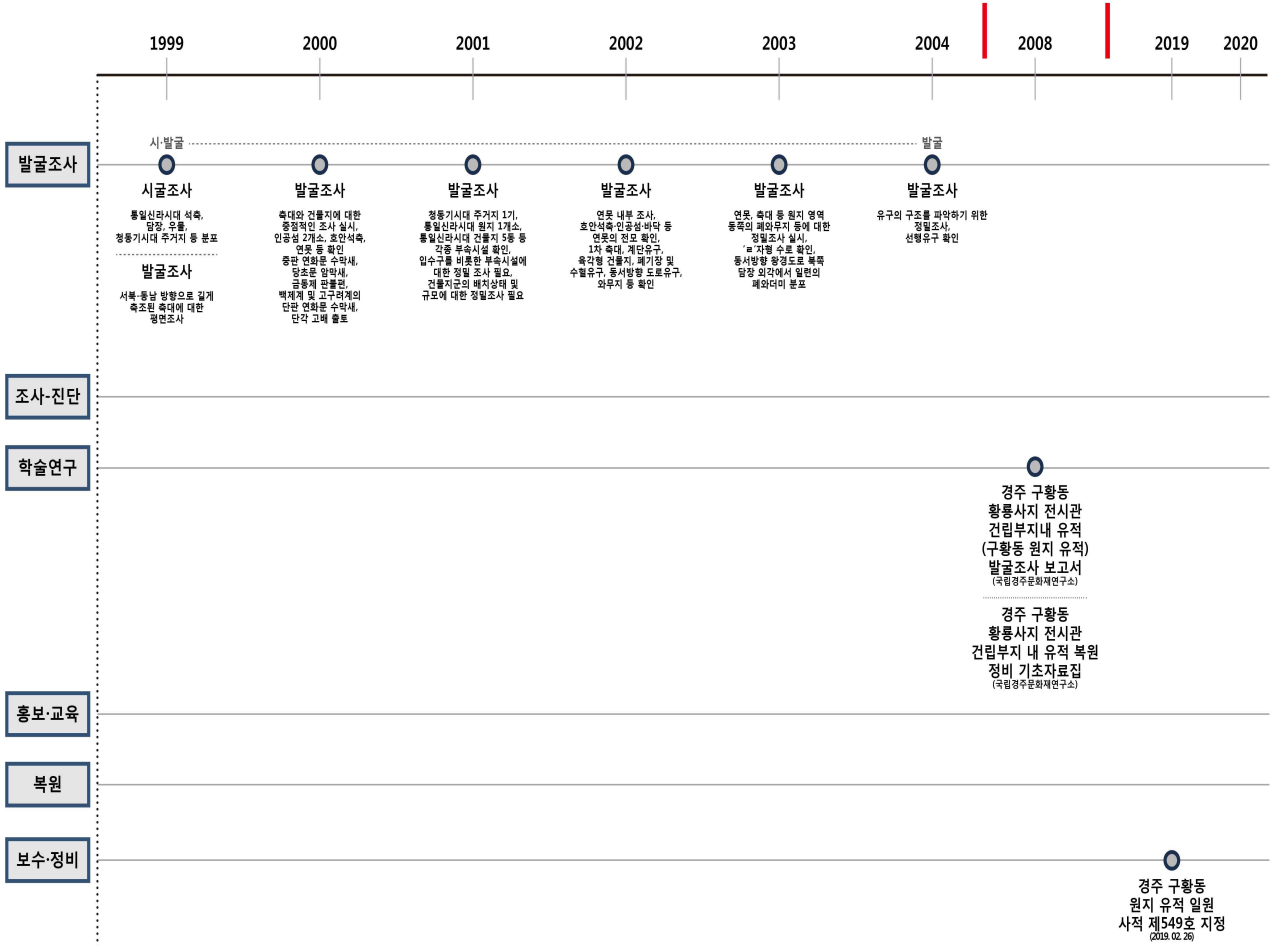
## (3) 복원·정비에 대한 평가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2015년 구황동 원지 일원을 아우르는 분황사 유적에 대한 복원·정비안을 수립하였음
- 분황사는 황룡사로 연결되는 탐방객 동선이 마련되어 있고, 비교적 넓은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어서 많은 탐방객과 신자들이 방문하더라도 인원수용이 가능한 상황임
- 안내소 및 설명문 그리고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지만, 모두 사찰 경내에 마련되어 있으며 실외 주차장 주변으로는 별다른 편의시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음. 따라서 사찰 경역 바깥 공간에도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 (4) 활용에 대한 평가

- 분황사는 삼국시대 창건된 이후 지금까지 사세를 유지하면서, 법회와 각종 종교행사를 이어오고 있음. 불교 신자와 탐방객이 방문하여 사찰 시설을 이용하거나 종교신앙 활동을 하고 있어 활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4)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 지정번호: 사적 제549호
- 소재지: 경북 경주시 구황동 292-2
- 지정면적: 29,259㎡
- 관리단체: 경주시

-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은 분황사 동쪽에 위치하며, 경주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 부지로 선정되어 1999년 시굴조사를 하던 중 통일신라시대의 석축, 담장, 우물 등의 유적이 확인되어, 2004년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원지 유적을 확인함
- 원지의 중심부에는 크고 작은 인공성 2개가 있고, 그 주위에 입수로와 배수로, 건물지, 담장, 축대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 또한, 출토된 여러 유물을 통하여 원지의 조성 시기, 변화상, 공간배치 등을 알 수 있어 통일신라시대 조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됨

#####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발굴조사 결과 분황사 사역과 연결되는 대형 축대를 기준으로 상층의 건물지와 하층의 원지 및 원지 선행시기의 ‘큰’ 자형 수로가 조사되었으며, 원지 내부에 조성된 2개의 인공성과 관련 시설 등이 확인되었음

- 구황동 원지 유적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연못은 땅을 파고 원지반을 깎아서 인공섬을 만들었으며, 연못 주변에는 호안 석축을 돌리고 조경석을 배치하여 조경을 목적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음
- 경주지역에서 원지가 조사된 사례는 1975~76년에 조사된 월지(안압지), 1998~99년에 조사된 용강동 원지 유적, 2010년에 조사된 황룡사연구센터 건립 예정부지 내 유적의 방형 원지로 당시의 정원문화를 알려주는 자료로써 신라 왕경 안에 다양한 형태의 원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음
- 구황동 원지 유적은 경주에서 세 번째로 발견된 원지 유적으로 연못 내부에 퇴적된 유기물 분석을 통해서 당시 식생 환경의 복원연구를 진행하였음. 또한 유적의 층위별 조사를 통해서 1차 연못 시기의 ‘리’ 자 배수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후 2차 연못과 관련된 건물지 등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진 점은 중요하다고 판단됨
-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 <芬王> 명 도장이 찍힌 그릇들과 판불 등의 존재는 인접한 분황사와의 관련성이 지적되기도 하였음. 또한 원지 유적의 건물지가 확인된 석축 시설이 분황사 쪽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은 두 유적이 각각 별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유적일 가능성이 있게 함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구황동 원지 유적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지만, 발굴조사된 유구나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며 당시 조경과 관련해서 원지의 구조, 조경석, 부속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구황동 원지 유적은 분황사와 같은 공간을 공유한 모습으로 두 유적 사이에 공간을 구분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두 유적은 서로 공간 구분 없이 영역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원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당시 환경과 출토유물 등을 함께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구황동 원지 유적은 동궁과 월지 유적처럼 궁궐 안에 마련된 원지이기보다는 분황사와 공간을 함께 한 원지로 추정되며, 이는 사찰과 관련된 원지일 가능성도 있음. 다만 사찰 내에서 확인되는 원지 시설을 살펴보면 주로 출입시설의 전면이나 후면 양쪽에 방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비해, 사찰 옆에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고 연못 안에 대도와 소도 2개의 인공섬을 갖춘 모습은 그 규모와 상징성으로 볼 때, 일반적인 시설과 달랐음을 보여줌

## (3) 복원·정비에 대한 평가

- 구황동 원지 유적은 보존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발굴 후 원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복토된 상태로 정비나 화훼식재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관람객의 접근 및 유적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발굴 조사된 중요 유구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고 위치를 표시하여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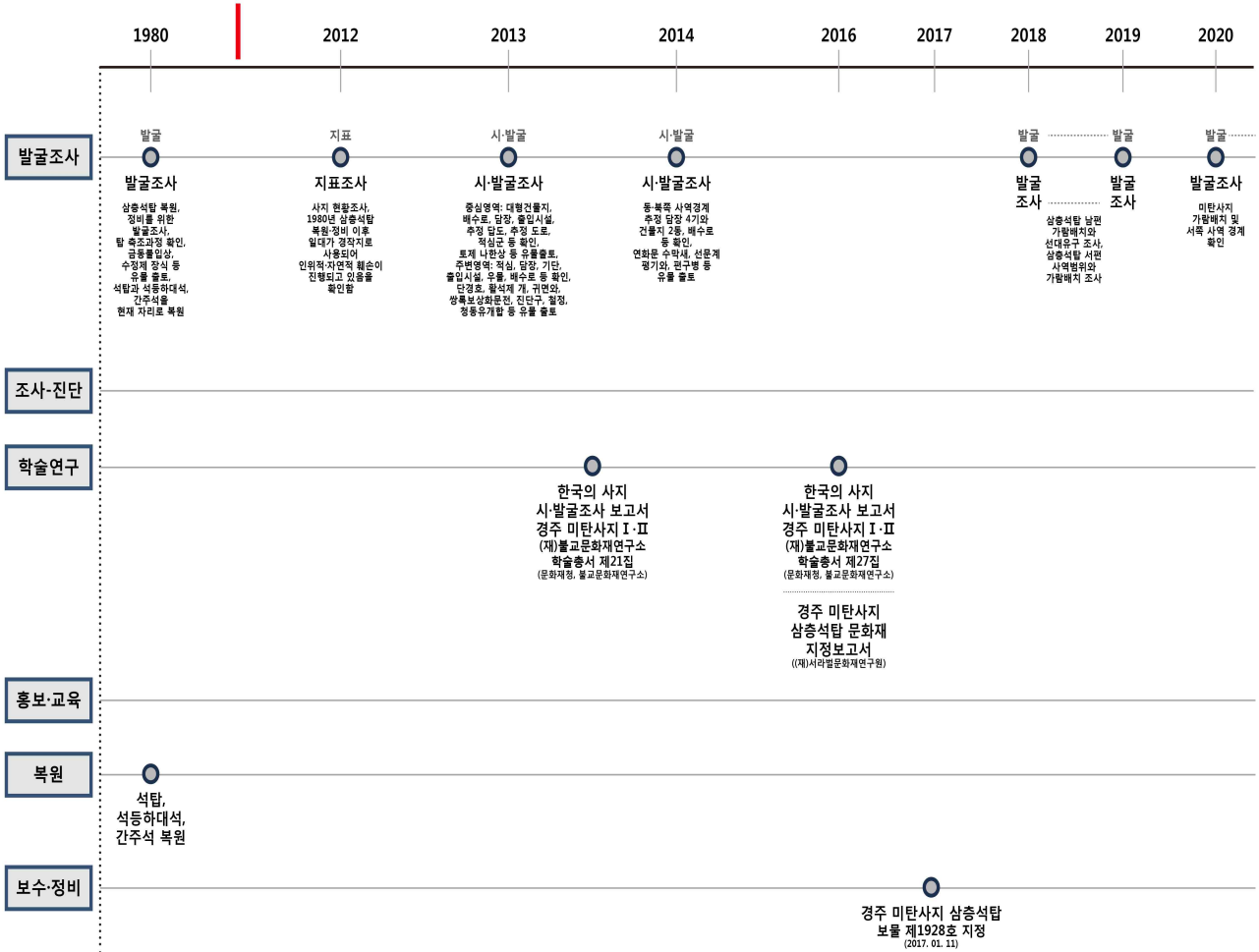
□ 특히 석축 시설은 그 범위가 분황사까지 이어지고 있으므로 유구의 모습을 어떤 층위를 기준으로 보여줄지 검토하고 설정할 필요가 있음

(4) 활용에 대한 평가

□ 구황동 원지 유적은 인접한 월지 유적과 함께 통일신라시대의 중요 유적으로 학계의 관심을 받았지만, 현재 유적에 대한 정비 ·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모습을 짐작하기 어려움

□ 분황사와 인접하여 황룡사로 연결되는 탐방객 동선이 마련되어 있고, 비교적 넓은 주차장이 구비되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여도 수용 가능함. 그러나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분황사 경내에 마련되어 있으며 실외 주차장 주변으로는 별다른 편의시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구황동 원지 유적을 탐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을 현 분황사 사역 바깥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5)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 지정번호: 보물 제1928호

■ 소재지: 경북 경주시 구황동 433-4외 22필지



■ 지정면적: 1기(33, 126㎡)

■ 관리단체: 경주시

- 경주 미탄사지는 통일신라시대 왕경 내에 형성된 도시가람으로 지리적 입지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찰일 가능성이 높음. 왕경의 중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문헌 자료 및 발굴된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 발굴조사를 통해 「味呑」 명 기와가 수습되어 『삼국유사』에 기록된 미탄사가 이곳임이 밝혀졌고, 추정 금당지 및 강당지를 비롯해 남문지 등 사역의 일단이 확인된 바 있음
-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높이 6.12m로, 총 35매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음. 1980년 이전까지는 도괴되어 기단부와 탑신부의 일부 부재가 소실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으나 1980년에 남은 부재들을 모아 복원을 하였고 소실된 부재는 새로운 부재를 치석하여 조립하였음
- 파손 및 결손난 부재를 신재로 보강 및 보충하여 신재와 구재 간 이질감이 있지만, 신라 왕경 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석탑이자 최초로 기초부 조사를 한 석탑으로 그 형태가 정연하고 적절한 비례감을 지니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큼
-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양식이 아닌 과도기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9세기 혹은 1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의 석탑들은 앞 시대에 비하여 석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드물게 규모가 큰 작품이어서 가치가 주목됨. 전체적으로 보아 이중기단으로 체감률의 비례가 적절하여 장중한 느낌이 드는 우수한 작품임
- 일반적인 석탑의 판축 기법과 달리 잡석과 진흙을 다져 불을 지피는 방식으로 한 단이 완성될 때마다 굳히면서 쌓아나가는 기초부의 판축 축조방식이나 기단부 적심 내의 지진구 출토 등은 특이하고 학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국석탑 연구에 있어 실증적 자료로서 그 가치가 큼

###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미탄사지는 『삼국유사』 기이편에 “(최)치원은 본피부사람이다. 지금 황룡사 남쪽 미탄사 남쪽에 옛 터가 있다 하니, 이것이 최치원의 옛 집이 분명하다.” 라는 기록이 전해서, 현 황룡사지 남쪽에 위치한 석탑재가 남아있는 폐사지를 미탄사지로 보게 되었음. 오사까 긴타로가 1932년 이를 근거로 미탄사로 추정하였음
- 미탄사지 발굴조사는 1980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괴된 삼층석탑을 복원하기 위해 실시했던 석탑지 조사 이후, 2012년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를 하였음. 2013~2020년까지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사역 전체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음
- 미탄사지 발굴조사 결과 현재 복원된 삼층석탑의 기초부가 원래 위치보다 높게 성토된 상태에서 복원되었음이 확인되었음. 사역 내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석탑 북쪽에 금당, 강당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확인되었지만 분명하지 않으며, 사역 공간은 석탑이 위치한 지역과 담장으로 구획된 생활공간이 각각 위치한 것으로 추정됨

- 현재 미탄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므로 2020년에 발굴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사찰공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사역으로 추정된 면적 중 사찰 내 예불공간으로 추정되는 금당, 탑을 포함한 지역이 전체 사역의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미탄사의 사역 내 공간이 각각 구분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줌. 이는 미탄사의 공간구성과 신라왕경 내 일반적인 사찰의 공간구성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함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미탄사지에 관한 연구는 과거 국립경주박물관의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를 제외하면 대부분 석탑의 형태 및 형식구조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다른 연구성과는 아직 미비한 실정임
- 미탄사지 발굴조사를 통해서 <미탄>명 명문와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월지의 출토품과 비교 연구가 가능함.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후 미탄사의 성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역 내 개개 건물에 대한 조사내용이 보고된다면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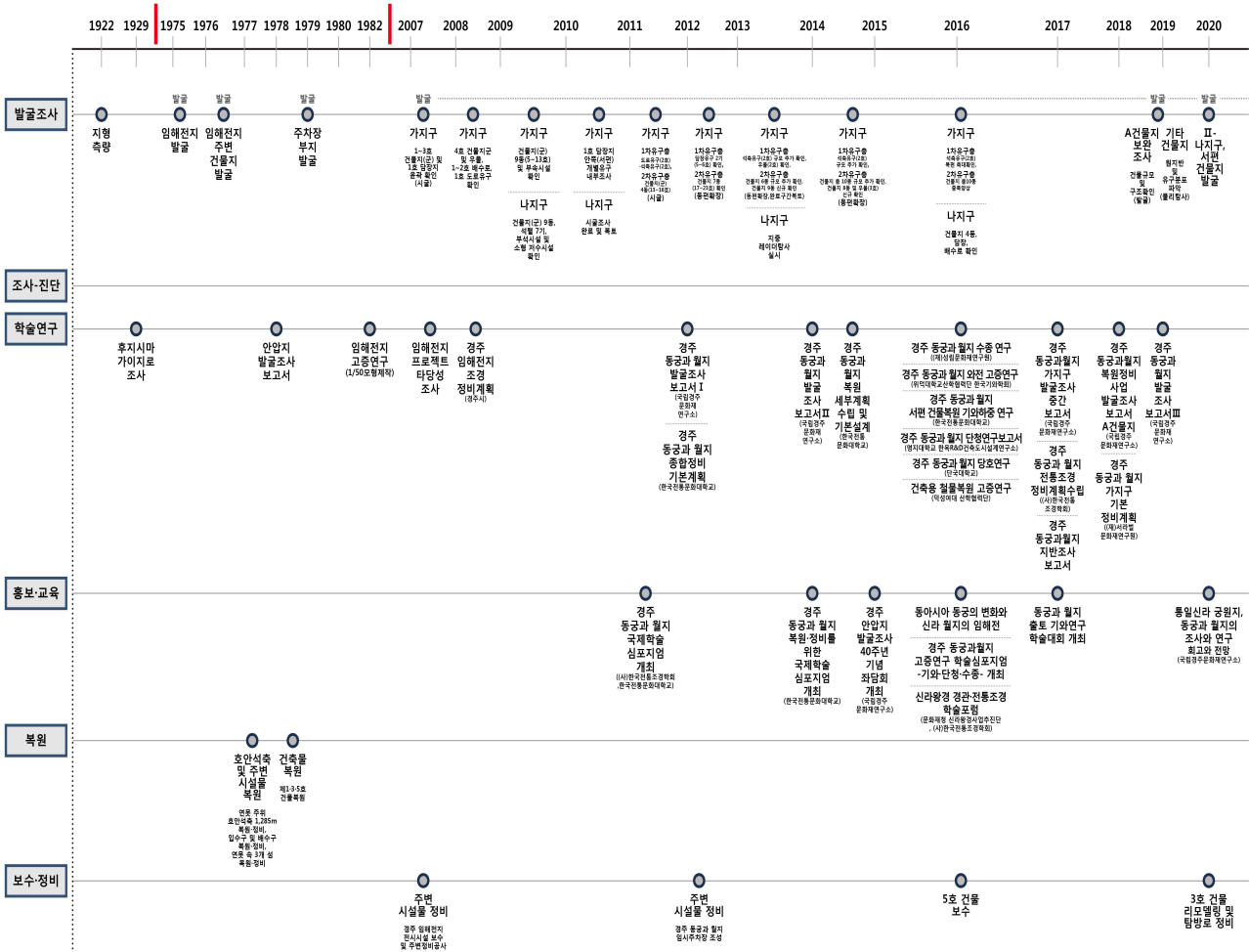
## (3) 복원·정비에 대한 평가

- 미탄사지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80년대에 복원·정비가 시작되어 미탄사지 삼층석탑이 복원되었지만, 복원 후 석탑 주변 일대에 대한 보호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경작행위로 인해 발생한 침수때문에 훼손되었음
- 최근 발굴조사로 인해 진입로가 새로 정비되면서 출입은 용이해졌지만, 사역 내 발굴조사로 인해 관람객의 출입과 관람은 한계가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발굴조사가 종료된 이후 사역 내 중요 건물지와 시설 등의 위치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역에 대한 정비와 미탄사지 삼층석탑의 관람 동선을 정비하여 관람객의 접근과 출입이 편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수반되는 편의시설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함

## (4) 활용에 대한 평가

- 비교적 이른 1980년에 복원·정비된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복원만 이루어졌을 뿐, 문화재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반영되지 않았음. 당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으며, 정비 이후 관리대책이나 보호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시대적 한계라 할 수 있음
- 경주 시내에 위치한 지정 문화재들과 달리 일반인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제한조건이 많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 6) 경주 동궁과 월지



- 지정번호: 사적 제18호
- 소재지: 경북 경주시 인왕동 26번지
- 지정면적: 350,042㎡
- 관리단체: 경주시

- 동궁과 월지는 신라 왕궁의 별궁터로 다른 부속 건물들과 함께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으로 사용되면서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음. 신라 경순왕이 견훤의 침입을 받은 뒤 931년에 왕건을 초청하여 위급한 상황을 호소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곳이었음. 임해전은 별궁에 속해 있던 건물이지만 그 비중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며 월지는 신라 원지(苑池)를 대표하는 유적임
- 삼국을 통일한 후 문무왕 14년(674)에 큰 연못을 파고 못 가운데에 3개의 섬과 못의 북·동쪽으로 12 봉우리의 산을 만들었으며, 여기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고 전해짐
- 『삼국사기』에는 임해전에 대한 기록만 나오고 동궁과 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조선시대 『동국여지승람』에서 “안압지의 서에는 임해전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현재의 자리

를 안압지(동궁과 월지)로 추정하고 있음

- 일제강점기에 철도 부설 등 많은 훼손을 입었던 임해전 터의 못 주변에는 회랑지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건물터 26곳이 확인되었음. 그중 1980년 임해전으로 추정되는 곳을 포함하여 서쪽 못가의 신라 건물터로 보이는 5개 건물터 중 3곳과 월지를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 중 ‘조로 2년(調露二年, 680)’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보상 화무늬 벽돌이 출토되었는데, 임해전이 문무왕 때 만들어진 것임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대접이나 접시도 많이 나왔는데 신라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생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임

###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1974년 안압지 정화사업에 따라 연못 내부 준설과 주변 정화사업을 진행하던 중 통일신라 유물이 발견되자, 문화재관리국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서 1975년 3월 25일부터 1976년 3월 25일까지 연못을 발굴조사하고 1976년 5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못 주변 건물지를 발굴조사 하였음
- 2007~ 2018년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현 동궁과 월지 북동쪽(가 지역)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를 하였고 2009~2020년까지 나지구(동궁과 월지 남동쪽)에 대한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음
- 동궁과 월지 유적 발굴조사는 1975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롭게 발굴조사된 성과에 기초한 동궁의 영역과 공간범위 그리고 월지의 배수 등에 관한 연구로 발전되어가고 있음. 또한 당시 우물에서 출토된 인골 분석 등을 통해서 당시 사회 모습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한편 가지구에서 조사된 건물지 중 황룡사 중문과 동일한 규모의 문지가 확인된 점과 최근 발굴조사된 황룡사 중문지 앞 광장과의 연결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고 있음
- 동궁과 월지 유적 발굴조사는 크게 두 지역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음. 먼저, 현 월지 주변 일대에 위치한 건물지 발굴조사 내용으로 볼 때 선대 축조 건물지와 후대 축조 건물지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선대 유적은 일부만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함. 또한 미조사된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며, 현 건물지 하부에서 확인된 4세기대 토기가 출토된 성토층에 대한 연구는 월성 축조와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동궁과 월지 유적의 발굴조사 결과 동궁과 관련된 대형 건물지 및 황룡사 중문지와 같은 규모의 문지가 확인되었고, 남북 도로를 경계로 동궁 입구와 황룡사 남편 광장이 연결되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월성과 관련된 중심영역으로 추정되고 있음
- 동궁의 영역과 발굴조사된 각종 건물지에 대한 성격, 우물에서 출토된 인골과 매장 당시 환경문제 등에 관한 연구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발굴조사 내용에 따라서 동궁과 월지 유적의 공간구성과 특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동궁과 월지 유적의 초기 연구는 연못과 조경, 연못 내 출·입수시설 등에 관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출토유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졌음
- 2007년 이후 이루어진 동궁과 월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동궁의 위치, 성격, 기능 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 관점이 도출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지만, 전체 유적 범위 중 일부만 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야 그 성격이 분명할 것으로 판단됨
- 각종 유물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개별 유물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당시 생활 모습, 식생활, 궁궐 내 경비교대 문제 등과 같은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음
- 동궁 내부에 위치한 개별 건물의 이름이나 성격에 대한 고증은 아직 미진한 상태로 연구자마다 건물의 비정이나 성격에 대한 의견이 다른 점은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서 정리되어야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월지 내부 출토유물과 개별 유구의 특징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동궁과 월지에 대한 발굴결과를 토대로 여러 연구성과를 살펴볼 때, 출토유물에 관한 연구에서 공간분석과 환경연구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 특히 월성과 함께 신라궁궐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 동궁과 월지 유적의 전체 영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함. 또한 월지와 관련된 배수체계 연구는 월성 북쪽을 지나가는 발천과 연계해서 이루어진다면 월성 주변 환경에 관한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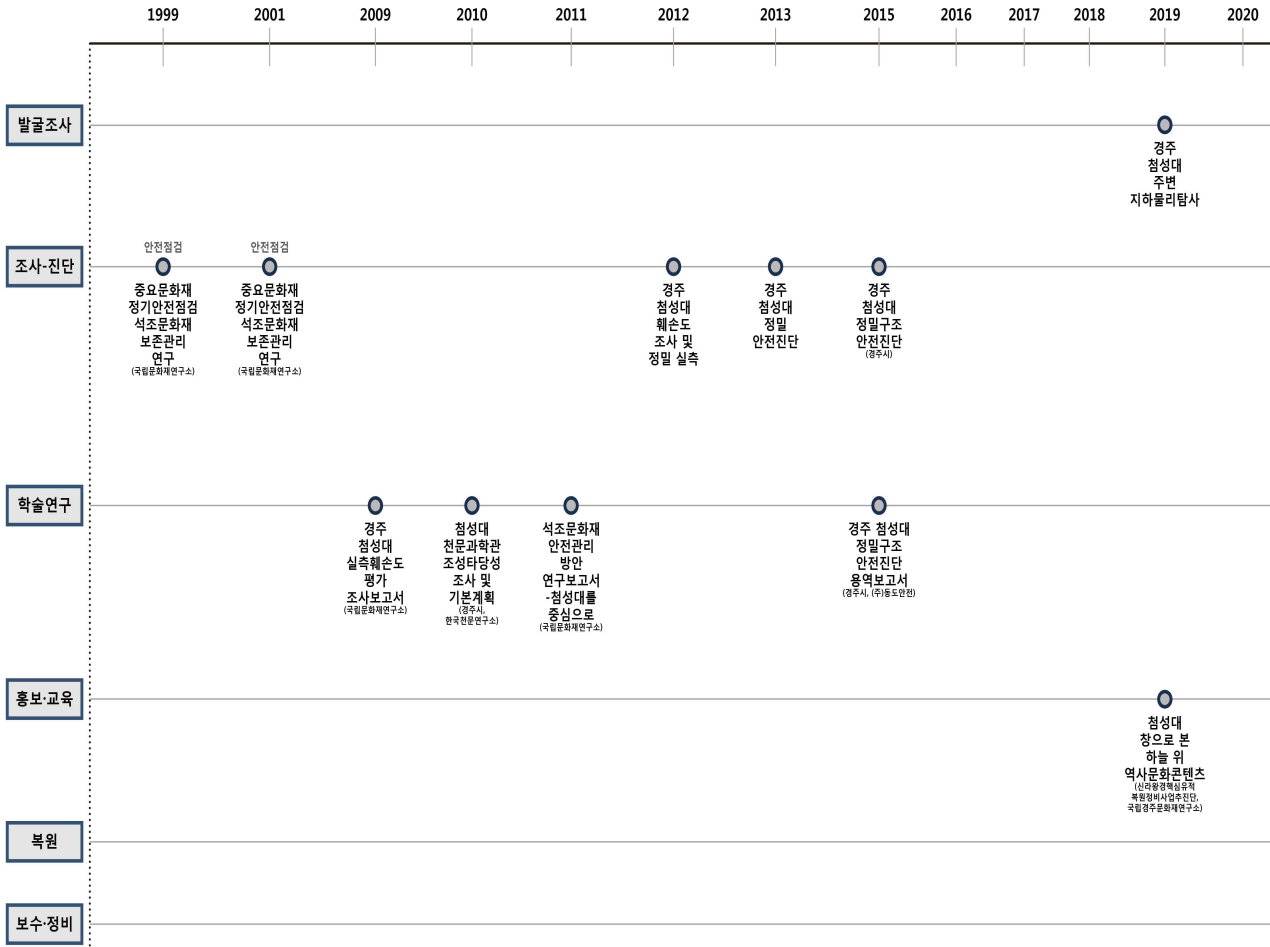
## (3) 복원·정비에 대한 평가

- 월지는 1975~1976년의 발굴조사 이후 사적으로 정비되었으며 호안석축을 따라서 당시 정원의 모습을 복원하였고, 임해전지로 추정되는 건물 등을 복원하여 관람객이 탐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건물지의 경우 그 기초부를 복원하여 건물의 규모를 살펴볼 수 있고,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유적에 대한 접근이 편리함
- 야간에는 조명을 이용한 관람환경을 조성하여 주·야간으로 관람객이 탐방할 수 있도록 만든 점은 주목되는 성과라 할 수 있음. 다만 복원된 건물 안에 유적의 이해를 돕도록 모형, 전시물,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지만 일부 교체 및 보완이 필요하며, 월지 전체의 모습을 구간별로 나누어 관람객들이 굴곡진 월지의 호안 석축과 조경을 살펴볼 수 있도록 관람지점 등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발굴조사가 완료된 지역의 유적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화장실 유적 등의 복원·정비 등을 통해 관람객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4) 활용에 대한 평가

- 동궁과 월지 가지구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동궁과 월지 유적에 대한 복원·정비안을 통해서 조속히 유적에 대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7) 경주 첨성대



- 지정번호: 국보 제31호
- 소재지: 경북 경주시 인왕동 839-1번지 외1
- 지정면적: 1기(28.7㎡)
- 관리단체: 경주시

- 경주 첨성대는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신라시대의 천문 관측대로써 받침대 역할을 하는 기단부 위에 원통부(圓筒部)를 올리고 맨 위에 정(井)자형의 정상부(頂上部)를 얹은 모습이며 높이는 약 9m임
- 경주 첨성대는 상방하원(上方下圓 : 위는 네모지고 아래는 둥근 모양)이고, 높이는 19척 5촌, 위의 원둘레가 21척 6촌, 아래의 원둘레가 35척 7촌임. 『삼국유사』에 의하면 첨성대(占星臺)라고도 불렀음이 확인됨
- 원통부는 부채꼴 모양의 돌로 27단을 쌓아 올렸으며, 매끄럽게 잘 다듬어진 외부에 비해 내부는 돌의 뒷 뿌리가 삐죽삐죽 나와 벽면이 고르지 않음. 남동쪽으로 난 창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막돌로 채워져 있고 위쪽은 정상까지 뚫려서 속이 비어 있음. 동쪽 절반이 판돌로 막혀있는 정상부는 정(井)자 모양으로 맞물린 길다란 석재의 끝이 바깥까지 뚫고 나와 있음. 이런 모습은 19~20단, 25~26단에서도 발견되는데 내부에 사다리를 걸치기에 적당했던 것으로 보임

- 기록에 의하면, “사람이 가운데로 해서 올라가게 되어있다” 라고 하였는데, 바깥쪽에 사다리를 놓고 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사다리를 이용해 꼭대기까지 올라가 하늘을 관찰했던 것으로 보임
- 천문학은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 농사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관측 결과에 따라 국가의 길흉을 점치던 점성술(占星術)이 고대국가에서 중요시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정치와도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일찍부터 천문학은 국가의 큰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는 첨성대 건립의 필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짐
- 신라 선덕여왕(재위 632~647) 때 건립된 것으로 추측되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 그 가치가 높으며, 당시의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라 할 수 있음

###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1962년 12월 하순부터 1963년 1월 31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홍사준 관장의 주도아래 실측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실측도 및 복원도가 별도 도면집으로 간행됨. 2009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첨성대 실측 훼손도 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1년 석조문화재 안전관리 방안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음. 2019년 문화재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추진단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첨성대 창으로 본 하늘 위 역사문화콘텐츠』 학술대회를 통해서 첨성대의 제 학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첨성대 주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는 1985년 경주고적발굴조사단이 첨성대 서편 지역 내 전선지중화공사에 따른 맨홀 설치지점에서 실시하였음. 조사결과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와 관련된 적십과 대호 매납 시설 3기가 확인되었고, 이후 1992년 경주 월성해자 발굴조사 계획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첨성대 남편 부지를 조사한 결과 건물지 34개소가 확인되었음
- 첨성대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양상이 확인되는데 먼저 첨성대를 건축물로 보고 첨성대에 대한 기록 및 첨성대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들을 조사한 것임. 첨성대를 별과 천문을 관측하는 천문대와 관련된 구조물로 보고 조사연구가 진행되었음
- 다른 하나는 첨성대의 역사성과 유적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주변 일대에서 발굴조사된 유구들과 연계해서 조사한 것임. 하지만 첨성대 주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는 울타리 옆에 가설된 지하매설물 시설에 대한 발굴조사 외에는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첨성대 남편에서 확인된 대형 건물지는 월성과 관련된 관청으로 추정되고 있고, 첨성대 북쪽에 적석목곽분이 인접한 모습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첨성대 주변 일대는 빈 공간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현 첨성대 울타리 바깥쪽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통일신라시대 건물지가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월성 북고분군과 관련된 묘역 경계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첨성대에 관한 연구는 유적 자체에 관한 연구보다는 성격과 의미를 찾기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

으며,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건축학,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첨성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첨성대의 기능을 천문 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천문대로 보는 시각과 선덕여왕이 하늘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제단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경주 월성을 포함한 신라 궁성의 기준점으로 보는 시각 등이 확인됨. 이러한 연구자들의 입장은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첨성대를 해석하는 경향과 당시 신라왕실의 정치사를 중심으로 선덕여왕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되었음
- 『삼국사기』 등에 기록된 신라의 천문관측기록을 중심으로 당시 천문학이 발전하였고 이러한 관측 작업이 첨성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중국에서 역법을 바탕으로 발전된 천문학의 존재를 알려주는 증거로 첨성대를 보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천문관측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모습을 추정하고 복원할 필요가 있음

### (3) 복원 · 정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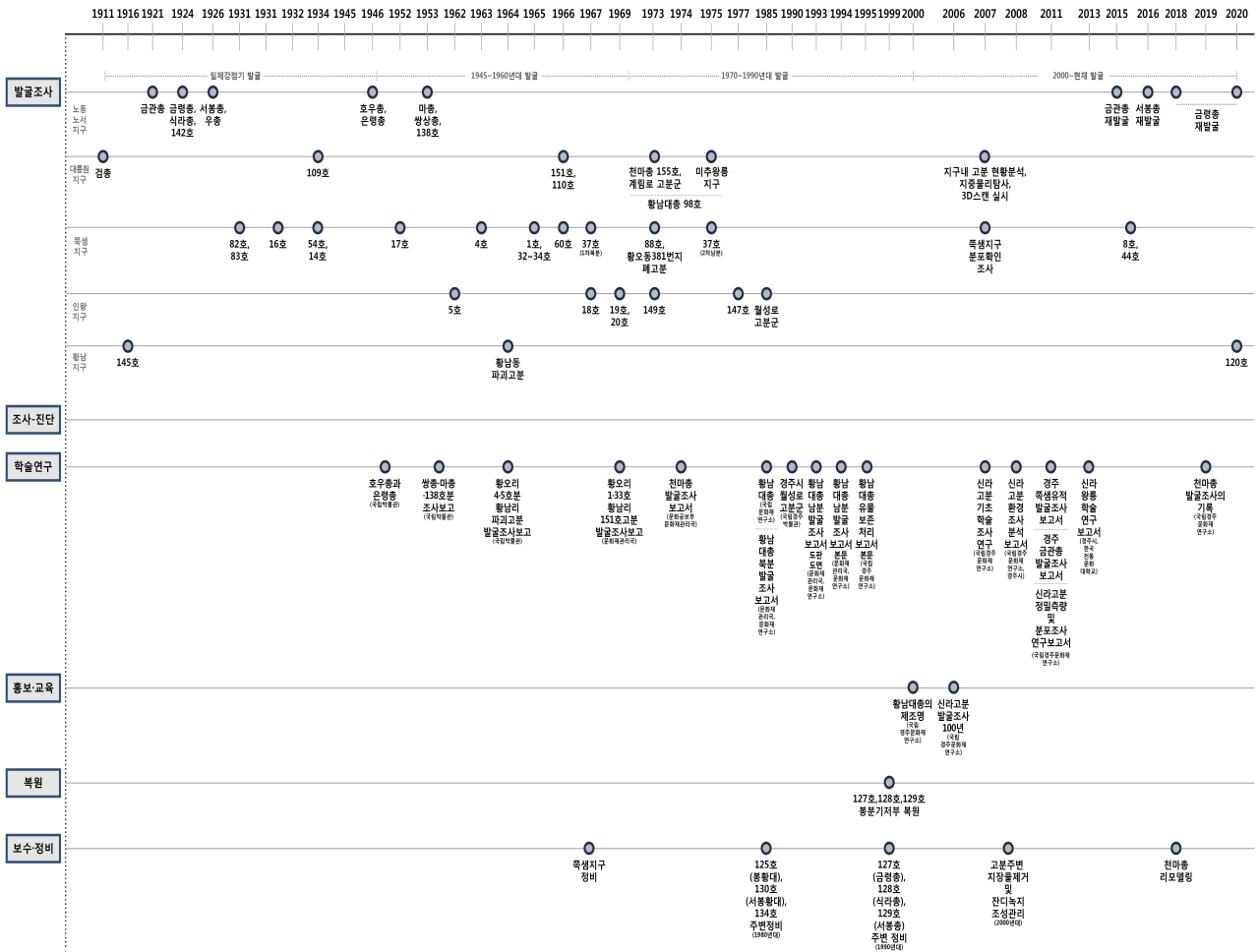
- 첨성대 주변 일대는 경주 동부사적지대로 주요 유적에 대한 접근성과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유적을 설명해주는 안내판과 보행로가 정비되어서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첨성대 주변을 두른 울타리는 과거보다 낮아지고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주변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인 관람환경에서 볼 때 현 울타리와 관련된 시설물은 관람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철거하고 주변 경관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

### (4) 활용에 대한 평가

- 첨성대는 일찍부터 국보로 지정되어 유적과 주변 일대에 대한 관람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음
- 유적 보호를 위한 시설과 관람객의 동선이 잘 정비되었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음. 또한 관람객이 첨성대를 체험할 수 있는 관람시설과 동영상 제공함으로써 유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
- 관람객은 동부사적지대 내 개설된 탐방로를 따라서 대릉원에서 첨성대를 거쳐 월성해자를 지나 월성 입구와 동궁과 월지 유적으로 연결되는 신라 유적의 중심부를 관람할 수 있음
- 비단벌레차 운영은 관람객들이 차량에서 유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유적을 탐방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관람하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첨성대에 대한 안전문제 제기에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검작업 내용을 관람객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첨성대 앞을 지나가는 탐방로 외에도 각종 행사를 위해 만든 서쪽 광장시설이나 북동쪽의 핑크몰리식재지 등은 동부사적지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공간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행사가 진행되고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첨성대 주변의 관람환경을 저해하는 모습도 확인됨



## 8) 경주 대릉원 일원



- 지정번호: 사적 제512호
- 소재지: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 등
- 지정면적: 602,314m<sup>2</sup>
- 관리단체: 경주시

□ 대릉원 일원은 본래 사적 제38호 경주 노동리 고분군, 사적 제39호 경주 노서리 고분군, 사적 제40호 경주 황남리 고분군, 사적 제41호 경주 황오리 고분군, 사적 제42호 경주 인왕리 고분군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11년 문화재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경주 평야 한복판에 서로 인접해 있는 신라시대의 고분군을 통합하고 사적 제512호로 재지정하였음

###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대릉원이란 명칭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미추왕(味鄒王)을 대릉(大陵: 竹長陵)에 장사지냈다’는 기록에서 따온 것으로, 현재 경역 안에는 23기의 고분이 위치함
- 일제강점기 이래 현재까지 다수의 고분이 발굴조사 되었지만, 노동동·노서동 고분군에 대한 조사가 중심이 되어 대릉원이 위치한 황남동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한정적으로 이루어졌음

- 1911년 황남동 100호분(검총)은 남아있는 봉분에 대한 시굴조사를 하였고, 1926년 철도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면서 황남대총 주변에서 노출된 고분을 발굴조사 하였음. 이후 1931년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조선고적연구회 촉탁직으로 근무한 아리미쓰 교이치는 황남동 82호분과 83호분을 발굴조사 하였고, 사이트 다다시는 개발로 인해 파괴될 황남동 109호분 등을 발굴조사 하였음
- 1975년 경주관광개발사업에 의해 신라 고분 중 최대급인 <황남대총>과 부근의 <천마총>이 조사되었으며, 대릉원 주변 일원에 대한 고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음. 당시 조사된 황남동 110호분은 신라 적석목곽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주변 일대에 분포한 고분군은 대학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하였음
- 계림로 14호분에서는 서역계 장식 보검이 출토되었고, 황남리 151호분은 황구식석실분으로 적석목곽분이 중심인 대릉원 내 고분 중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줌
-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발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금관이 발견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노동동·노서동 고분군에서 벗어나서 시내에 조성된 대규모 고분에 대한 현황파악과 일부 건설공사로 인해 훼손된 고분을 발굴조사하고 신라 적석목곽묘의 분구 형태 중 표형분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졌음
- 1970년대 이후 경주 대릉원 정비 및 주변 담장 설치에 따른 발굴조사 결과 현 고분군 주변에 중·소규모 고분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인접한 경주 쪽샘지역 내 고분들과 동일한 성격의 고분군으로 분포영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줌
- 대릉원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신라 초기의 적석목곽묘를 비롯하여 다수의 신라 고분이 발굴조사 되었으며, 최근 대릉원 외곽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도 역시 동일한 성격의 적석목곽묘가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1970년대 대릉원 일대를 정비하면서 인위적으로 구획한 공간 바깥쪽에서도 적석목곽묘가 확인되었음. 그러나 도로 건너편 경주 쪽샘유적과 월성로 건너편 인왕동 고분군 등과 함께 묘역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공간 내 영역이 별도로 분리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다만 쪽샘유적에서 고분군이 위치한 공간과 통일신라시대 생활영역이 분리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대릉원 일원도 같은 모습일 가능성이 있음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경주 대릉원에 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주로 대형 고분에 관한 연구, 표형분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었고, 그 구조와 출토유물에 대한 보고가 충실하게 이루어진 <황남대총>과 <천마총>을 중심으로 신라 고분 편년과 출토유물의 성격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음
- 대릉원 유적 중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라 적석목곽묘 중 그 구조와 특징이 잘 드러난 <황남대총>과 <천마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외에는 적석목곽묘의 봉분과 호석 축조방법, 연접분 개별 고분의 선후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제의 유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도 있음

-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신라고분 중 최대 규모인 <황남대총>과 <천마총>의 경우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과 복원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연구결과가 계속 도출되고 있음. 이러한 점은 여타 다른 고분 연구에서는 찾기 힘든 사례로 신라 적석목곽묘 연구에 기준이 되는 두 고분의 위상을 보여줌
- 이러한 현상은 대릉원 일원에서 조사된 수많은 적석목곽묘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음. 당시 발굴 조사된 적석목곽묘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가 소략하고 출토된 유물에 대한 전모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에 기인하고 있음
- 따라서 당시 조사된 적석목곽묘에 대해서는 고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출토유물에 대해서도 재정리 보고가 필요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관심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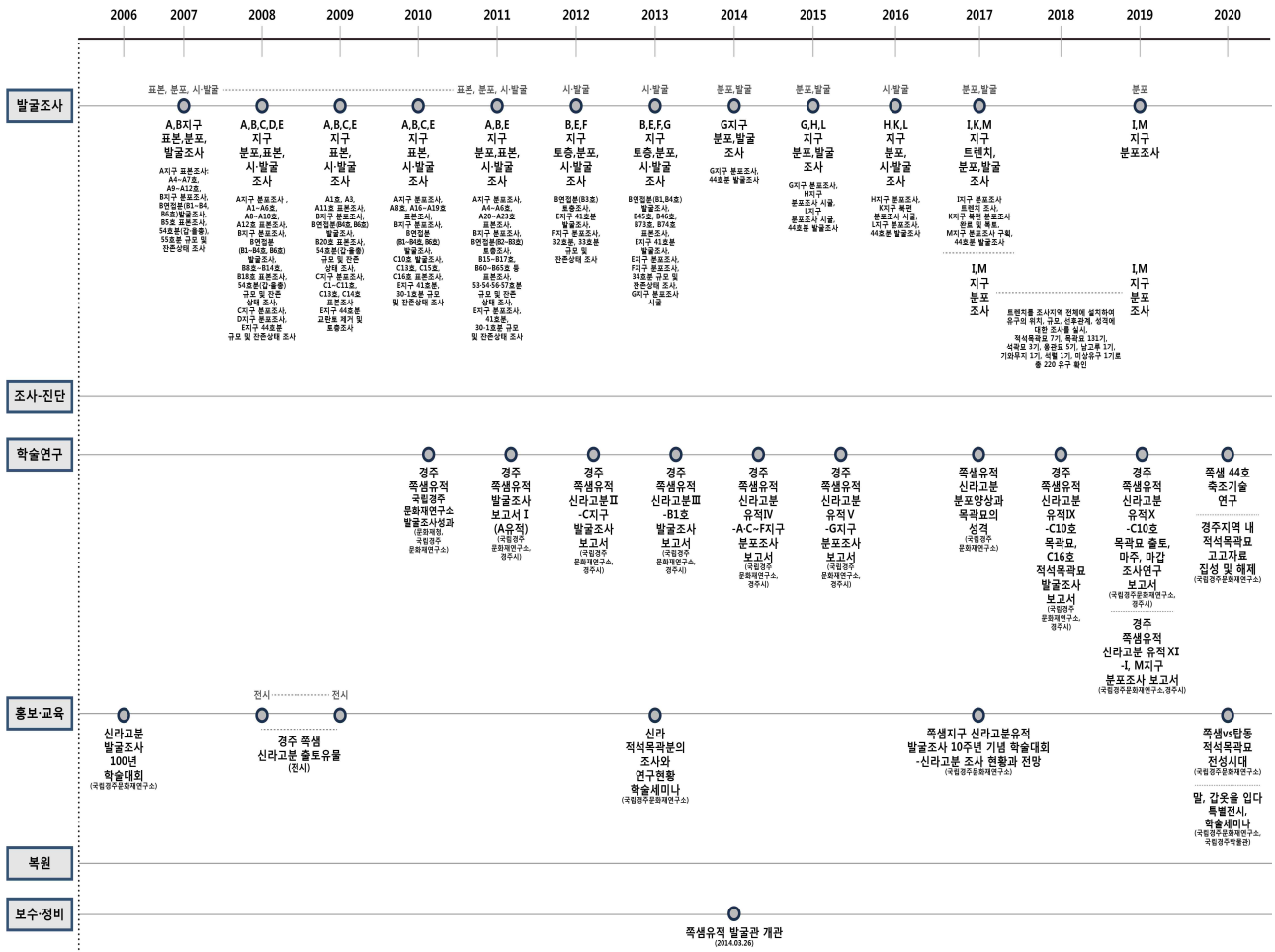
### (3) 복원 · 정비에 대한 평가

- 국내에서 고분군을 공원으로 꾸민 첫 번째 사례로 현재까지 시민들과 많은 관람객의 수용이 가능함. 대릉원 주변 일대에 위치한 신라고분의 분포범위로 볼 때 매우 한정된 공간을 공원시설로 만든 것으로 한계가 있지만, 복측 담장 일부를 철거하고 개방형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동선이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대릉원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됨
- 현재 경주 시내지역에서 가장 잘 정비된 사적공원으로 평가되지만, 탐방로 주변에 식재된 수목 주변에 관람객이 휴식할 수 있는 의자 등의 시설과 개별 고분을 설명하는 안내문의 설치가 필요함
- 상시 관람객이 많은 관계로 이동할 때 동선이 겹치는 등 주변이 혼잡해지기 쉬우므로 출입 동선 관리가 필요함

### (4) 활용에 대한 평가

- 대릉원의 내부에는 고총고분과 주변을 이어주는 탐방로가 정비되어 있고 휴게시설, 음료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외부에는 대형 주차장, 각종 상가, 대형 화장실 등이 있어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문화유산 해설사가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 <천마총>의 경우에는 최근 전시내용을 새롭게 구성하여 개관하였음
- 대릉원 내부에 갖추어진 정비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상시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입시설 앞에 갖춰진 대형 주차시설과 인근에 만든 대형 공공화장실은 관람객들에게 대릉원 일대가 사적 공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주 쪽샘지구



□ 경주 쪽샘지구는 4~5세기대 신라 귀족들의 집단 묘역으로 알려진 곳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황남·인왕동 일대에 있음

□ 1960년부터 민가가 들어서면서 고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삭평, 파괴되었으며, 2007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하여 적석목곽묘와 목곽묘·석곽묘 등을 확인하였음. 현재에도 미조사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경주 쪽샘유적은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일제강점기 때, 몇 차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이후 경주관광개발 및 폐고분 발굴조사 사업에 따라 일부 고분에 대한 수습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정밀조사와 분포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음

□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아리미쓰 교이치가 황오리 16호분과 황오리 54호분을 조사했고, 사이트 다다시는 황오리 14호분을 조사하였음. 주택 건축 등으로 인해 개별 고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여, 표형분의 연접 관계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러 기의 고분이 연접된 황오동 16호분의 경우에는 고분의 분포범위가 조사범위를 벗어남으로 인해 일부만 조사되었음

- 한편 황오리 54호분의 경우에는 을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부곽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채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음이 최근 쪽샘유적 B구역에 대한 시굴조사 중 확인되었고, 발굴조사보고서 발간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후 추가로 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지기도 했음
-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쪽샘지구 내 신라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는 대형분에 대한 계획조사보다는 개발에 따른 수습조사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조사 고분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남음
- 1970년대 경주개발계획에 따라 국립박물관과 문화재관리국 그리고 각 대학박물관에서 쪽샘지역 내 신라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금동관 등이 출토되어 시내 중심고분군보다는 위계가 낮지만 중·소형 고분군들이 일정한 묘역을 갖추고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발굴조사 후 일부 고분만 발굴조사보고서가 간행되고, 대부분 보고서가 미발간된 상태로 있었으나, 2020년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이들 고분 출토유물에 대한 조사 및 정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향후 신라 고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07년부터 이루어진 경주 쪽샘지구 신라 고분 조사는 A~N지구까지 14개 지구로 구분하여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 5월까지 I, M지구까지 모두 9개 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음. 조사 결과 쪽샘지구 내 분포하는 개별 고분의 위치와 규모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155기 중 쪽샘지구 내 분포하고 있는 고분들의 현황을 확인하였음
- 이들 고분 외에도 조사지역 내 미고지에 위치한 고분들의 모습과 41호분, 44호분 및 B지구와 C지구의 목곽묘, 적석목곽묘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신라 적석목곽묘의 목곽부 적석 및 상부적석의 형태를 확인하였음
- C10호분에서 신라 중장기병의 존재를 알려주는 마갑, 마주, 기병용 찰갑이 출토되었음. 이들의 복원품을 제작하여 당시 마갑, 마주에 대한 제작기술 및 착장 방법에 대한 연구성과를 획득함
- 경주 쪽샘유적 조사는 분포조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고분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유적 내에서 확인된 전체 고분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극히 일부 고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
- 중형고분인 41호분과 44호분, 군집분을 중심으로 한 B지구의 조사와 마갑, 마주가 확인된 C지구의 조사를 제외한다면 각 지구 내 위치한 개별 고분에 대한 성격을 확인하기에는 그 사례가 적어 추가적인 표본조사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된 황오리 16호분 주변부와 54호분 을총 부곽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쪽샘유적에 대한 여러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현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에 대한 민속학 연구와 조사된

고분의 분포상태 및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한 고고학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민속연구의 성과는 쪽샘지역을 대상으로 당시 거주하던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기록한 것으로 개발로 인해 마을의 역사가 소멸하는 것에 대한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함
- 쪽샘유적 개개 고분들의 봉분 규모와 호석의 연결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본 선후 관계와 호석 주변에 만들어진 제의유구 등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한 여러 견해들이 발표되었으나 아직까진 한정된 연구성과만 발표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원인은 쪽샘유적에서 조사된 많은 고분 중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사례가 적기 때문인데 특히 1970년대 조사된 고분 중 상당수가 보고서가 미발간되어 유적 전체를 살펴보는 데 제약을 초래하고 있음
- 현재까지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개별 고분과 그 출토유물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

### (3) 복원·정비에 대한 평가

- 경주시에서는 신라 고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었음.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과거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신라 고분 전체에 대한 효과적인 보존방안이나 정비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음. 사적으로 지정된 시내 고분군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보존관리기본계획, 2005년에는 쪽샘지구 내 신라고분군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안이 마련된 바 있음
- 초기에는 택지개발과 관광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정비, 주택개량 그리고 지하관로 매설과 같은 공사로 인해 구제발굴조사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유적 내 민가를 철거하고 현재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분포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아직 이전이 안 된 주택과 토지가 유적 내 일부 남아있어서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발굴조사에 지장이 있음. 그리고 유적 내 정비 방향에 있어, 호석이 확인된 고분은 복원을 하고 있지만, C10호 목곽묘처럼 신라 고분 연구에 중요한 유구가 지금까지 별도의 구분이나 안내판 등이 설치되지 않음
- 따라서 쪽샘유적 안에 위치한 여러 고분들 중 비록 봉분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고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문과 영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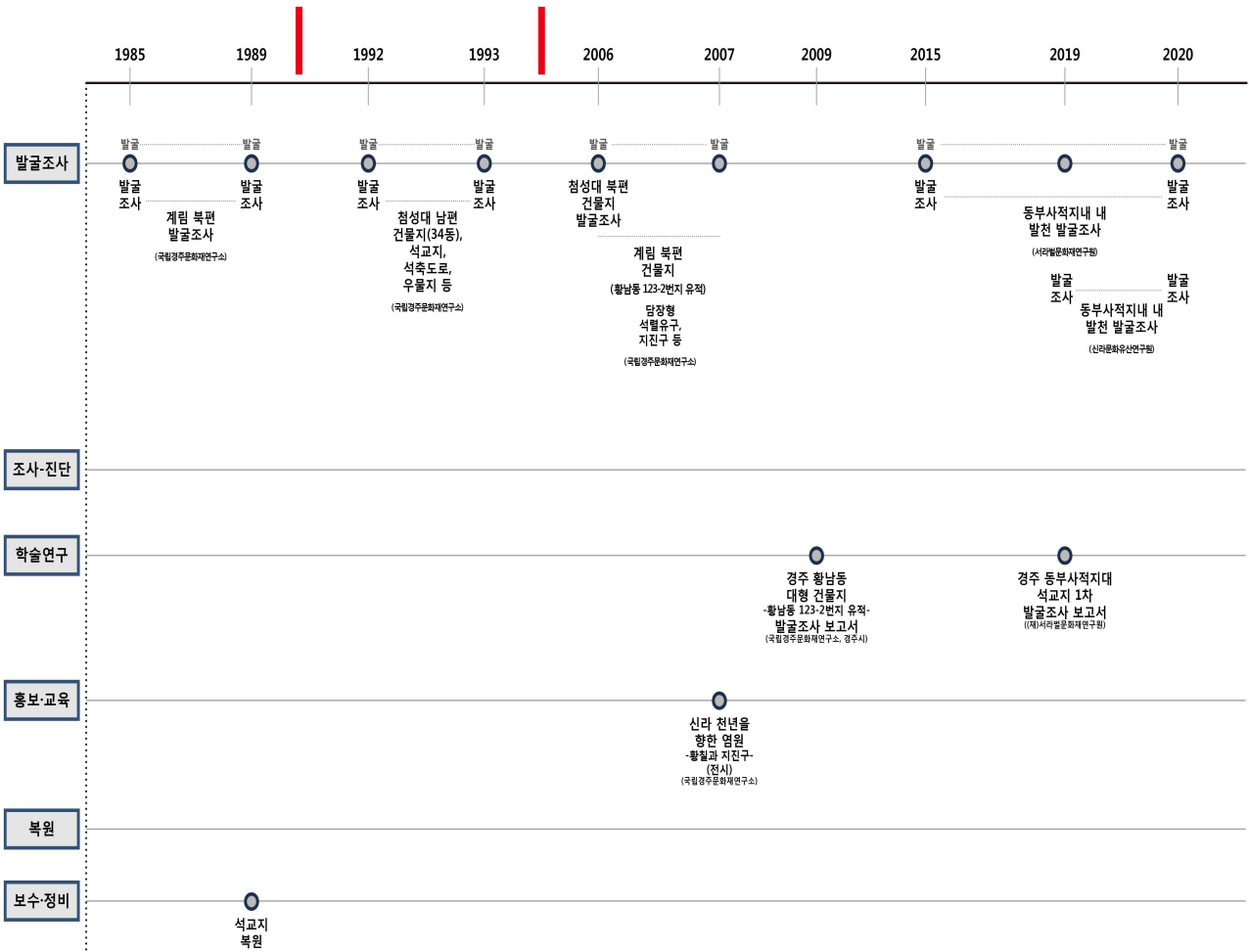
### (4) 활용에 대한 평가

- 경주 쪽샘유적은 현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시굴조사가 이루어진 후 고분 봉분 복원 및 정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굴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잔디식재와 관람객 탐방로가 설치되었고 일부에는 화장실 시설을 갖추었음
- 44호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쪽샘유적발굴관>을 통해서 조사 고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유적 전체에 관한 내용보다는 선별된 내용으로 한계가 있음. 그러나 경주지역 최초로 한정적으

로 공개하던 발굴조사 현장을 일반에게 상설 공개하여 관람객에게 발굴조사 경과에 따라 실시간 변화하는 고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경주 쪽샘유적에 대한 활용은 현재 분포조사 중인 유적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유적 전체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므로 향후 검토가 필요함
- 현재 분포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한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미조사된 지역 일부가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9) 경주 동부사적지대



- 지정번호: 사적 제161호
- 소재지: 경북 경주시 황남동 104-1번지
- 지정면적: 128,429㎡
- 관리단체: 경주시

- 경주 동부사적지대는 신라의 여러 사적이 모여있는 곳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의 단위로 정하였음. 동서는 동궁과 월지부터 교동까지, 남북은 월성 남쪽의 남천에서 고분공원 앞 침성로가 있는 곳까지가 동부사적지대에 해당함

- 월성, 동궁과 월지, 첨성대, 계림 등이 각각 하나의 사적으로 지정되어있고, 내물왕릉 등 수십 기에 달하는 신라 무덤이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음. 이들 유적 사이에도 많은 유적과 유물이 계속 출토되고 있음. 따라서 신라 도성의 중심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적지를 연결하여 확대 지정한 것임

###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동부사적지대는 경주 월성 북쪽 일원에 위치한 유적들로 첨성대, 발천, 발천 내 석교지, 대형 건물지, 계림 북편 고분군 등을 아우르며, 경주 월성에 부속된 건축물 군으로 추정됨
- 동부사적지대 발굴조사는 경주 월성 북쪽에 위치한 발천과 그 주변 일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 1985년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서 첨성대 주변을 발굴조사한 결과, 통일신라시대 건물지와 관련된 적심과 대호 매납 시설 3기가 확인되었음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1988~1989년까지 계림 북편 건물지 발굴조사, 1992~1993년까지 첨성대 남편 건물지 발굴조사, 1994~1995년까지 월성 북편 건물지 발굴조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발천 호안 석축과 석교지가 확인되어 복원되었음
- 2017~2020년까지 서라벌문화재연구원의 동부사적지대 석교지 복원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시기에 따라 발천과 월성해자가 변화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두 유적이 서로 연관된 모습으로 변화했다고 여겨짐. 2019~2020년까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동부사적지대 석교지 복원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에서 현재 복원된 석교지 동쪽에서 새로운 석교의 남북교대와 석교 부재가 확인되었음
- 동부사적지대에서 월성 외곽에 위치한 관청 건물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군이 확인되어 월성 범위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나 건물지 이외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와 계림, 계림 주변 고분군에 관한 연구는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된 모습임
- 최근 발천 주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당시 월성의 확장과 함께 월지의 축조 그리고 동궁 건축 등이 연이어 이루어지는 동시에 발천 내 석축수로의 건설과 발천 주변 일대에 대한 성토작업과 대지조성 그리고 건물 축조가 같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짐
- 동부사적지대의 북쪽 경계부분과 서쪽에 위치한 적석목곽묘와 석실묘 등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더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동부사적지대 내 위치한 여러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주로 월성 북쪽에 위치한 공간 내 유적 성격과 기능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임
- 첨성대 주변에 다른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첨성대 북쪽에서 월성 북고분군에 속하는 적석목곽묘들이 현 도로를 경계로 조사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동부사적지대의 성격은 월성에 부속된 관청 등이 위치하였던 공간으로 볼 수 있음



□ 추후 월성 및 월성 해자에 대한 발굴조사 성과에 따라서 동부사적지대 내 유적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로는 황남동 일대에서 조사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복원 · 정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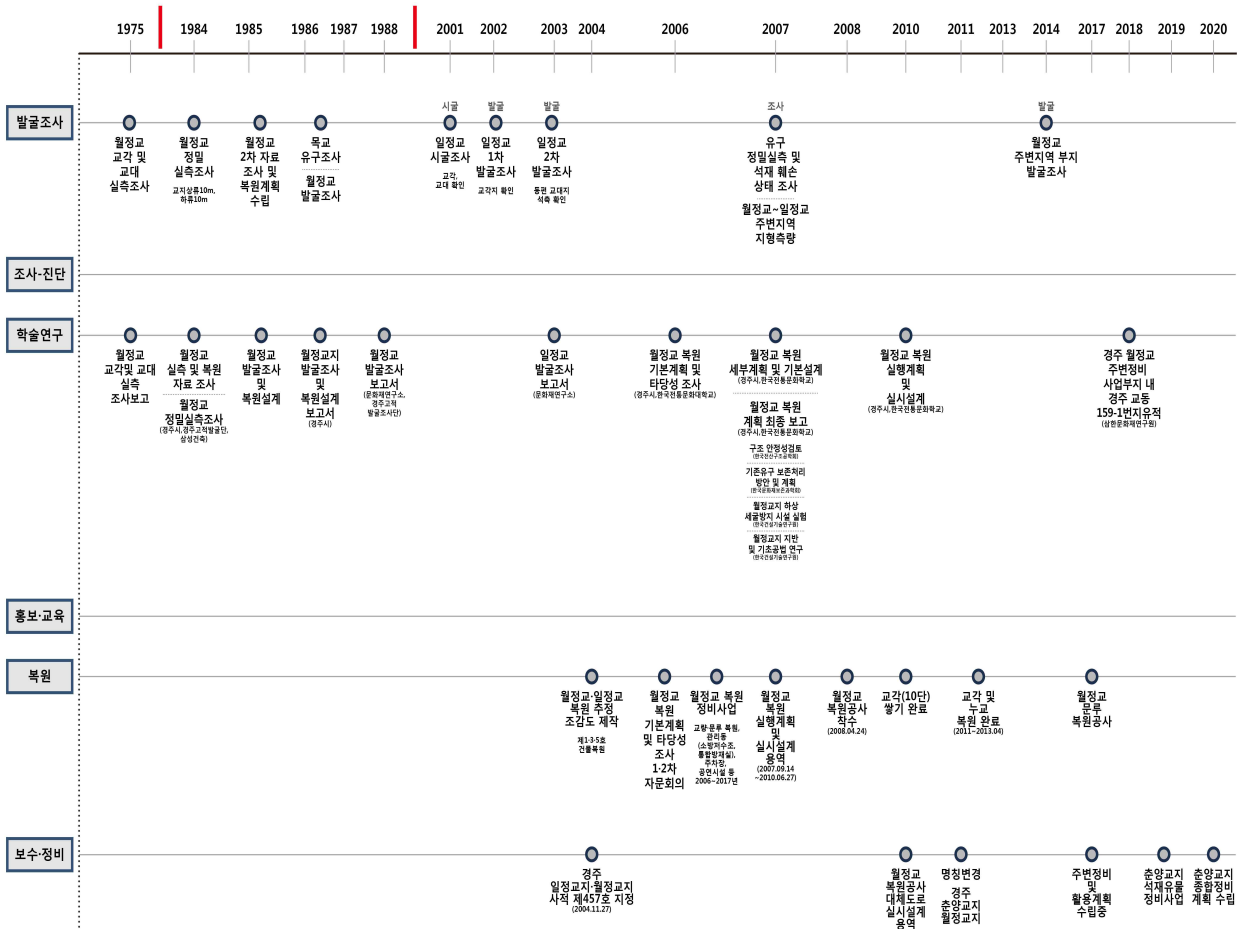
□ 경주 동부사적지대 내 주요 유적에 대한 접근성과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유적을 설명해주는 안내판과 보행로가 정비되어서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4) 활용에 대한 평가

□ 동부사적지대는 시내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에 여러 유적이 존재하여 관람객의 방문과 접근이 많음. 특히 월성과 교촌마을 내 경주향교, 계림 등과 월성 남쪽에 위치한 복원된 월정교는 월성을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 탐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비단벌레차 운행을 통해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부사적지대 내 마련된 월성 영상홍보관과 주변 유적을 이어주면서 유적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

10) 경주 준양교지와 월정교지



- 지정번호: 사적 제457호
- 소재지: 경북 경주시 인왕동 921-1번지 외, 교동 274 등
- 지정면적: 195,112㎡
- 관리단체: 경주시

- 경주 월정교와 춘양교는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의 서편과 교촌 한옥마을 남편의 강바닥에 그 터가 남아있으며, 기록에 따르면 『삼국사기』 경덕왕 19년(760)조에 “궁의 남쪽 문천에 ‘월정과 춘양’ 이라는 두 다리를 놓았다.” 라고 전함
- 월정교지는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리의 형태 및 구조에 대한 고증연구를 거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교각 및 누교와 다리 양쪽에 문루를 갖춘 모습으로 복원하였음
- 춘양교지와 월정교지는 통일신라시대 교량의 구조와 축조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고고학 자료로서, 당시에는 문천으로 단절된 월성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삼성건축사사무소에서 월정교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1984.12.11.~1985.1.31.까지 교각을 중심으로 한 20m 범위의 하상에 산재한 석재들을 조사하였음. 문화재관리국은 범위를 넓혀 더 세밀하게 조사한 후에야 복원설계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여, 현장조사 작업이 확대추진되었음
- 2차 조사는 월정교 교각 중심으로부터 상류 20m, 하류 60m 범위까지 발굴조사 하였고, 하류 60m에서 300m 범위까지 지표조사를 하였음. 조사결과 발견된 석재 중 아치석으로 판명되는 석재가 발견되지 않아 월정교의 교각 형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솟이 발견된 점으로 볼 때 교각은 석재로 하고 상부구조는 목재로 추정하였음
- 월정교지에서는 4개의 교각과 남북 양쪽 교대를 확인하였고, 4호 교각과 남측 교대 사이의 하상에서 하상 시설물이 확인되었음. 노출된 유구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 경주고적발굴조사단에서 갈수기인 1986.11.20.~1987.6.30.까지 발굴조사를 하였음. 발굴 조사결과 삼성건축사사무소에서 조사한 석재 외에도 다수의 석재가 확인되었으며, 그 내용이 추가로 보고되었음. 출토유물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목조 유구 남측 교대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 중 출토된 것으로 목조 유구와는 무관하고 석조 교대지와 관련되었음
- 출토된 철제 쇠못과 은장(隱藏)은 석재 연결에 사용된 것으로 석교의 결구 모습을 알려주며, 목재 연합(椽檻)을 통해 당시 월정교 처마에 기와를 사용했음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월정교의 모습은 교각 상면에 누각(樓閣) 건물 형태로 된 누교(樓橋)였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석교지 아래쪽에서 확인된 목조 교각 기초부의 형태가 석조 교각 기초부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점으로 볼 때, 원래 목교가 있다가 이후 석교로 교체되었음이 확인됨
- 춘양교에 대한 조사는 경주시가 남천에 오수관 매설을 계획함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2001년 1~4월까지 시굴조사를 한 후, 2002년 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발굴조사를 하였음

- 조사결과 춘양교지에서는 3개의 교각이 사용되었는데 교각과 교각의 사이 거리는 11m로 월정교와 춘양교 모두 동일한 모습임. 교대는 일부만 확인되지만 서편 교대에서 출토된 귀틀형 석재 2매가 교대 석축 상부에서 노출된 점으로 볼 때, 교대지와 교량 상판을 연결하는 방법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방법은 국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중국 절강성 태원시 영경교, 동양교에서 확인되고 있음
- 출토유물 중 철제 은장의 형태는 일부 차이는 있지만 월정교 출토품과 유사한 모습이며, 석주 위에 사자상을 올려놓는 모습 등은 동일하였음
- 동편 교대지 날개벽 석축 앞에서 확인된 석축열은 제방으로 추정되며, 함께 확인된 목주열에 대한 AMS 연대 측정결과 기원후 720~780년으로 춘양교의 건립 시기인 신라 경덕왕 19년(760)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음
- 고려시대 김극기가 자신의 시에서 월정교의 형태를 홍예교로 표현하였는데, 발굴조사된 자료로 볼 때 홍예를 구성하는 석재가 확인되지 않는 점은 교대의 형태가 홍예가 아닐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되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신라 경덕왕 19년에 두 다리를 함께 건설했다는 기록내용은 발굴조사된 교각·교대의 형태와 크기, 사용된 은장의 유사함 등으로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월정교와 춘양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초기 조사가 이루어진 월정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춘양교가 발굴되면서 이를 비교한 연구가 나타났음
- 월정교와 춘양교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월정교 복원과 관련하여 확인된 구조, 석재, 철제은장 등과 같은 유물을 통해서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자상의 의미나 주변과의 비교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금까지는 두 교각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향후 교각과 연결된 도로나 주변 신라왕경 안에서의 공간적 위치, 통행로 문제 등과 같이 전체적인 모습을 아우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3) 복원·정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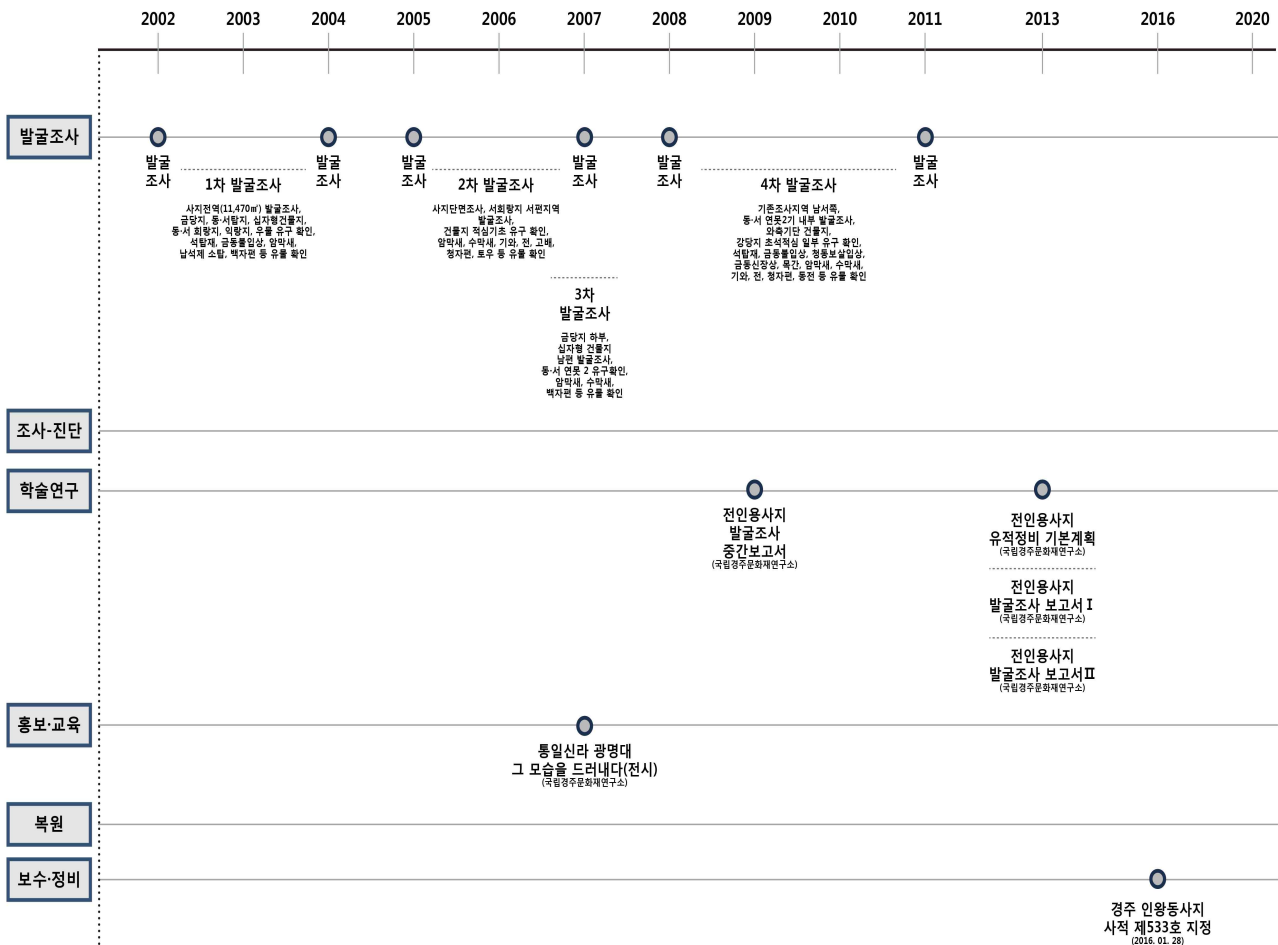
- 월정교는 현재 복원되어 2019년부터 일반에게 공개가 되고 있음. 교각 주변으로는 관람객을 위한 통행로와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월성과 남천 남쪽을 연결하는 월정교의 통행로를 따라서 교촌마을과 경주향교, 동부사적지대와 경주향교를 연결하는 관람로가 이어지고 있음
- 월정교는 통행 이외에 문화, 전시, 공연을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춘양교는 발굴조사 후 주변에 석재보관장소와 탐방로 정비 등이 이뤄졌음
- 현재 월정교는 복원되어 있으나 춘양교는 아직 발굴 조사된 이후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음. 이

에 대한 복원방안을 마련하여 통일신라시대 두 다리를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그리고 관람객들이 유적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4) 활용에 대한 평가

- 경주 월정교는 복원 · 정비된 이후 경주시의 대표적인 신라문화유산으로 인식됨에 따라 현재 주 · 야간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며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월정교 북편인 교촌마을 일대가 정비되어 문화체험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음
- 이와 달리, 춘향교는 복원 ·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문천 주변 일대에 대한 정비만 이루어졌음. 유적을 볼 수 있는 관람 데크나 안내판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 관람객의 접근에 제한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11) 경주 인왕동 사지



- 지정번호: 사적 제533호
- 지정면적: 16필지 35,282㎡

- 소재지: 경북 경주시 인왕동 342
- 관리단체: 경주시

- 경주 인왕동 사지는 신라의 전형적인 쌍탑식 가람배치(중문·양탑·금당·강당·회랑)를 기본구조로 하면서 ‘아(亞)’ 자형 건물지 등 독특한 유구가 확인되었음
- 통일신라시대 전형적인 석탑 양식인 쌍탑에 모두 팔부중이 조각되어 있고 토·자기류, 전돌류, 목간, 금속유물, 지진구 등의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신라 사찰 연구 자료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2002~2011년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인왕동 사지 발굴조사를 하였음. 사역의 11,470㎡를 시굴조사 후 발굴조사로 전환하였으며, 남서쪽 농지 일부 부지에 대한 추가조사도 이루어졌음. 조사 후 사역의 범위가 남쪽으로 더 연장됨을 확인하였지만, 추가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발굴조사는 모두 4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3차 발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발굴조사 중간보고서가 2009년에 발간되었음
- 사찰과 관련된 유구로는 금당지, 동·서삼층석탑지, 십자형 건물지 등과 서회랑지, 동·서 연못과 우물 등이 있음. 발굴조사 결과 인왕동 사지가 만들어지기 이전 시기인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이 중복된 모습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생활유적이 존재하였으나 이후 사찰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음
- 특히 서회랑의 중심축과 인왕동 사지 내 사찰건물의 중심축을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 건물지의 조성 시기가 다름이 확인되어서 당시 건물의 변화 모습을 알 수 있음
- 서삼층석탑지 주변에서는 매납된 유개호 4점이 확인되었는데, 탑 신앙과 관련된 매납 유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 다른 지역 사찰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보고되었음
- 10호 우물에서 출토된 목간에는 <1면-大龍王中白主民渙次心阿多乎去亦>, <2면-(名)者所貴公歲□金□公歲□五>, <3면-是二人者歲■中人亦在如契□□□右□>명이 확인되었음
- 동삼층석탑지에서 확인된 석탑 부재 중 상층 기단 면석에는 중앙에 탕주를 두고 양쪽 면에 각각 팔부중상을 고부조로 양각했는데, 왼쪽 상은 가루라, 오른쪽 상은 용으로 추정됨. 조성 시기는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로 추정됨
- 사역 공간에 대한 발굴조사는 완료되었지만 사역의 남쪽에 위치한 동·서연못의 남쪽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중문지와 사찰로 출입하기 위한 당시 도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현 사역 동쪽을 지나가는 남북도로로 볼 때, 사역 남쪽에도 도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추가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찰로 변화하기 전 단계에 존재했던 가옥들에 대한 구조 및 공간영역에 대한 추가조사도 필요함. 이러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월성 남쪽에 위치한 인왕동 사지의 성격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판단됨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인왕동 사지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지만, 유적과 출토 유물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사지 내 건물지, 동·서 삼층석탑과 기단 면석으로 사용된 팔부중상에 대한 연구, 우물 출토 목간 등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이외에도 출토유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음
- 다만 발굴조사 중 출토된 삼층석탑의 팔부중상이 새겨진 면석을 통해서 새롭게 인왕동 사지의 창건 및 석탑 건립 시기에 대한 검토가 가능해졌음
- 따라서 사찰의 건립과 변화과정 속에서 주변 유적 내 팔부중상이 배치된 석탑이 조성된 다른 사찰들과의 비교연구를 심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인왕동 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한 비교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자료조사 및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인왕동 사지에서 출토된 기와를 비롯한 유물들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형식변화가 확인되고 있음. 특히 기와 중 암·수막새의 경우에는 매우 독특한 사례이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임
-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밝혀진 광명대를 비롯한 여러 유물에 관한 연구 역시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임. 따라서 인왕동 사지의 유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토 유물들에 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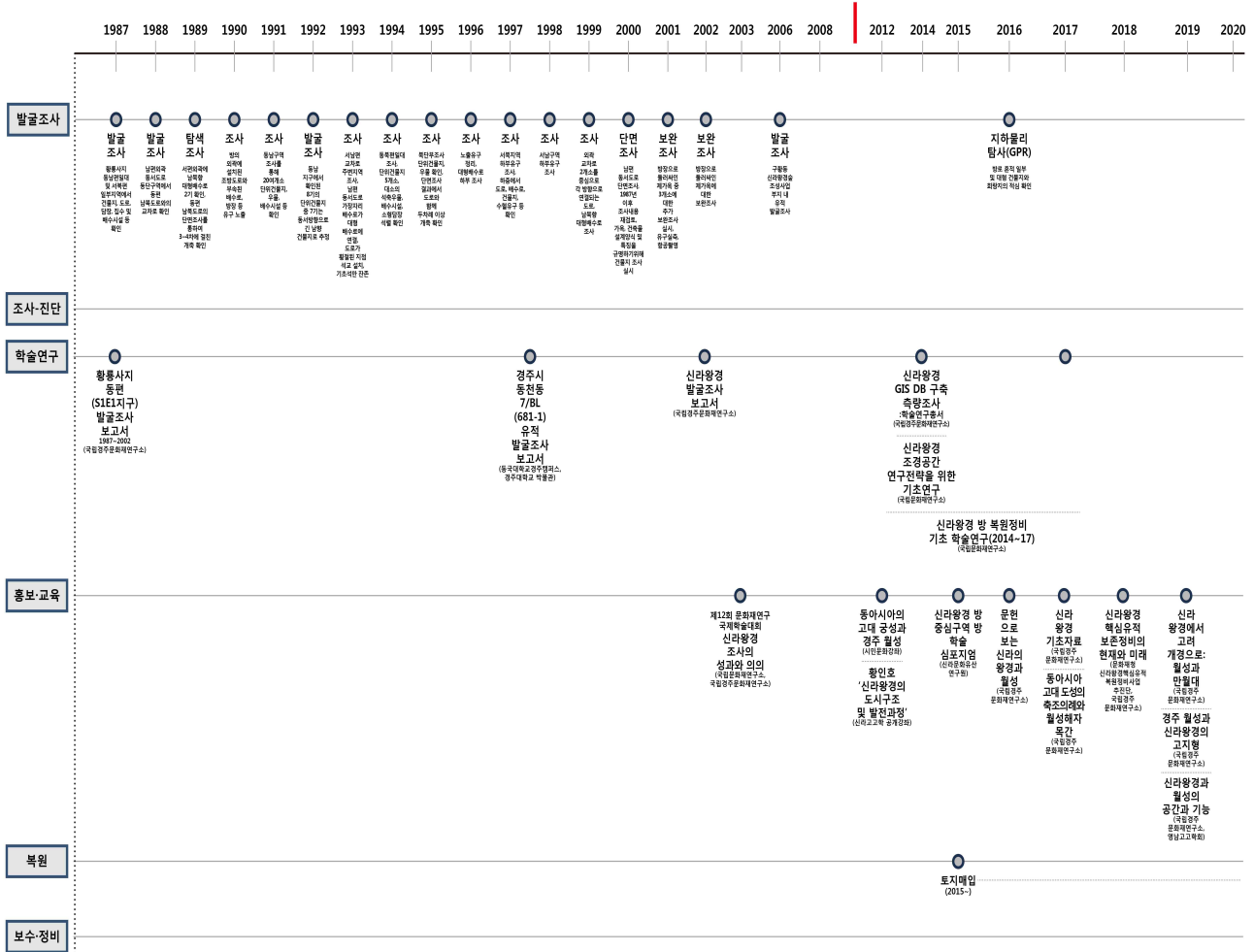
## (3) 복원 · 정비에 대한 평가

- 인왕동 사지의 동·서삼층석탑에 대한 복원 관련 기초연구가 이루어지고 복원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사역 내에 대한 정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역 내 복토 된 흙 위에는 야생화 등이 자라고 있음
- 인왕동 사지 내 중심 건물군과 동·서삼층석탑 등에 대한 복원·정비가 필요하며, 안내판을 설치하고 유적의 위치 등을 표시하여 관람객에게 유적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접한 월정교 유적 주변에 공용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지만 인왕동 사지 주변에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함

## (4) 활용에 대한 평가

- 인왕동 사지는 유적의 활용을 위한 복원·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또한 관람객이 유적을 관람할 수 있는 탐방로 등이 없을뿐더러 주변 일대에 편의시설도 없어 향후 활용대책이 필요함

## 12) 경주 신라왕경 방



□ 신라왕경 방의 범위는 현재 경주 동궁과 월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경주분지 내 북천·서천·남천으로 둘러싸인 개활지의 중앙에 입지하며, 동편으로는 황룡사지, 남편으로는 동해남부선 철로를 사이에 두고 동궁과 월지와 접경하고 있음. 동서 약 407m·남북 약 425m의 정방형 형태로 지형은 대체로 평활하며, 동북편이 조금 높고 남서편이 다소 낮음. 접경하는 도로와 철도 보다는 1~3m정도 낮음

□ 『삼국사기』 고려 인종 23년(1125) 및 『삼국유사』 고려 충렬왕 7년(1281) 기록에 의하면, 방리제에 의한 왕경 시가지계획이 있었다고 되어 있음

□ 『삼국유사』의 기록 가운데 1,360방과 360방으로 서로 상이한 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왕경 중심지역이 360방, 왕경 근교까지 포함한 지역이 1,360방이라는 논점이 있음. 문헌 기록에 의하면 직교가로망의 개설을 의미하는 방리제 성립 시기는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됨

###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신라왕경에 대한 초기 연구는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에 관한 연구보다는 지적도를 기반으로 한 복원작업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음

- 월성과 황룡사지 등을 포함한 경주분지 안에 대한 방리 구성안이 일제강점기부터 제시되었으며 이후 이에 대한 비판과 수정 등을 담은 신라 왕경 복원안이 제시되었음
- 신라왕경 방리에 대한 발굴조사는 황룡사지 남동쪽에 위치한 S1E1 지구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심과 외곽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졌음
- S1E1과 S0E1 유적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황룡사지 동남편에 위치한 신라왕경 S1E1은 동서도로의 중심축간 거리가 167.5m, 남북도로의 중심축간 거리가 172.5m이며, 사방으로 구획된 4개의 도로를 경계로 한 내부면적은 약 18,710㎡임. 방의 실제 규모는 사방 160m 내외로 방 안에는 모두 18동의 가옥이 확인되며, 통일신라~고려시대 중기까지 존속된 모습을 보여줌. S1E1 유적의 외곽에 ‘井’ 자형으로 설치된 도로 유구의 너비는 각각 다름
- 현재 경주 시내에서 발굴조사된 신라왕경 방리를 살펴보면 황룡사 창건과 함께 그 모습이 완비된 것으로 보이며, 방리의 확장과정과 관련해서는 지대가 높은 지역이 먼저 이루어진 후, 형산강과 접한 낮은 지대까지 확대된 모습으로 볼 수 있음. 그 결과 방리와 방리의 간격과 자북을 기준으로 한 축선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됨
- 도심 구조는 방리가 구획된 이후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발굴조사를 통해서 방 내부의 구조나 특징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음. 방 내부에 마련된 가옥은 각각 접한 도로 방향으로 문을 냈는데, 문 앞에 위치한 배수로를 건너기 위한 출입시설이 마련된 모습임. 방 내 중앙부에 위치한 가옥은 그 출입 방향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가옥과 가옥 사이에 마련된 소로를 통해서 출입했다고 보고 있음. 일부 가옥은 사찰로 그 성격이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후대의 어떤 사유로 인해 사찰로 그 기능이 바뀌었다고 추정됨
- 1980년대 황룡사지 동편에 위치한 신라왕경 S1E1지구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동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가 간행되면서 방의 규모와 도로와의 관계, 방 내부 공간의 이용과 가옥의 규모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경주 동천동 택지개발지구 7B/L과 국립경주박물관 남편 부지 등이 조사되면서 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후 방리 구조와 도로 그리고 신라왕경의 모습에 대하여 고찰한 여러 논고가 발표되었고, 신라왕경 내 공간구조가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조사된 자료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도시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음
-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왕경 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면서 신라왕경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왔는데, 그 결과 신라왕경의 방리가 한 시기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간 차이를 가지며 하나의 단위 공간별로 이루어졌음이 알려짐
- 신라왕경 내 건물지에 대한 조사결과 지역별로 유적의 중심시기가 다른 점이 확인되는데, 월성과 인접한 인왕동 일대는 5세기말~6세기, 황룡사지가 위치한 구황동 일대는 6세기 중반 이후, 서부동 일대는 7세기 후반, 동천동 일대는 7세기말~9세기, 황성동 일대는 8세기 후반 이후에 속하는 유적들이 주



로 확인되고 있어 방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된 모습을 보여줌

- 신라왕경 방리에 대한 조사는 황룡사지 주변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내와 동천동 일대를 개발하면서 단편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렇게 발굴조사된 유적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가 이루어져야 방리 규모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의 확인이 가능함. 또한 소규모 국비발굴조사 등으로 인해 발굴조사된 자료들의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함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신라 방리 연구는 후지시마 가이지로의 연구가 가장 독보적으로, 그가 설정한 방리의 모습은 현재 신라왕경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방 규모와 거의 일치하여, 일부 복원 내용에서 차이는 있지만 현재까지도 의의가 있음
- 1945년 이후 이루어진 신라왕경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공간구조의 복원과 관련된 쟁점에서 개개 방리의 공간과 규모 그리고 지역별로 다르게 구성된 방리 공간에 대한 해석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음
- 월성을 중심으로 한 주변 유적에 대한 성격을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신라왕경 SIE1지구에 대한 발굴조사, 황룡사와 분황사의 사역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북천 이남에 위치한 분황사-황룡사-동궁과 월지-월성을 남북으로 잇는 중추 지역에 해당하는 도심 구조의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었음
- 이상과 같이 신라왕경 방리에 대한 조사는 황룡사지 주변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내와 동천동 일대를 개발하면서 단편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조사된 유적들의 위치를 통합하여 방리구조를 복원한다면 당시 신라왕경 방에 대한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3) 복원·정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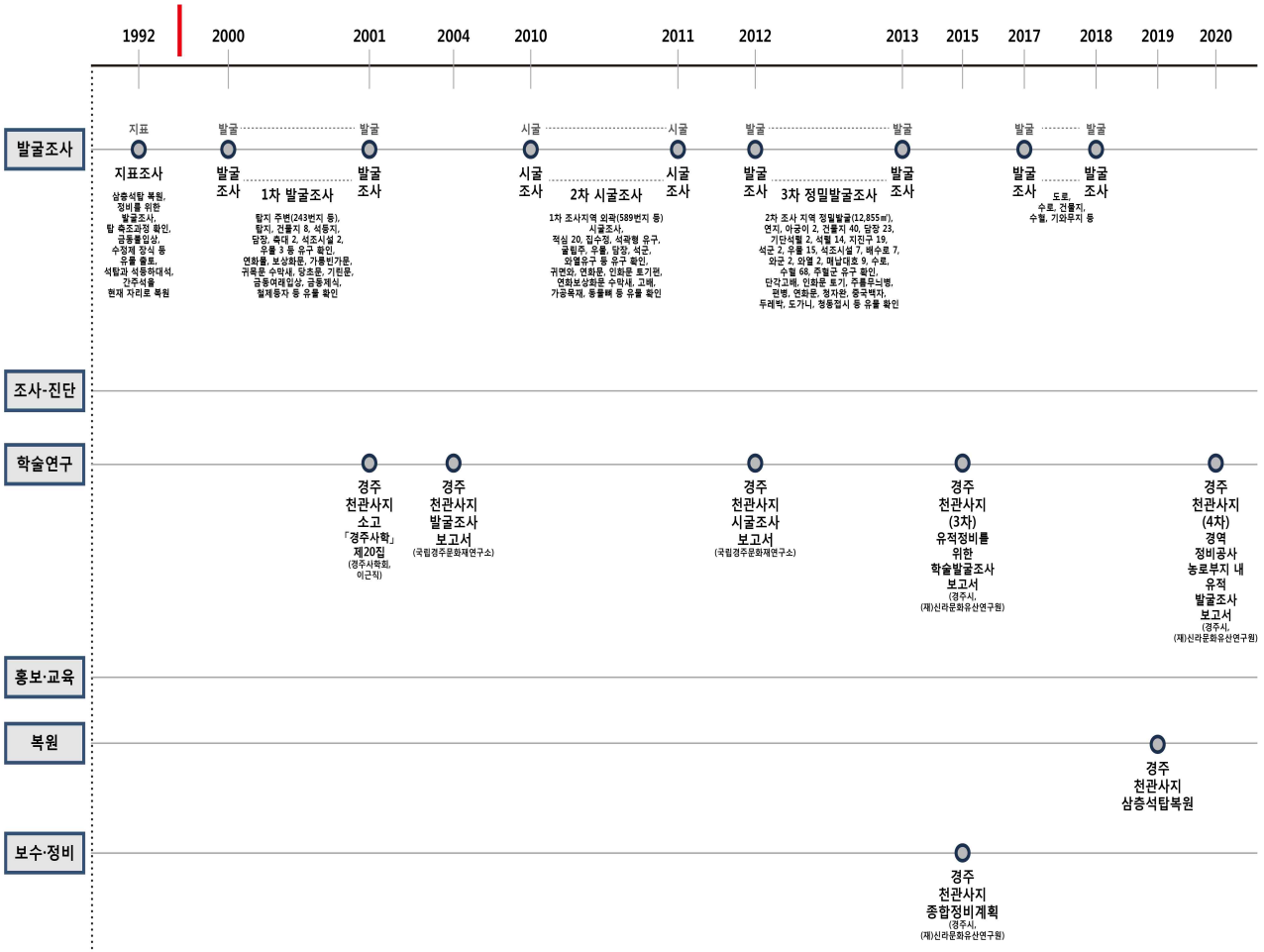
- 경주 시내 및 시외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통일신라시대 당시 조성된 신라 왕경 방의 모습이 확인되었음. 규모가 시기와 지역 그리고 입지조건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사방을 도로로 구획하고 방 안에 건물이 위치한 모습은 대동소이함
- 황룡사 남동쪽에 위치한 SIE1과 SOE1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후 유구의 복원·정비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으며, 황룡사와 함께 주변 환경을 정비하면서 녹지대로 조성한 상태임
- 관람객들에게 신라왕경 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녹지대로 정비된 유적 위에 당시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구획이나 안내문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4) 활용에 대한 평가

-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신라왕경 방과 관련된 유구는 대부분 조사 후 복토하여 보존시켰으며 동천동 등 일부 유적에서 조사된 담장석렬이나 흙벽돌 벽체 등을 부분적으로 이전 복원하거나, 전시하고 있음

□ 황룡사 남동쪽에 위치한 SIE1 유적의 경우 황룡사를 찾는 관람객들의 관람로 옆에 위치하지만, 신라 왕경 방의 존재를 알려주는 설명문이나 관람용 시설 등이 전혀 배치되지 않아 유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고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없음

### 13) 경주 천관사지



- 지정번호: 사적 제340호
- 소재지: 경북 경주시 교동 243번지
- 지정면적: 20,970㎡
- 관리단체: 경주시

□ 경주 천관사지는 도당산 서쪽 기슭 논 가운데에 있는 절터로서, 통일신라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측되며 김유신과 천관이라는 기생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음. 현재 탑이 복원되어 있음

####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천관사지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2000~2001년까지 발굴조사를 하였고, 이후 2010~2011년까지 이전 발굴조사지역의 외곽에 대한 시굴 조사를 하였음. 이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2012~2013년까지 3차 발굴조사를 하였고 2017~2018년까지 4차 발굴조사를 하였음

- 발굴조사 결과 사역의 중심시설과 그 외곽공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찰이 건립되기 이전 시기인 삼국시대 생활유적과 이후 통일신라시대의 사찰 그리고 부속시설로 추정되는 공방과 연못 등이 각각 확인되었음
- 사역의 중심공간은 서쪽에 마련된 석축 위에 위치한 중문과 중앙의 추정 금당지(건물지1)와 팔각 삼층석탑지 그리고 금당 북쪽에 위치한 추정 강당(건물지2)으로 구성되었으며, 북쪽 경계에 위치한 건물은 3동의 건물이(건물지3~5) 중복된 모습임
- 금당과 팔각삼층석탑이 함께 동서 방향으로 나란하게 배치된 모습이며, 사역 북쪽에서 확인된 여러 건물은 사찰 외곽에 위치한 부속 건물들로 추정함. 사역 남쪽을 남서-북동향으로 지나가는 도로 방향으로 볼 때, 천관사의 사역은 부정형을 이루는 모습이며, 이는 도당산에서 내려오는 수로와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만든 것에서 기인함
- 한편 천관사 사역 바깥쪽에서 확인된 연못은 그 규모가 크고 사역 남동쪽에 치우쳐 부속된 연지로 보기는 어려움. 연못의 내부 출토유물은 6세기 후반을 상한 연대로 하며 연못이 매몰된 이후 상부에 축조된 건축물에서 출토된 유물이 9세기를 중심으로 한 점으로 볼 때, 연못의 사용 시기는 통일신라시대 초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8세기 중·후반경 천관사가 창건될 당시에는 이미 연못은 폐기되었다고 추정되며, 도로를 경계로 북쪽의 사역 공간과 남쪽의 사찰 부속 공방 또는 민영 공방이 영역을 달리하여 입지했다고 추정됨. 발굴조사단은 6~7세기대 연지와 청동 공방지, 8~10세기대 적심건물지와 담장, 우물, 배수로, 기단 석렬과 고려시대 매납 유물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도로와 수로에 의해서 공간이 구분된다고 보았음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천관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지만, 유적과 출토유물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사지 내 건물지, 팔각삼층석탑 등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천관사 유적의 특징을 반영하는 팔각 삼층석탑 이외에는 아직 뚜렷한 연구성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유적을 가로질러 도당산 방향으로 가는 도로 유구와 수로의 존재는 당시 신라왕경 외곽 지역 내 방리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향후 연구 성과가 기대됨

## (3) 복원·정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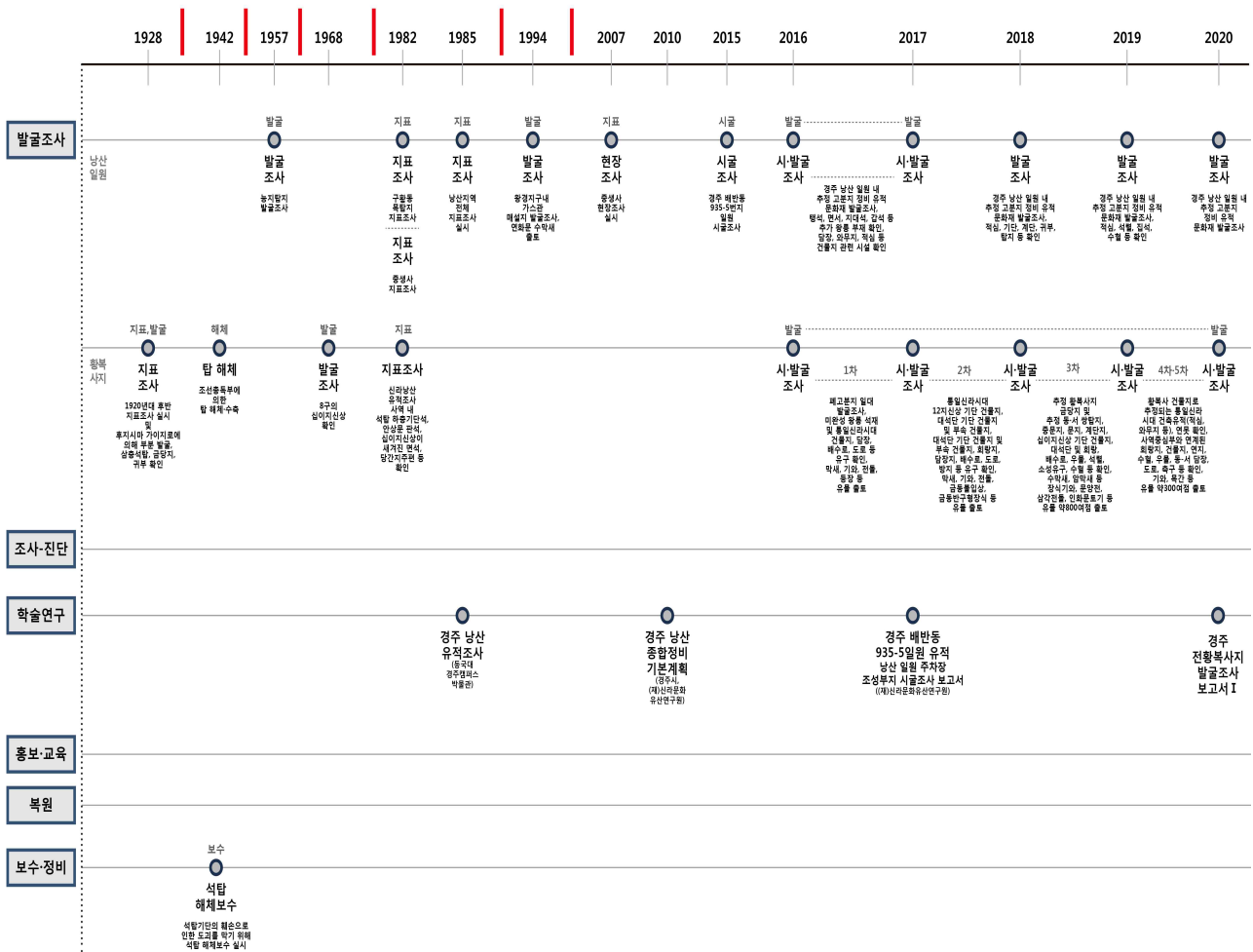
- 4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관사지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음. 경주시에서 수습된 팔각삼층석탑 부재를 이용하여 석탑을 복원하고, 사역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천관사지 사역 내 중심 건물군(건물지 1, 2 등)과 삼층석탑 등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위치 등을 표시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음

□ 천관사 사역 남쪽에서 확인된 도로 유구는 함께 확인된 수로와 같이 그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도로면을 따라서 만든 탐방로를 정비하여 천관사지 주변 일대의 방리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활용에 대한 평가

- 1919년 오가와 게이키치는 천관사지 삼층석탑에 대한 실측조사 후 1923년 석탑복원도를 제시하였음. 이후 2015년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복원도를 재작성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신라 석탑의 존재가 확인되었음. 석탑이 현지에 복원된 점은 신라석탑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1974년 천관사지 동편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대태각(大太角)>명 석편은 천관사와 천관녀 그리고 김유신과의 관련성을 알려주는 비석편으로 천관사지의 유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때, 함께 반영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경주 낭산 일원



■ 지정번호: 사적 제163호

■ 지정면적: 909,854㎡

■ 소재지: 경북 경주시 보문동 214-2번지

■ 관리단체: 경주시

- 경주 낭산은 누에고치처럼 남북으로 길게 누워 낮은 구릉을 이루고 있으며, 『삼국사기』 권3 실성이 사금조에는 ‘왕이 낭산에 상서로운 구름이 서린 것을 보고 신하들에게 신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노는 곳이니 당연 복을 주는 지역이다. 이제부터는 낭산의 나무 한 그루도 베지 말라’ 는 명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음
- 경주 낭산은 신라시대의 3사(三祠) 가운데 대사를 받들던 중악(中嶽)이자 서라벌의 진산(鎭山)으로 낭산에 분포한 유적은 남쪽 끝에 있는 사천왕사지(四天王寺址) 그리고 북동쪽에 위치한 황복사지(皇福寺址), 능선 서쪽 가운데에 위치한 능지탑(陵只塔), 남쪽 봉우리 아래의 선덕여왕릉 등이 있음. 이외에도 구황동 목탑지, 현 중생사(衆生寺)의 마애지장보살삼존상, 십일면관음보살입상 등 여러 불상이 위치함
- 황복사지는 현재 국보 제37호인 황복사지 삼층석탑 등 석재유물 몇 점만이 남아있으며, 절 이름으로 보아 창건이 왕실과 관계되는 것만 추정할 수 있을 뿐 창건자 및 창건 연대는 분명하지 않음. 황복사는 몇몇 기록을 통하여 7세기 중엽 무렵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의상(義湘)이 출가한 사찰로 54대 경명왕이 사망한 후 이곳에서 화장을 했다는 기록이 있음
- 삼층석탑은 효소왕 1년(692년)에 효소왕이 아버지인 신문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이후 효소왕의 뒤를 이은 성덕왕이 즉위한 지 5년만인 706년에 사리와 불상 등을 다시 탑 안에 넣어 앞의 두 왕의 명복을 빌고, 왕실의 번영과 태평성대를 기원하였음

###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낭산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지표조사이며 일부 유적에 대해서만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음. 지표조사 결과는 조선총독부에서 1917년 『조선고적도보』 5권에 <낭산 석조보살상>을 수록하였고, 이후 사이토 다다시가 1939년 「第七 慶州に於ける新羅一統時代遺構址の調査」에서 1937년 조사한 능지탑과 십이지신상이 부조된 면석들에 대해 소개하였음. 이 외에도 사천왕사지, 황복사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천왕사지 서탑지는 일부가 발굴조사 되었음
- 1969~1975년까지 삼산오악학술조사단은 능지탑을 발굴조사한 후 1979에 현재 모습으로 복원하였음. 1985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은 『신라낭산유적조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유적에 대하여 현황조사 및 실측조사를 하였음
- 황복사지는 경주 낭산 동쪽에 위치하며 일제강점기 때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명문와 등을 통해서 사명이 추정되고 있음. 1926년 노세 우시쵸[能勢丑三]는 황복사 금당지 북동쪽에 위치한 십이지신상 면석을 조사하였으며 사진 자료를 통해서 조사내용이 확인됨. 1928년 후지시마 가이지로는 사역의 측량조사와 함께 금당 복원과 당탑배치 복원을 시도하였는데, 금당 앞쪽에 귀부가 있고, 삼층석탑은 중앙에서 동쪽에 위치한 높은 지대에 세워졌다고 보았음
- 1937년 낭산 동쪽에서 <황복(皇福)>(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왕복(王福)>(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이라는 명문이 수습됨. 1942년 5월 조선총독부에서 구황동 삼층석탑과 대곡리 삼층석탑에 대한 해체

수리작업을 결정하였음. 스기야마 노부조[杉山信三]가 대곡리 삼층석탑을 6월 중순 경에 먼저 수리한 후, 교가 고우지[吉川孝次]가 6월 24일에 구황동 삼층석탑 해체 수리에 착수하여 6월 25일 제2층 옥개석 상부에서 사리구를 발견하였음. 사리공은 2층 옥개석 상부에 조성되어 있었음

-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황복사지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지표조사와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1942년 사리구와 발원문이 발견되면서 사찰의 성격과 신라왕실과의 관계가 주목받았음
- 1968년 신라 삼산오악학술조사단에서 절터의 일부를 발굴조사하였지만, 내용이 보고되지는 않았음. 다만 십이지지상 면석 8구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며, 사역의 중심부를 동쪽에서 찾고 있음. 2007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석조문화재 기록보존을 위해 석탑조사 사업을 하면서 구황동 삼층석탑을 조사하였음
- 2016~2017년까지 성림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황복사지 동편 고분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탕주석과 면석, 지대석과 갑석 등의 신라왕릉에 사용된 석부재가 수습되었음. 조사자는 능지탑에 위치한 십이지신상이 이 고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후 2017~2020년까지 황복사지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통일신라시대의 금당지와 부속 건물지, 회랑지, 연못 등이 조사되었음
- 황복사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구와 사리함의 명문 내용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서 사역 내 건물지와 주요 유구에 관한 내용도 주목받고 있음. 현재 관련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아 연구에 한계가 있지만 사역 규모와 대형 석축의 존재가 확인되고 연못, 도로, 사찰이 아닌 왕실과 관련된 건물지 등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연구가 기대됨. 그리고 연못에서 출토된 목간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함
- 1994년 4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낭산 서쪽을 지나가는 산업 도로변 가스관 매설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한 결과 <正万之寺>명 명문수막새가 출토되었음. 이후 2018년 화랑문화재연구원에서 경주~울산 간 산업도로 확장공사 예정부지에 대해 발굴조사를 하였음. 조사결과 명문수막새가 출토된 지점은 방리 안에 위치하며 사찰 규모를 알려준다고 보았음
- 이상과 같은 발굴조사 내용으로 볼 때, 삼국시대 말~통일신라시대 초 사이에 낭산 일대에는 왕실의 후원을 받는 여러 사찰이 건립되었고 이는 낭산이 가진 성격이 왕실과 관련된 신성한 장소로 여겨진 것과 관련되어있음
- 또한 낭산 주변 일대에는 현재 확인된 사찰 외에도 별개의 사찰이 더 확인될 가능성이 크며, 발굴조사된 사찰의 경우에도 사역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음. 발굴 조사된 유적들의 대부분이 사찰로 통일신라시대 초기 등장하는 쌍탑식 가람의 변화 모습을 보여주는 점과 귀부가 확인된 점이 특징적임
- 한편 낭산 서쪽 기슭에 있던 석조관음보살입상을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관한 것은 낭산 일대에 있는 사찰과의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그 터를 중심으로 폐사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함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낭산 일원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낭산은 성역으로 유지되었고 불교가 들어오면서 전불시대의 일곱가람터 중 하나로 인식되었음
- 황복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2020년까지 이루어지면서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아 사역 내 공간배치나 개별 건축물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임. 황복사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삼층석탑과 출토 사리구 및 사리함 내 발원문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
- 최근 발굴조사 성과로 볼 때, 황복사는 왕실사찰로 가구식 기단으로 구분된 사역을 갖춘 모습으로 확인되며, 사역 주변에 크고 작은 연못이 위치함. 사역과 주변 건물지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와들은 이곳이 사천왕사에 못지않았음을 알려주며, 추정 중문지 앞에 위치한 동서 귀부는 그 모습이 동일함. 하지만 귀부를 받치는 비각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은 두 사찰 사이에 선후 관계가 존재함을 알려준다고 판단됨
- 황복사지 동편에 위치한 추정 고분이 발굴조사 결과 미완성된 왕릉을 위한 석재를 모아놓은 것으로 확인된 점은 중요하며, 현 황복사지 주변으로 석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옮겨진 것인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함. 향후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된다면 개별 건물들과 출토유물 등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 낭산 일대에 소재한 사찰에 대해 개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역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천왕사지, 황복사지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낭산에 소재한 불상과 석탑, 목탑에 대한 연구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능지탑의 성격과 사방불에 대한 보완조사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음. 한편 낭산에서 외부(국립경주박물관)로 반출된 석불에 대해서는 원 봉안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유적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3) 복원·정비에 대한 평가

- 낭산 일원은 원형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동해남부선에 의해 사천왕사 경역이 훼손된 것 이외에는 당시 원지형과 모습을 잘 갖추고 있음. 선덕여왕릉의 경우에는 정비된 모습이지만 봉분 주변 일대가 삭평되고 있으므로 당시 원 지면을 확인한 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황복사지는 일부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복원·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지역은 성토된 채로 남아있음
- 사역 공간은 관람객의 출입이 제한되었으며, 현 삼층석탑 주변 일대는 출입 가능함. 관람객을 위한 관람 동선의 정비가 필요하며, 주요 건물지와 유구 등에 대한 안내판 설치도 필요함
- 편의시설 역시 주변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갖추어져 있지만, 시내 유적들보다는 시설이 부족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임. 관람객들을 위한 탐방로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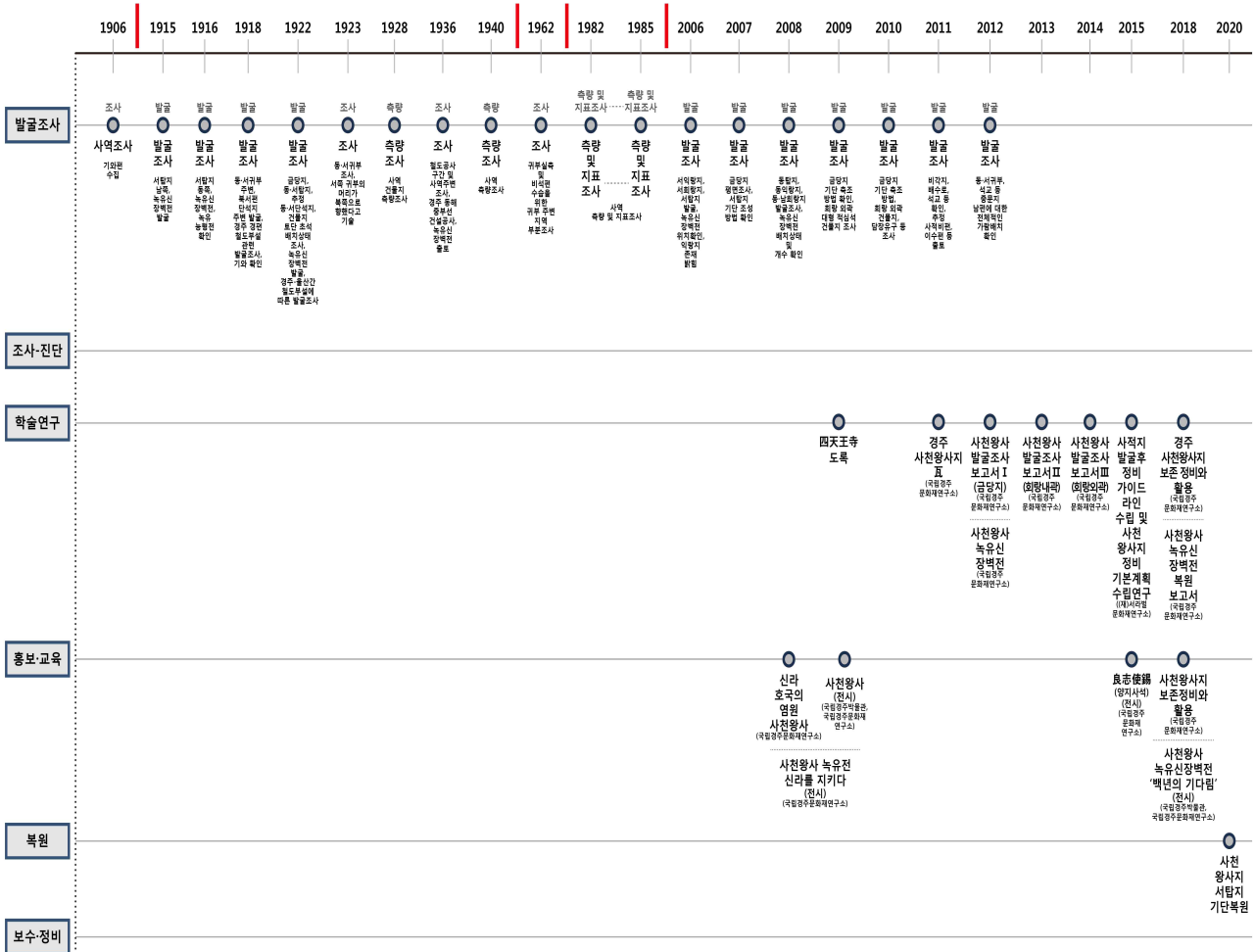
### (4) 활용에 대한 평가

- 2010년 경주시에 의해 경주 낭산에 대한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세워졌지만, 현재 진행상태는 미비함.

낭산과 주변 유적을 연결하는 관람객 탐방로 정비와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특히 낭산의 경우 능선을 따라서 주요 등반로가 있지만, 정식 탐방로로 정비된 것이 아니므로 탐방로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낭산 내부는 편의시설을 구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낭산으로 들어오는 길목 주변에 주차장, 화장실 등의 관람객 편의시설이 필요함
- 황복사지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사역 내 공간구조와 많은 출토유물 등은 통일신라 초기의 사찰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유적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복원 · 정비가 진행 중이므로 활용은 미진한 상태임. 2017년부터 이루어진 발굴조사가 현재까지 계속되면서 유적에 대한 복원 · 정비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사역 전체에 대한 관람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15) 경주 사천왕사지



- 지정번호: 사적 제8호
- 소재지: 경북 경주시 배반동 935-2번지
- 지정면적: 15,724㎡
- 관리단체: 경주시

□ 경주 사천왕사지는 경주 낭산 기슭에 있는 신라의 절터로 신문왕릉 옆, 선덕여왕릉 아래에 있음. 신



라 문무왕 14년(674)에 당나라는 신라가 그들의 도독부 군사를 공격한다는 핑계로 50만 대병을 일으켜 신라를 공격하였으며, 신라는 부처님의 힘으로 그들을 퇴치하기 위해 이 절을 창건하였음

- 문무왕이 명랑법사에게 적을 막을 계책을 구하자, 신유림에 사천왕사를 짓고 부처의 힘을 빌리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의 침략으로 절을 완성할 시간이 없게 되자, 비단과 풀로 절의 모습을 갖춘 뒤 명승 12인과 더불어 밀교의 비법인 문두루비법을 행하였음.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풍량이 크게 일어 당나라 배가 모두 가라앉았고, 그 후 5년 만에 절을 완성(679)하여 사천왕사라 하였음
- 사천왕사가 소재한 신유림은 칠처가람지의 하나로서 선덕여왕이 그곳을 도리천이 있는 곳이라 하여 신성시하였음. 『삼국유사』에 의하면 선덕여왕이 죽으면서 도리천에 묻어줄 것을 유언하며 그곳이 낭산 남쪽이라 하였는데 선덕여왕이 죽은 지 30년 만에 왕릉 아래 사천왕사를 짓게 되자, 사람들은 여왕의 예언이 맞았음을 알게 되었음
- 절터에는 머리 부분이 없어진 귀부 2기와 비신, 그리고 당간지주 1기가 남아있으며, 특히 절 동쪽에 남아있는 귀부는 사실적인 표현수법과 등에 새겨진 아름다운 조각으로 신라시대의 뛰어난 작품임을 보여주고 있음
-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가장 먼저 지은 사천왕사는 전형적인 쌍탑식 가람배치로 신라 호국불교의 성격과 신라인들의 불교관·우주관을 잘 보여주고 있음. 경덕왕 때 향가인 ‘도솔가’, ‘제망매가’를 지은 고승 월명이 머물렀던 곳으로도 유명함

### (1) 발굴조사에 대한 평가

- 사천왕사지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과 1916년에 모로가 히데오가 서탑지를 조사하고 녹유신장벽전, 녹유능형전 등을 수습하였음. 당시 서탑지 중앙에는 복잡한 당초문이 있는 대형전을 깔고 주변 테두리에 녹유능형전을 일렬로 깔은 모습이 확인되었음. 1922년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는 조사를 통해 금당지, 탑지 등에 대한 유구 실측과 토단 위에 있는 초석, 동탑지에서 확인된 노반석을 실측하였음
- 1928년 후지시마 가이지로는 건축조사를 통해 금당지 북쪽에 있는 탑이라 불리던 건물지를 좌경루, 우경루로 보면서 전체적인 사천왕사의 가람배치를 추정하여 복원도를 작성하고 당척이 사용된 것으로 보았음. 1940년 요네다 미요지[米田美代治]는 사역 내부공간을 측량하고 사천왕사와 일본 나라 약사사와 비교하였음
-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오사카시의 사천왕사와 비교하여, 금당을 중심으로 4개의 건물이 위치한 특징적인 구조로 가람배치를 이해하였고, 그 결과 동해남부선이 사역 내 강당지를 가로지르는 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역 내 주요 건물이 보존된 것으로 추정하였음
- 또한 사역 안에서 출토된 녹유신장벽전을 비롯한 각종 녹유전을 수집하고 보고하였지만, 출토유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건축연구를 통해서 금당과 목탑 그리고 사역 내 공간구성이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강조되었음

- 이후 1961년 경주의 한 민가(동부리 1반 168번지)에서 사천왕사 서쪽 귀부에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무왕릉비의 하단부가 재발견 되었으며, 이후 동 지역에서 다른 비석이 발견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황수영은 귀부 중 문무왕릉비를 받친 귀부의 머리 방향이 지금과 반대였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발굴조사 결과 이동된 모습이 확인되지는 않았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에서 사역 내 건물지와 탐지, 단석지, 동·서귀부 등에 대한 실측 조사를 하고 사역 내 공간범위를 확인하였음
- 2006년 <방치된 신라 옛 사찰 조사> 사업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굴조사를 하였음. 당시 발굴조사는 일제강점기의 조사로 훼손된 서탑지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사역 전체로 조사범위가 확대되면서 동해남부선으로 훼손된 사역 남쪽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
- 1차 발굴조사(2006)에서는 금당과 회랑을 연결하는 서익랑지, 서회랑지와 서탑지에서 녹유신장벽전 위치를 확인하였음. 이후 발굴조사에서는 조사범위가 확대되면서 금당지의 확장문제, 강당지와 강당 서쪽 건물지의 확인을 통해서 감은사지의 가람배치와 동일한 모습임을 확인하였으며 동·서귀부 일대 조사에서는 당시 비각의 모습을 밝힐 수 있었음. 또한 귀부 안쪽에서 배수로와 석교 등이 확인되면서, 사천왕사로 진입하던 통로의 모습이 확인되었음
- 이상과 같은 발굴조사를 통해 사천왕사지의 가람규모와 건물의 배치, 동·서목탑지의 기단 면석을 장식한 녹유신장벽전 등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동·서귀부와 출입시설을 통해서 당시 사찰의 공간 형태가 밝혀졌음
- 현재 사역이 동해남부선으로 인해 남북으로 분리가 되어있어, 철도 노선으로 인해 훼손된 영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전체 사역의 모습을 복원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사천왕사지 동쪽에서 확인된 대형 배수로 등의 존재는 사역의 규모와 범위가 지금보다 넓었음을 알려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회랑 외곽에 위치한 사찰 내 승려들의 생활공간인 승지에 대한 조사는 일부만 이루어졌으며, 현 사역 서쪽으로 넓게 확장되는 모습이 보이므로 향후 사천왕사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중심영역 외에도 주변 공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가람규모와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

- 사천왕사지 연구 초기에는 문헌적 접근과 지표조사를 통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지만, 발굴조사를 통해서 사찰의 가람배치가 확인되자 이를 근거로 척도, 공간변화, 건물의 출현시기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녹유신장벽전에 대한 복원작업이 이루어졌음
-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면 발굴조사기관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한 조사연구와 분석, 복원작

업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출토유물 중 기와에 대한 분석연구는 신라기와의 연구에 중요한 기준자료로 의미가 있음

- 한편, 건축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건축에 사용된 용적에 대한 연구는 발굴조사된 건물지 내 석물을 기준자료로 사용한 점에서 주목되며 신라 당시에 당적이 사용됨을 재확인시켜 주었음
- 또한 금당의 확장문제와 관련해서 시기 차이를 두고 금당의 규모가 변화했다고 보는 의견과 그 시간이 크지 않았다고 보는 의견이 대립하는데 이 문제는 익량의 출현 시기와의 연관성이 있고 사천왕사 경역 내 개개 건물들의 공간 위치를 설정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주목되고 있음
- 사천왕사지에 관한 연구는 출토 명문와에 대한 연구, 귀부에 대한 연구 등 일부 유물이나 부분적인 조사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향후 출토유물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 복원·정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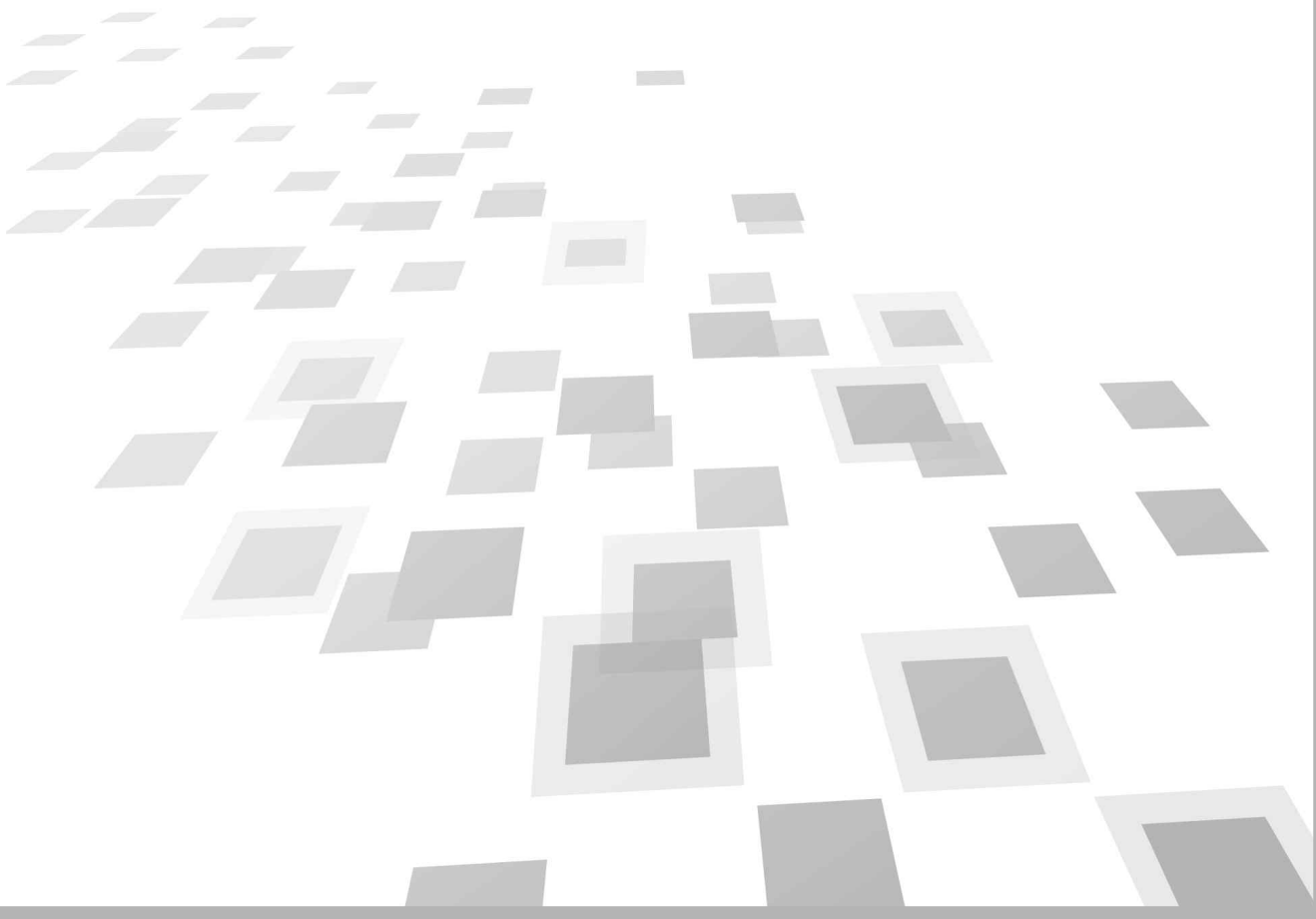
- 사천왕사지는 현재 동해남부선 남쪽에 있는 사역 공간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음. 서탑지에 대한 복원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사역 공간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은 제한되었음
- 사역 경계를 따라 설치된 보호 울타리를 지나서 관람객이 유적을 탐방할 수 있지만 현재 사역 공간 내부에 관람동선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절에 따라서는 수풀로 인해 관람에 지장을 주고 있음. 편의시설 역시 주변에 주차장이 만들어졌지만, 시내 유적들보다는 시설이 부족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원·정비 작업과는 별도로 주요 건물지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위치 등을 표시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으며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함

### (4) 활용에 대한 평가

- 사천왕사지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사역 내 공간구조와 많은 출토유물 등은 통일신라 초기의 사찰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유적 자체에 대해서는 복원·정비가 진행 중으로 활용은 미진한 상태임
- 사역 남쪽에 위치한 동·서 귀부를 비롯하여 출입시설은 복토되어 당시 모습을 짐작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천왕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으며 향후 사역 전체에 대한 관람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제3장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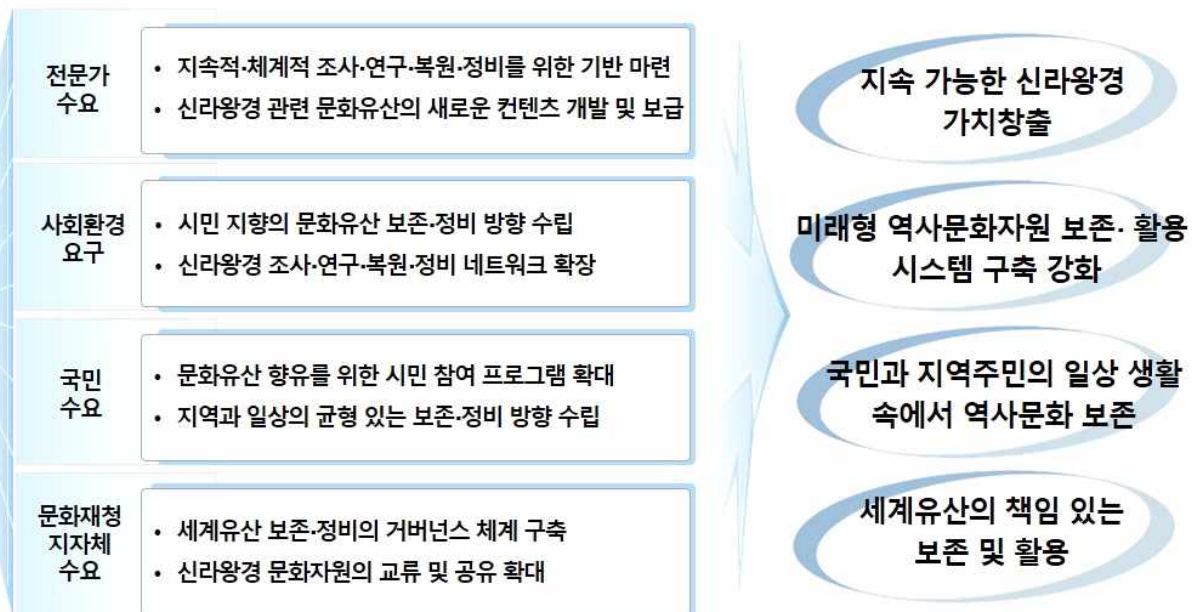


# 제1절 기본 방향 및 목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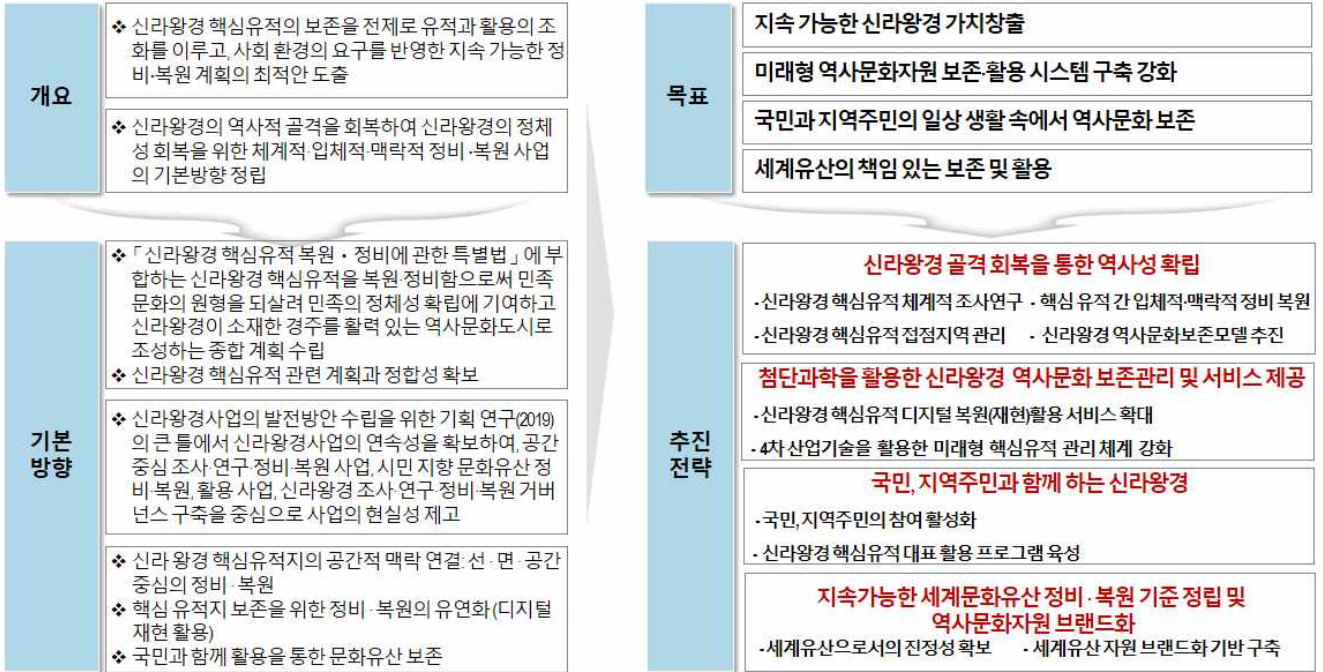
## 1. 기본 방향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수요 사항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복원, 정비를 위한 기반 조성 방향을 제시함
- 신라왕경 관련 문화유산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 제공
- 시민지향의 문화유산 보존 · 정비 방향의 수립과 신라왕경 조사, 연구, 복원, 정비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문화유산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역사문화보존모델의 정립 요구
- 문화향유의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유산 복원 ·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함
- 세계유산의 책임있는 정비와 복원을 통해 관람객에게 책임있는 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함
- 신라왕경 문화자원의 교류와 공유 확대를 세계유산의 정비 방향을 설정함

<그림 3-1> 종합계획 방향 수립



<그림 3-2>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



## 2. 목표 수립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을 토대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설정
  - 환경분석에서 도출된 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가치 창출, 미래형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시스템 구축 강화, 국민과 지역주민의 일상 생활 속에서 역사문화 보존, 세계유산의 책임 있는 보존 및 활용의 전략 목표를 수립함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계함
- 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가치 창출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변동을 반영한 전략목표를 수립함.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가치회복과 활용기반 구축을 위하여 왕경의 도시골격 및 단절된 유적을 회복하고(보존·정비 부문), 역사문화환경 개선 및 활용도를 제고(활용 부문)함
  - 입체적·매력적인 보존·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목표로 문화유산 핵심 6대 전략과 정합성을 확보하여 문화재청의 문화유산정책과 연계성 강화
  -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모색함
  - 신라왕경의 역사문화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세부과제를 연계함
  - 중장기 사업의 연계성을 검토한 후 재배치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임

- 미래형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시스템 구축 강화를 위한 전략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신라왕경 역사문화 보존 전략목표를 수립함
  - ‘미래형’은 첨단과학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활용 서비스와 보존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전략목표 포함
  - 첨단과학을 활용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역사적 골격을 재현하고 보존과 활용 자원의 확대를 추진함
  - 디지털 기술(확장현실 / XR : eXtended Reality = VR+AR+MR)의 적용으로 신라왕경 재현 가능성 향상
  
- 국민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문화 보존은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유산 관리 전략을 수립함
  - 신라왕경의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목표임
  - 신라왕경 핵심유적지와 도심 간의 조화로운 역사문화 경관을 조성하여 국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상생의 공간을 구축하는 전략목표임
  -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의 활력이 되는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전략목표임
  
- 세계유산의 책임있는 보존 및 활용은 지속가능한 세계문화유산 정비·복원 기준 정립 전략을 수립함
  - 세계유산의 책임있는 보존 및 활용을 통해 관람객에게 책임있는 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 목표임
  - 신라왕경 문화자원의 교류와 공유 확대로 세계유산의 정비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목표임

<그림 3-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사업의 미션, 비전, 슬로건

<b>Mission</b>	<p><b>신라 역사문화 가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통한 생활 속 문화향유 실현</b></p>	<b>Vision</b>	<p><b>미래형 신라왕경 역사문화보존모델 구현으로 인간과 역사의 상생 패러다임 구축</b></p>	<b>Slogan</b>	<p><b>신라의 시간, 왕경의 향기, 경주를 거닐다!</b></p>
<b>Mission에 대한 정의</b>		<b>Vision에 대한 정의</b>		<b>Slogan에 대한 정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라 역사문화 가치</b>: 신라 왕경의 역사·문화를 핵심유적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규명</li> <li>• <b>가치의 지속가능성</b>: 체계적으로 규명된 신라왕경 역사문화 가치의 역사적 진정성, 보편적 가치, 완전성을 확보하여 미래세대까지 가치를 전달</li> <li>• <b>생활 속 문화향유 실현</b>: 규명된 신라왕경의 가치를 국민이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향유를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래형 신라왕경 역사문화보존모델</b>: 신라왕경 핵심 유적의 체계적 가치보존을 위한 사업(발굴조사연구·보존정비) 과정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확보 하는 프로그램연계를 통해 새로운 경주모델 구축</li> <li>• <b>인간과 역사의 상생 패러다임</b>: 국민, 지역주민과 신라 역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및 신라왕경 발굴조사·연구·보존·정비 사업의 성과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의지의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라의 시간</b>: 신라왕경의 체계적 규명을 통해 신라의 시간을 재현</li> <li>• <b>왕경의 향기</b>: 스토리가 있는 신라왕경 사업결과를 제공하여 왕경의 모습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현</li> <li>• <b>경주를 거닐다</b>: 신라의 시간과 왕경의 모습을 일반 국민과 주민들이 즐겁게 거닐면서 향유</li> </ul>	

### 3. 가치 체계

- 신라왕경사업의 가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미래형 : 현 시점보다 발전된 행동과 상태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현시점에서 앞으로 기대하는 행동 및 상태를 계획하고 발전을 의식한 형태, 현재보다 발전된 미래의 신라왕경 구현,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신라왕경 상태, 신라왕경사업의 장기적 추진 의지 표현
- 역사문화보존모델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체계적 가치보존을 위한 사업(발굴조사·연구·보존·정비) 과정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확보하는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새로운 경주모델 구축
- 인간과 역사의 상생 패러다임 : 국민, 지역주민과 신라 역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상생의 사업 추진 및 신라왕경 발굴조사·연구·보존·정비 사업의 성과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의지의 표현

<그림 3-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가치체계



## 제2절 추진 방법 설계

### 1.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확보하는 활용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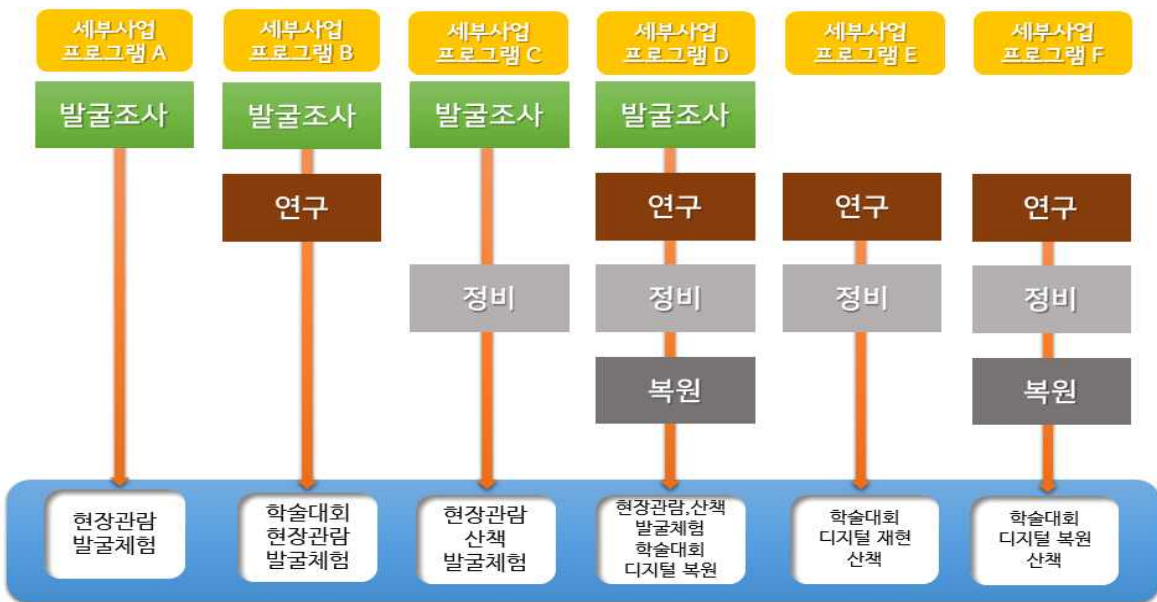
- 신라왕경 핵심유적 각 사업을 국민이 향유하도록 역사문화보존모델을 적용하여 활용 프로그램을 수립함
- 발굴조사, 연구, 정비, 복원, 활용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활용을 중심으로 각 사업 단계의 내용을 기획함
- 신라왕경 역사문화보존모델(경주모델)에서 세부사업은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과정별로 수립하여



경주시민과 일반국민이 향유하도록 추진함

- 발굴조사 사업은 일반국민이 발굴 현장을 관람하거나 발굴을 체험할 수 있도록 활용사업을 병행함
  - 발굴조사와 연구로 구성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활용사업으로 학술대회, 현장관람, 발굴체험 등을 병행하여 지역주민과 국민에게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도록 추진함
- 각 사업은 발굴조사, 학술연구, 정비, 복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용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유적 복원·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함

<그림 3-5> 신라왕경 역사문화보존모델(경주모델) 적용



## 2. 핵심유적의 디지털 재현과 복원 활용 기반

- 문화유산 복원은 진정성과 완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고증연구가 진행 중인 핵심유적의 복원은 디지털 재현과 복원 중심으로 추진함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고증 자료 부족으로 원형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디지털 재현과 복원을 통한 전략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고증 연구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시뮬레이션 연구자료가 축적되면 신라왕경 실체적 재현에 완성도를 전략적으로 높일 수 있음
  -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은 문화유산 보존에도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과 같은 시뮬레이션 기법은 유적을 훼손하지 않고 복원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진화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고증 연구 시도, 문화유산 원형 시뮬레이션 반복을 통해 문화유산 원형 연구 자원 확보가 가능함

- 문화향유의 트렌드가 경험 경제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유산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실감 기술은 문화 향유의 중요 체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 XR을 활용한 실감 체험은 경험 경제와 실감 경제의 융합 형태로 문화재 향유의 새로운 수단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됨. XR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관광 콘텐츠, 도시계획 시뮬레이션의 사례를 토대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적용하여 체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관련 법률 간의 적용 관계

#### 1) 법령 간의 충돌 사항의 일반적인 해결 방식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세계유산법, 고도육성법, 역사문화권법, 신라왕경특별법 등으로 법령의 목적·입법 취지 등에 따라 복수로 존재하는데, 각 법령이 상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모두 적용되어야 함

<표 3-1> 관련 법률 간의 적용 결정 원칙

구분	내용
판단 상황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개의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어느 법령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
해결원리	[최상위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제한 사항 고려</li> <li>• 상위법 우선의 원칙</li> </ul>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소관 사항의 원칙</li> <li>• 법령의 형식적 효력 원칙</li> <li>• 특별법 우선의 원칙</li> <li>• 신법 우선의 원칙</li> </ul>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제한을 최우선으로 상정한 뒤에 상위법(기본법 또는 모법) 우선의 원칙과 법령 소관 사항의 원칙, 법령의 형식적 효력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 일반적인 법 적용 원칙을 고려해야 함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서열이 명확하게 규정되는데 한계가 있음
- 그러므로 해당 충돌 내용의 본질적인 성격을 통해 어떠한 법을 적용할지는 개별법 조문의 해석, 관련 판례 참조, 기본법 또는 모법에서의 직접 규정하는지 여부 해석, 특별법 성격 등을 확인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임
- 신라왕경 핵심유적과 관련된 법령의 소관 사항은 다음 <표3-2>와 같음

<표 3-2> 신라왕경 핵심유적과 관련된 법령의 소관 사항

구분	소관 사항 내용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0.12.10.)	문화재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 문화재, 일반 동산문화재,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국외 소재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시도등록문화재, 문화재매매업, 보칙, 벌칙
신라왕경특별법 (시행 2020.12.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복원·정비 사업, 국회에 대한 보고
고도육성법 (시행 2020.12.8.)	고도의 지정 등, 보존육성사업 등, 보칙, 벌칙
역사문화권법 (시행 2021.6.10.)	역사 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 역사 문화권 정비의 시행, 역사 문화권 보존·정비의 지원 기반 조성, 보칙, 벌칙
세계유산법 (시행 2021.2.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주요 시책 등의 협의, 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세계유산의 등재 등,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세계유산지구의 보호, 종합계획 수립,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정기점검, 세계유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 유네스코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관계기관의 협조, 재정지원, 권한의 위임·위탁

<표 3-3>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의 경합여부 검토

구분	검토 확인 내용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된 법령이 일반법, 특별법 관계인지 여부를 검토</li> <li>① 문제되는 사항 즉 같은 소관사항을 양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가?</li> <li>② 법령의 제명이 “--- 특별법, --- 특별조치법” 등으로 되어 있는가?</li> <li>③ 각 법령의 입법목적이 무엇인가? (제1조 목적규정과 제개정 취지 확인)</li> <li>④ 적용범위 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 우선 적용하거나 배제” 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가?</li> <li>⑤ 개별 조문에서 다른 법령규정과 관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li> <li>⑥ 개별 조문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는 무엇인가?</li> </ul>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로 해석이 되면, 어느 법이 신법이고 구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으로 인정되는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법의 규정 적용</li> <li>• 다만 일반법을 개정하면서 특별법의 특례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조문이 우선 적용함</li> </ul>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양 법령 중 신법(나중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함</li> </ul>

□ 사업의 집행에 적용해야 할 법률의 소관 부처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제정 목적, 해당 사건의 행위 유형, 입법자의 취지 및 입법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후에 우선 적용해야 함

<표 3-4> 신라왕경 핵심유적과 관련된 법령의 시행일 비교

구분	시행일 예정	특별법 여부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7409호)	시행 2020.12.10.	일반법
신라왕경특별법(법률 제16779호)	시행 2020.12.1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고도육성법(법률 제16596호)	시행 2020.12.8. (2021.4.1. 시행 예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법(법률 제17412호)	시행 2021.6.1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법(법률 제16932호)	시행 2021.2.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지원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신라왕경특별법, 세계유산법, 고도육성법, 역사문화권법 등 특별법 적용에 충돌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적용을 위해 사건의 해당 법조문 해석을 우선으로 시작하여, 기타 관련 법률 즉, 각 법률에 나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및 각 법률의 제정 목적 등을 해석·분석하여 법적용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함

<표 3-5>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상의 핵심유적 법률 간의 관계

문화재보호법	신라왕경특별법	고도육성법	역사문화권법	세계유산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정문화재(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 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수리·실측·설계·감리와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b>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b>  *국토종합계획	제4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은 「 <b>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b> 」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종합계획 수립에서 다른 법률 간의 추진 방향

-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기본(종합)계획은 수립 주체와 적용 유적에 차이가 있고, 수립 내용에서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재보호법(문화재기본계획), 신라왕경특별법(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고도육성법(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역사문화권법(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세계유산법(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계획)의 관계는 다음 <표 3-6>과 같음

<표 3-6> 종합계획 수립에서 다른 법률 간의 관계

문화재보호법	신라왕경특별법	고도육성법	역사문화권법	세계유산법
<p>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b>기본계획</b>(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b>5년마다 수립</b>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li> <li>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li> <li>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li> <li>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li> <li>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li> <li>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li> <li>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자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li> <li>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li> <li>3.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li> <li>4. 문화재교육에 관한 사항</li> <li>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p>	<p>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b>5년마다</b>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와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b>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b>(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li> <li>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추진</li> <li>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자원확보</li> <li>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연구</li> <li>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재청장이 고도를 지정하면 해당 <b>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b>와 협의하여 <b>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b>(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할 <b>시·도지사</b>를 거쳐 <b>문화재청장의 승인</b>을 받아야 하고, 해당 <b>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청장의 승인</b>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li> <li>제10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li> <li>고도의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li> <li>고도의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li> <li>고도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li> <li>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보상에 관한 사항</li> <li>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li> <li>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li> <li>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자원확보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li> </ol>	<p>제9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① <b>문화재청장</b>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b>협의</b> 및 <b>위원회 심의</b>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b>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b>(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li> <li>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li> <li>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li> <li>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li> <li>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사업에 관한 사항</li> <li>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li> <li>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li> <li>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자원확보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역사문화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li> </ol>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b>문화재청장</b>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b>5년마다 종합계획</b>(이하 "<b>종합계획</b>"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li> <li>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 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li> <li>세계유산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li> <li>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li> <li>세계유산의 기록정보화</li> <li>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li> </ol> <p>③ <b>문화재청장</b>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b>협의</b>를 거쳐야 한다.</p> <p>④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문화재보호법	신라왕경특별법	고도육성법	역사문화권법	세계유산법
·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하는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하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은 신라왕경특별법을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고, 수립 주체는 문화재청장으로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 수렴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승인함
- 관련된 법령 상의 종합(기본)계획을 검토하면 우선 적용하는 계획은 법률 소관사항원칙을 적용함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와 관련된 사업은 종합계획 우선 적용
  - 종합계획의 내용이 상호 배제적이지 않도록 수립하여 관련 법의 종합계획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으로 추진해야함
  - 첫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은 문화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함
  - 둘째, 고도육성기본계획 상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특별보존지구) 사업계획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함
  - 셋째,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상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계획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함
  - 넷째, 세계유산 경주역사문화지구 내 핵심유적 관련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토대로 수립함

<표 3-7>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추진 방향

구분	문화재보호법	신라왕경특별법	고도육성법	역사문화권법	세계유산법
수립주체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
수립주기	5년	5년	10년(5년 재검토)	5년	5년
수립절차	시·도지사와의 협의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문화재청장 고도 지정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구분	문화재보호법	신라왕경특별법	고도육성법	역사문화권법	세계유산법
			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 관할 시·도지사 ⇨ 문화재청장 승인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법률 관계	[일반법]	[특별법] 제4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 적용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특별법] 제5조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핵심유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적용	핵심유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이 적용하고 이외의 고도지역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적용	핵심유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이 적용하고 이외 역사문화권 정비에 대해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적용	신라왕경 특별법 규정이 있으므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이 우선 적용
추진 방향	[수립] 문화재기본계획	[반영] 문화재기본계획 ↓	[반영] 문화재기본계획 ↓	[반영] 문화재기본계획 ↓	[반영] 문화재기본계획 ↓
		[수립]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	⇨ [반영] 역사문화환경 특별 보존지구 계획상의 정합성 확보	⇨ [반영] 역사문화권 정비기본 계획 상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계획 상의 정합성 확보	⇨ [반영] 경주역사문화지구 내 핵심유적 관련 계획 상의 정합성 확보
			[수립]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계획 수립	[수립] 역사문화권 정비기본 계획 수립	[수립]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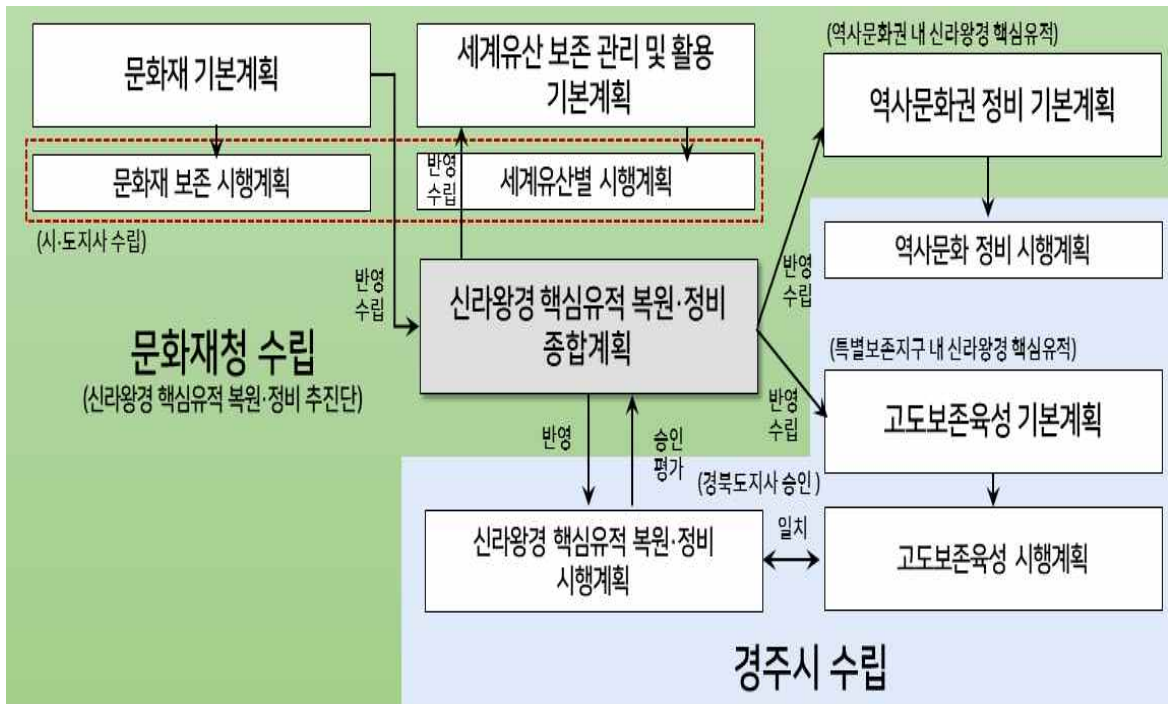
### 3)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서 다른 법률 간의 추진 방향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연도별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경주시장이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주시장이 수립주체이고 시도지사의 협의 후 문화재청장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침
-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은 문화재청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수립할 경우는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침
- (경주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연도별 시행계획은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및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과 정합성을 검토하여 수립함
- (시도지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연도별 시행계획은 세계유산별 시행계획과 정합성을 검토하여 수립함
- (문화재청)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연도별 시행계획은 세계유산별 시행계획과 정합성을 검토하여 수립함

<표 3-8>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 비교

구분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연도별 시행계획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	세계유산별 시행 계획
수립 주체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	경주시장	사업시행자 (경주시장)	경주시장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

<그림 3-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법령 상 관계도



####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시행사업 평가 방법

- 신라왕경법 제6조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사업기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분야로 구분하고, 평가 항목은 사업의 필요성, 효율적 집행, 사업 수행 과정, 결과보고서, 사업목표 달성도, 사업 사후 관리, 사업 기여도를 설정함
- 사업의 필요성 항목은 사업 타당성, 사업 기획의 구체성으로 구성함
  - 사업의 필요성은 사업 타당성 항목에서 사업의 합목적성을 측정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과의 목적 일치도를 평가하고,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평가하여 사업 정합성을 평가함
  - 다음으로 사업 기획의 구체성은 핵심유적 이외의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과의 차별성을 평가하고 추진



하는 계획의 구체성과 종합성을 평가함

- 효율적 집행은 계획의 일관성,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과정 문제해결, 협력체계의 항목으로 구성함
  - 효율적 집행의 평가항목은 계획의 일관성 평가지표에서 계획 대비 추진의 일관성을 측정하고,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 과정 문제해결 평가지표에서 예산 집행 비율, 사업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여부를 평가하며, 협력체계 구축 평가 지표에서 민간의 사업 참여 수준을 평가함

<표 3-9>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시행사업 평가 지표(안)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기준	배점
사업기획	사업의 필요성 (20)	사업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업의 합목적성</li> <li>• 복원정비 관련 사업과 연관성(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등)</li> </ul>	5
		사업기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사업과 차별성</li> <li>•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종합성</li> </ul>	5
	효율적 집행 (15)	계획의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대비 추진 일관성</li> </ul>	5
		예산집행 실적 및 사업추진과정 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집행 비율</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정도</li> </ul>			2	
협력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사업 참여 정도</li> </ul>	5		
사업집행	사업 수행과정(10)	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행과정에 관한 기록화</li> <li>• 전문인력, 자원동원 등의 수행과정 실적정도</li> </ul>	10
	결과보고서(5)	사업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결과 보고서의 충실성 정도</li> </ul>	5
사업성과	사업목표 달성도 (30)	활용 사업 실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용 기반 사업 실시 여부</li> </ul>	15
		사업목표 달성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표와 성과 간 일관성 정도</li> <li>• 사업목표와 성과대비 충족도</li> <li>•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에 대한 달성도</li> </ul>	15
	사업 사후 관리(5)	사후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향후 개선 방안</li> </ul>	5
	사업 기여도 (15)	복원·정비사업의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 기여도</li> <li>• 간접적 기여도</li> </ul>	15

- 사업 수행과정 평가항목은 사업수행과정에 대한 실적 평가지표에서 사업 수행 과정에 관한 기록화, 전문인력 및 자원 동원 등의 수행과정 실적을 평가함
- 결과보고서 평가항목은 사업 결과보고서 평가지표에서 사업 결과보고서를 충실하고 자세하게 작성했는가의 여부를 평가함
- 사업목표 달성도 평가항목은 활용사업 실시여부와 사업목표 달성의 합리성으로 구성함
  - 사업목표 달성도 평가항목은 활용사업 실시 여부 평가지표에서 활용 기반 사업 실시여부를 평가하여 신라왕경 역사문화보존모델(경주모델)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는가 평가함
  - 사업목표 달성의 합리성 평가항목은 사업목표와 성과 간의 일관성 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의 투입과 산출 간의 인과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목표와 성과 대비 충족도를 측정하여 목표와 성과 간의 전년대비 증감폭을 평가함

- 사업의 계획서 상의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하여 평가함
- 사업 사후 관리 평가항목은 사후관리 계획의 평가지표를 통해 사업의 향후 개선 방안을 평가하고, 연도별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여부를 측정함
- 사업의 기여도는 복원·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직접적 기여와 간접적 기여도를 측정하여 복원·정비사업의 효과를 평가함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직접적 기여와 간접적 기여도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

## 제3절 핵심유적 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방안

-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향유 욕구가 높아지면서 문화재 관련 체험형, 참여형 교육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문화재 교육은 단순히 문화재를 관광하거나 문화재에 관한 해설을 듣는 수준을 넘어 문화재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적·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점에서 중요함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가치를 교육·홍보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가치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음

### 1. 교육

- **(교육)** 천년왕도의 모습을 간직한 신라왕경 핵심유적은 뛰어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라왕경의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
  - 경주 월성 현장중심 문화유산 교육(찾아가는 월성이랑 등)
  - 경주 황룡사 역사교육
  - 경주 동궁과 월지 정비현장 교육
  - 경주 동부사적지대 현장중심 문화유산 교육의 장 등
  - 경주 월성 발굴현장 활용 프로그램 운영(발굴현장 공개 행사, 테마해설, 고고학 축제 등)
  - 경주 황룡사 발굴체험, 경주 미탄사지 발굴현장 교육
  - 경주 대릉원 고분 내 발굴현장 공개

**(발굴현장 공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발굴현장의 공개는 국민에게 발굴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유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굴 과정을 확인하면서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 또한 유적을 보호하고 조사해야 하는 필요성과 중요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발굴조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의미가 있음. 최근에는 발굴현장을 유튜브로 공개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이 발굴과정을 시청할 수 있으며, 다시 시청도 할 수 있어 역사 관련 교육자료로도 활용이 기대됨

## 2. 홍보

- **(유적 홍보)** 문화유산은 보다 많은 사람이 향유할수록 그 가치가 커짐. 따라서 유적의 홍보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방안으로 의미가 있음.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가치를 지역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적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공유하고자 홍보방안을 수립함. 특히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디지털 복원은 복원 및 활용과 함께 홍보의 효과를 가짐
  - 경주 월성 디지털 재현
  - 경주 황룡사 역사문화관 전시 홍보
  - 경주 대릉원 쪽샘지구 홍보물 제작 배포
  - 경주 춘양교지 복원 과정 영상 홍보 사업
  - 역사 기념관 및 현장 전시관 개관
- **(역사 기념관 및 현장 전시관 개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유적 기념관 및 현장 전시관을 개관하여 유적이 위치한 현장에서 유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유적 발굴 과정을 관람하여 유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 체험중심의 역사 기념관 및 현장 전시관 관람 프로그램 운영
  - 경주 대릉원 일원 고분 내 유적 공개 및 전시, 경주 대릉원 쪽샘유적발굴관 상시 공개 운영
  - 경주 분황사·구항동 원지 전시실 구축
- **(전시시설 운영관리 전문화)** 신라왕경 핵심유적 유적 기념관 및 현장 전시관 시설관리 전문 인력 확보
- 문화유산 전시 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전시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과 운영 관리를 지원할 전문 조직이 요구됨
  - (주요 업무) 핵심유적 연계 기반 전시시설 운영·관리
  - 유적별 교육 활용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디지털 콘텐츠 구축·운영·관리
  - 전시시설 운영 전문 조직 구성(안)
    - 1안 :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전담 조직 구성(전문인력 충원 필수)
    - 2안 : 민간위탁(문화유산 전시 및 교육 전문기관 위탁)
      - (사례)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위탁 운영
      - \*운영기관 : (사)한국건축가협회 / 예산 : 약 20억원(시비)
      - \*사업내용 : 서울도시건축 문화의 거점 공간, 도시건축사업 및 성과에 대한 대시민 공유공간, 세종대로 일대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공간
    - 3안 : 장기적으로 전시 콘텐츠 기획, 운영, 교육, 홍보를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 관리 기관 설립
      -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기여

## 3. 대외협력 방안

- **(대외협력방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단순히 하나의 유적을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라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사업임.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원활하

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력해야하며, 민간의 협력을 필요로 함

- 중앙-중앙, 중앙-지자체, 지자체-민관학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제고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정비 · 복원 방향 설정을 위한 학계와 긴밀한 협조 유지
- 문화재지킴이 · 문화재돌봄사업 활성화 등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문화유산 관리 강화

## 제4절 핵심유적 활용 방안

- 과거에는 산업화, 도시화의 개발 아래 문화유산의 보존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으나 요즘에는 문화재의 활용과 국민의 문화재 향유가 필수 과제가 되었음
- 문화유산의 활용은 보존 ·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활용만을 위한 개념이 아님.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은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임
- 경주는 찬란했던 신라의 역사를 간직한 천년고도로 훌륭한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큰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지역주민 휴식 공간 제공)** 핵심유적이 있는 공간의 특성(주제)으로 연결된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유적과 나머지 부분이 이원적으로 분리되는 경향 제고
  - 신라의 역사가 흐르는 산책로 조성
    - 핵심유적의 산책로, 조망점 중심으로 주변 환경 정비
    - 핵심유적과 주변 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접근성과 안내 시스템 구축
    - 신라왕경의 역사문화의 상징성을 연속적 경관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
    - 신라왕경 핵심유적 특성에 따른 조성 가이드라인 필요
    - 핵심유적으로 연결되는 통일감과 연속되는 공간 및 동선 구축
  - 문화유적 정비완료 지역은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문화재 보존에 대한 피로감을 상쇄시킴
    - 핵심유적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정원 및 공원 육성
    - 지역주민이 실생활에서 애착을 갖는 유적으로 활용하여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재 보존이 함께 이루어지는 효능감 제공
- **(핵심유적 연계 관광코스 개발)**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성격과 공간적 위치 그리고 유적 간 관련성을 고려하여 유적 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함. 문화유산을 연속적으로 체험하여 관람객들의 유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동선 제공 및 적절한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 활동의 편의성을 증진함
  - 경주 황룡사지 일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
    - 황룡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신라 불교문화를 잘 보여주는 중요 유적

지로 연계하여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 문화 벨트로 조성할 수 있음

-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
    -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인왕동 사지, 천관사지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함
    - 월정교는 복원, 정비된 이후 경주시의 대표적인 신라문화유산으로 인식됨에 따라 현재 주, 야간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며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월정교 북편인 교촌마을 일대가 정비되어 문화체험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음
  - 경주 월성, 동궁과 월지, 동부사적지대, 대릉원 일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
    - 신라왕궁과 옛 왕과 귀족들의 고분을 잇는 관광코스를 개발함
    - 신라의 왕과 귀족들의 삶을 함께 걷고, 보고, 느끼게 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곳곳에 숨어있는 공간 창출
  - 경주 낭산 일원, 경주 사천왕사지 연계 관광코스 개발
    - 낭산 일원은 신라 왕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으로 알려짐
    - 신라의 칠처가람지 중 하나인 신유림에 위치하여 신라 고유 정서와 불교의 흔적이 남아있음
    - 낭산 일원에는 사천왕사지, 황복사지를 비롯하여 능지탑, 선덕여왕릉 등 여러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음
    - 낭산 일원의 활용을 위한 탐방로 정비 및 주차장, 화장실,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함
- (핵심유적 연계 스토리텔링 개발)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얽힌 기록, 설화 등을 스토리텔링 하여 유적의 특수성을 부각함. 유적에 얽힌 스토리를 가공하여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방문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주 분황사-구황동 원지는 신라 승려 원효가 머무르면서 불법을 전파하였던 유서 깊은 사찰로서 원효와 그의 아들 설총과 관련한 설화 활용
  - 경주 천관사지는 김유신과 기생 천관과의 설화 관련 스토리텔링 개발
  - 경주 낭산 일원은 선덕여왕의 유언과 관련된 설화 활용
  - 경주 사천왕사는 신라 문무왕 14년 당나라가 공격하자 명량법사가 사천왕사를 짓고 밀교의 비법인 문두루비법을 행하였다는 설화 활용
- (문화축제 및 행사 개최) 지역문화 축제는 무형의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됨. 현재 경주에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대표하는 문화축제 및 행사가 부재한 상황임.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브랜드화 한 문화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에게 각인될 수 있어야 함
- 원효 문화제 개최
  - 경주 춘양교지 문화 행사 및 축제 사업
  - 탐돌이 행사, 신유림을 거닐다(낭산 돌레길 걷기) 행사, 경주 천관사지 신라 탐방길 등
- (온라인 활용) 온라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게 하며, 대규모 쌍방

향 소통을 가능하게 함.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비접촉 사회가 가속화 되면서 발굴현장 온라인 설명회,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시도되었음. 일상생활에서 온라인 활용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국민에게 신라왕경 핵심유적 향유 기회를 증진함

- 발굴현장 온라인 설명회
- 문화축제 및 행사 온라인 중계
- 문화유산 오감체험 콘텐츠 제공

## 제5절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세계유산 영향 분석

### 1. 세계유산영향평가와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복원·정비사업 사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세계유산 영향 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의 실시를 요구함

<표 3-10> 세계유산 관리 대상 유적 : 경주역사유적지구 내 핵심유적

경주역사유적지구	대상유적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 범위
월성지구	계림	
	월성	복원·정비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첨성대	정비
항릉사지구	항릉사지	복원·정비
	분황사 석탑	중장기 복원·정비
대릉원 지구	미추왕릉	
	황남리 고분군	정비
	노서리 고분군	정비
	신라 오름	
	경주 동부사적지대	정비
	재매정	

-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유적의 가치, 특성이나 개발 사업의 규모·내용 등의 실정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함
-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와 유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가 2011년에 「세계문화유산의 유산영향평가에 대한 가이드(Guidance on Heritage Impact Assessments for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를 제시함
  - 세계유산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공통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절차, 방법 등의 기본적인 생각은 각각의 유적 사례를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 유적 복원·정비사업 계획 시행을 대비해 사전에 유산영향평가의 프로세스나 방법 등을 정리해 세계유

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검토가 필요함

## 2.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고려 사항

- 세계유산이나 완충지대가 소재하는 지자체는 유적 복원·정비사업 사전 단계에서 부터 내용을 파악하고 협의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과 사업의 정합성을 도모해 두는 것은 세계유산의 보존 관점뿐 아니라 사업 등의 원활한 실시에도 이바지함
  - 세계유산이 소재하는 지자체는 세계문화유산의 자산 및 완충지대의 보존 정책의 내용,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에 대해 지역 주민, 학계 및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소통, 협력을 통하여 폭넓은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그 후의 평가 등을 실시하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으면서 세계 유산의 보호를 도모함
  - 세계유산 및 완충지대 보존의 법령 규정을 적용하고 관련 협의회, 학술위원회 등을 세계 유산의 보존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포괄적 보존관리 계획에 포함을 하는 것이 중요함
  - 경주 역사유적지구 내의 핵심유적에 대해서는 신라왕경특별법이 우선하므로 세계유산법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한 포괄적 보존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시행계획 속에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심층분석
  - 심층 분석은 세계 유산의 가치 보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실시
  - 세계유산 복원·정비 계획에서 사업의 규모, 세계유산과의 위치 관계, 복원·정비 사업의 종류, 물리적·공간적인 지표, 일시적인 것인지 영속적인 것인지 여부를 고려함
  - 심층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계유산 계획 내용의 분석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유산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 기록은 후에 수행할 수 있는 심층 분석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보다 바람직한 제도(규제 강화 또는 완화를 포함)를 구축할 때 기본 자료로 활용
  - 심층분석은 가능한 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대규모 경우나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 등을 설치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ICOMOS에 대해 충분한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므로 전제 조건을 알기 쉽게 제시할 것, 평가 수단, 수법 등 프로세스의 명확화, 평가 결과의 명확한 정리 등이 필요함
  -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수렴 공청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효과적임

### 3. 세계유산영향평가에서 유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유형

#### 1) 세계유산 범위 내에서의 정비사업

- 세계유산 범위 내의 정비 사업 등은 일반적으로 세계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임
- 이러한 행위는 세계유산 유적 보존의 법령(문화재보호법, 세계유산법, 역사문화권특별법 등)의 현상 변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정비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협의 등이 있으나, 국내법상의 완충 지역 지정 등과 문화재보호지역 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함
- 정비(유지, 수리, 방재, 활용, 복원, 시설건설 등)의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세계유산센터, ICOMOS와의 의견 교환에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침에서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설명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검토 사항
  - 세계유산 정비사업 내용 등의 검토에 있어서 국내법상의 절차와의 정합성 확보
  - 정비 사업 등의 필요성, 합리성 등에 대해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의 구축
  - 정비사업에서는 방문객의 안전성이나 편익의 향상, 유산 가치를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력도 예상되지만, 종합적인 부정적인 영향과 세계유산의 가치에 그 일부라도 영향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세계유산 범위 내에서의 조사

- 세계유산 범위 내의 발굴 조사나 건물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발굴조사는 그 후의 세계유산 보전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필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보고 등을 실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발굴 조사의 사업계획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검토 사항
  - 발굴조사 및 건물 조사 등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발굴조사 등에 의한 2차 영향의 검토가 필요(예를 들면 빗물처리, 관람객 동선의 변경 등)
  - 관련 법령의 정합성 확보
  - 조사 후에 대규모 정비 등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



### 3) 완충지대에서의 개발 행위 등에서 경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1: 세계유산으로부터의 경관)

- 완충지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기인하는 세계유산 범위나 그 인근에서의 경관에 대한 영향은 유산영향평가에서 가장 주요한 대상임
- 개발 사업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속성 등의 정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존하거나 중시해야 할 경관의 대상이 어느 부분이며, 또 어떠한 것이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경관을 정기적으로 관찰·기록,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임
- 검토 사항
  - 세계유산의 경관 가치를 분석하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망점 설정
  - 경관분석에 관한 다양한 방법, 지침 등을 활용하여 분석 실시
  - 분석 과정에서 계절의 변화 고려
  - 주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객관성 확보

### 4) 완충지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서 경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2: 세계유산에 대한 경관)

- 완충지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의한 경관상의 시각적 영향을 고려할 때 세계유산이나 세계유산 근방에서의 경관뿐만 아니라 완충지대에서 세계유산을 보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조망점을 사전에 설정하여 경관을 정기적으로 관찰·기록하는 등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임
- 검토 사항
  - 완충지대 내의 각 구역에서 바람직한 경관의 방향, 허용되는 사업 내용(형태·의장·색채·높이 등)에 대해서 사전 규정이 필요
  - 조망점이 복수 혹은 넓은 범위로 설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세계유산 경관과 세계유산을 향한 경관의 양면에 대해 동시에 검토 필요

### 5) 완충지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서 경관 이외의 여러 요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으로는 시각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이동에 의한 혼잡, 소음, 그로 인한 분위기 변화 등, 그 이외의 물리적인 영향에 관련된 것(일조, 바람, 지하수맥의 변동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그 밖에 즉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리스크의 정도가 변화하는 것(경사지, 수목, 하천·수로 등 재해 가능성의 증가 등)에도 주의가 필요함
- 검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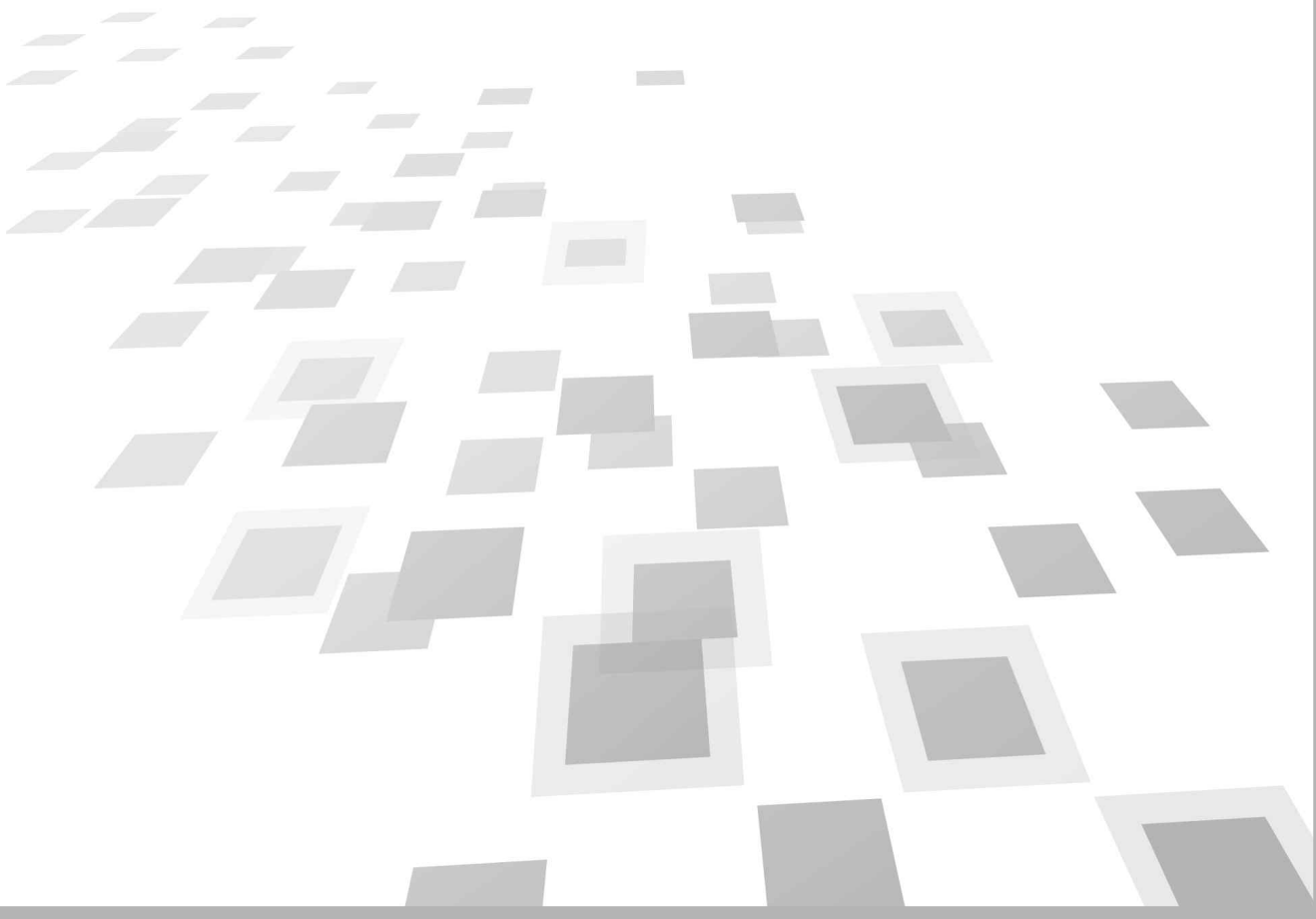
- 완충지역 내에 가설물 설치, 철수 시 등에 세계유산을 훼손 여부
- 가설물의 직접 물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빗물 처리 등 간접적인 영향도 고려
- 많은 인원이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선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
- 우천시 등 상황이 발생할 때 미치는 영향

#### 6) 구체적인 사업 등이 아닌 규제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세계유산 및 완충 지대의 보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여러가지 법령, 혹은 그에 근거하는 규제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기법을 원용해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완충지대에 관련된 도시계획, 경관·건축 규제 등에 대해 자주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 개별적인 특례에 의한 규제완화를 하는 사례도 많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규제 완화 등은 유도 시책으로서 도입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규제 변경 단계에서 대처해 두는 것은 세계 유산의 보존이 다양한 계획 속에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제4장

## 신리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실행과제



# 제1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우선순위 도출

## 1. 전문가 FGI 조사분석

-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분석은 공공기관이 사업의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심 이해관계자(Key Stakeholders) 발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지원 극대화, 부정적 영향의 통제를 위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사업의 협력적인 거버넌스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음
- FGI 조사 내용의 핵심은 신라 왕경 유적별 사업의 성과 및 미흡한 부분을 찾고 향후 주제를 도출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사업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이를 바탕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을 확인 혹은 발견하여 기관 운영전략과 복원 ·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중점 사업의 우선 순위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중점 사업 분야는 경주 월성(궁성), 동궁과 월지(궁성), 황룡사지(사찰), 대릉원 일원(왕릉) 중심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전문가 조사 결과 확인됨
- 신라왕경 핵심유적 확대는 낭산 일원, 동부사적지대, 사천왕사지,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천관사지 우선 순위를 포함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를 전문가 FGI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였음

<그림 4-1> 종합계획 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 유적별 중점 사업의 우선 순위 결과

구분	사적 가치	훼손방지	원형회복	상징적 가치	역사적 회복	문화재 향유	교육활용	관광자원	
발굴조사	기존 계획 (有)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대릉원일원, 황룡사지	경주월성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대릉원 일원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황룡사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대릉원 일원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경주월성, 황룡사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대릉원 일원	동궁과 월지, 경주월성, 대릉원 일원, 황룡사지
	신규 수립	낭산일원	낭산일원	-	낭산일원, 동부사적지대	낭산 일원, 동부사적지대	-	낭산 일원	낭산 일원
학술연구	기존 계획 (有)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대릉원일원, 황룡사지	경주월성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대릉원 일원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황룡사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대릉원 일원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경주월성, 황룡사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대릉원 일원	동궁과 월지, 경주월성, 대릉원 일원, 황룡사지
	신규 수립	낭산일원	낭산일원, 사천왕사지	-	낭산일원	낭산 일원	-	낭산 일원, 사천왕사지	-
정비	기존 계획 (有)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경주월성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신규 수립	-	구황동원지, 사천왕사지	구황동원지	-	구황동원지	-	사천왕사지	-
복원	기존 계획 (有)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경주월성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신규 수립	-	구황동 원지, 사천왕사지, 천관사지	구황동 원지	-	구황동 원지	-	사천왕사지	-
홍보교육	기존 계획 (有)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대릉원 일원	경주월성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대릉원 일원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황룡사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황룡사지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대릉원 일원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대릉원 일원	경주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대릉원 일원
	신규 수립	-	사천왕사지	-	동부사적지대	동부사적지대	-	사천왕사지	-

## 제2절 전략 목표별 과제 내용 설계

### 1. 전략목표 : 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가치 창출

#### 1) 전략과제: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통한 역사성 확립

□ 신라왕경 핵심유적 체계적 조사연구

- (발굴조사 확대) 종합적 발굴조사 계획에 의한 체계적 조사연구 강화
  - 신라왕경의 실체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 확대와 활용 사업 병행 추진

<표 4-1> 발굴조사 대상 유적

구분	핵심유적	비고
기존 유적	경주 월성,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황룡사지	정밀발굴조사
신규 유적	낭산 일원, 미탄사지 삼층석탑, 사천왕사지 등	발굴조사

\* 발굴조사 현장 활용 사업(발굴현장 공개, 현장체험프로그램 등) 병행

- (심화 학술연구) 원형회복을 위해 역사적 고증을 위한 학술연구 강화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역사적 회복을 위한 학술 연구 사업과 활용 사업 병행 추진

□ 핵심유적지 간의 입체적·맥락적 정비 복원

- (개별 문화재가 아닌 핵심유적 간 연계된 보존관리 강화)
  - 신라왕경 역사적 회복을 위해 핵심유적 대상을 확대하여 역사적 실체의 틈새를 축소시켜 진정성과 원형보존이 확보된 역사문화 도시 조성
  - 신라왕경 공간 중심의 유적 관리 체계 추진(신라왕경법 시행령 제2조)

<표 4-2> 시행령 제2조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확장

경주월성	경주 황룡사지 일원 가. 경주 황룡사지 나. 경주 분황사지 다.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라.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경주 동궁과 월지
경주 첨성대	경주 대릉원 일원	경주 동부사적지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나. 경주 인왕동 사지 다. 경주 천관사지	경주 낭산 일원	경주 사천왕사지

- (핵심유적 역사적 골격 축 정비) 핵심유적지 간의 입체적·맥락적 연결 동선 정비 사업 추진
  - 단절된 핵심유적 간의 연결을 통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위한 장기 계획 검토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연계 골격 회복을 위한 연결도로의 단계적 정비 추진
  - \* 동해남부선 정비 방안 검토(2022~): 역사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 동궁과 월지, 사천왕사지 동해남부선 정비 사업 추진
- 원화로 정비를 통한 신라왕경 골격 회복 방안 추진 검토

<표 4-3> 원화로 정비 방안 검토

구분	검토 방안
(제1안) 원화로 지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전문가 및 지역주민 사전 의견수렴</li> <li>- 유구 확인 및 주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여부 검토 필요(현상변경허가, 발굴허가 등)</li> <li>· 유구 확인 및 보존을 위한 발굴조사 선행</li> <li>· 현재 동궁과 월지, 월성 등 주변 주요 핵심유적 복원·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발굴조사 여부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3~4개 조사기관, 4~5년 소요 예상)</li> <li>* 퇴적층이 지하 약 20~30m 깊이까지 분포(최대 30~40m까지 굴착)</li> <li>-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원화로 지하화 구간 및 연결 도로(예 팔우정삼거리~선덕네거리, 박물관네거리~배반네거리) 높이 조정사업구간 결정 또는 원화로 지하화 백지화 등 모든 가능성 열려 있음</li> </ul>
(제2안) 원화로 폐쇄, 우회도로 통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주변 주민 및 경주 일반시민 설득과정 필요</li> <li>- 우회도로 마련 등 교통체계 개선안 마련 조치 선행 전제</li> </ul>
(제3안) 현행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화로 지하화 및 우회도 마련 불가능시</li> </ul>

□ 신라왕경 핵심유적 접점지역 관리

- (신라왕경 핵심유적 내 역사문화자원의 사각지대 해소) 신라왕경 핵심유적 내 역사문화자원 체계적 관리
  - 신라왕경 핵심유적지역 내의 비지정 문화유산 관리 강화
  -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한 단계적 복원·정비
  - 신라왕경 핵심유적 내 무형 신라 문화유산 자원 현황조사 단계적 실시
- (신라왕경 핵심유적 간의 접점 공간 연계)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특성이 반영된 테마 공간 조성
  -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계 관람로, 쉼터 공간 조성

□ 신라왕경 역사문화보존모델 추진

- 보존 중심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 → 시민과 함께 핵심유적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의 패러다임 수립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프로그램 사업별 활용 연계 기반 체계 모델 적용
- 발굴조사·학술연구·보존·정비·복원 과정에서 활용 가치 창출 확산

<표 4-4> 경주 역사문화보존 경주모델

발굴조사(A) → 연구(B) → 정비(C) → 복원(D)		합용	<역사문화보존 경주모델 사업 예시>	
A	• 현장관람, 발굴체험		① A사업패키지 유형: 발굴조사+활용 경주 월성발굴조사 + 발굴현장공개	② AB사업패키지 유형: 발굴조사+학술연구+활용 구황동 원지 발굴조사 + 학술연구 + 발굴현장 공개&학술대회
AB	• 학술대회, 현장관람, 발굴체험	* 복원 · 정비 사업과 활용 사업을 병행 의무화 추진 → 경주시민과 일반국민 향유 확대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사업 성과 확산		
AC	• 현장관람, 산책, 발굴체험, 디지털 재현			
ABC	• 현장관람, 산책, 발굴체험, 학술대회, 디지털 재현			
ABCD	• 현장관람, 산책, 발굴체험, 학술대회, 디지털 복원			
BC	• 학술대회, 디지털 재현, 산책			
BCD	• 학술대회, 디지털 복원, 산책			

## 2. 전략목표 : 미래형 역사문화자원 보존 · 활용 시스템 구축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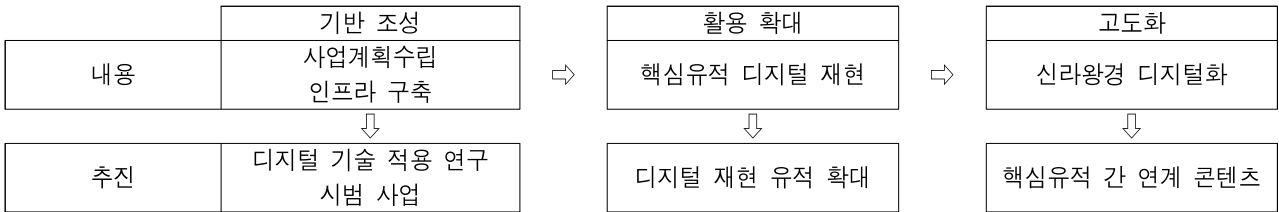
### 1) 전략과제: 첨단과학을 활용한 신라왕경 역사문화 보존관리 및 서비스 제공

□ 신라왕경 핵심유적 디지털 복원(재현) 활용 서비스 확대

- (디지털 복원 재현 확대) 고증을 통한 복원의 가변성을 확보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활용 유용성을 확대함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 정비의 사업 여건을 감안하여 핵심유적 고증 결과를 유연하게 반영하는 디지털 재현 및 복원 추진
  - 점 단위의 유적 디지털 복원에서 역사도시 공간 차원으로 단계별 확대 추진
- (미래형 문화유산 체험관 건립 추진) 3차원 입체영상 홀로그램을 활용하여 핵심유적을 실물처럼 재현하는 콘텐츠 개발 추진 → 별도의 장비없이 사람의 시각 차를 이용해 실물 영상과 스토리 제공
  - 4D 및 홀로그램 체험관 건립 단계적 추진
  - 4D 및 홀로그램 체험관 스토리 콘텐츠 개발
    - \* 황룡사 9층 목탑 홀로그램과 연계 스토리 콘텐츠 개발
    - \*\* (해외사례) 미국 아브라함 링컨 박물관(Abraham Lincol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 ‘링컨 홀로그램’과 ‘게티스버그 전투’의 전투현장 홀로그램 연계한 스토리 콘텐츠 제공 → 역사적 스토리를 통한 관람객의 몰입감 향상
- (온택트 서비스 확대)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
  -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디지털 복원을 통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신라역사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제공 강화
    - \* 핵심유적 디지털 체험 서비스 확대 : 월성운영시설 내 전시관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 추진(2022년~), 동궁과 월지 홍보영상관 디지털 콘텐츠 개발 추진(2021년~), 대릉원 일원 고분정보센터 증강현실(AR) 서비스 제공 추진, 황룡사 중문 증강현실(AR) 체험시설 건립 추진

<표 4-5> 디지털 신라왕경 사업단계



- 신라왕경 핵심유적 XR 재현 사업 확대 추진 : 핵심유적 실감형 콘텐츠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추진
  - \* (가상현실 VR) 대릉원, 동궁과 월지, 월성, 분황사, 첨성대, 황룡사 디지털 관람 콘텐츠 제공 → 특정 지역과 경로를 온라인 통해 체험 가능함 → 핵심유적 확대 및 실감기술 강화 추진
  - \*\* (360 VR 가상여행 콘텐츠) 경주 대릉원, 경주 월성교, 경주 동궁과 월지, 경주 분황사 유튜브 콘텐츠 제공 → 핵심유적 확대 및 실감 기술 강화 추진
- 신라왕경 핵심유적 간 연계 관람 콘텐츠 개발 추진
  - \* (핵심유적 관람 안내 콘텐츠) 핵심유적 내 관람과 핵심유적 간 이동 안내 콘텐츠 개발 추진
  - \* (국내 사례) ‘창덕 ARirang’ 서비스 : 문화재청(창덕궁관리소 장소와 시설 사용제공 및 역사고증), SK 텔레콤(5G 정보통신 기술기반의 기획과 가이드앱 개발), 구글코리아(AR 기술적용)협업을 통해 5G 이동통신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기술을 활용한 증강현실 구현

□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핵심유적 관리체계 강화

- (안전관리 고도화) 딥러닝,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핵심유적 안전 관리
  -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침입 감시 시스템 구축
    - \* 드론을 활용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문화유산의 안전관리 개선(낭산 일원, 사천왕사지, 천관사지)
  - 코로나19 이후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람 안전 관리 → 방재 및 안전인력 확대 배치
  - 신라왕경 핵심유적 훼손 방지 안전 관리 기능 개선
- (사전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문화재 안전 관리 방안
  - 핵심유적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과 주변 정비 강화
    - \* 월성해자 및 동궁과 월지 수질 개선, 수질 정화기술 개발, 수질 주기적 측정 관리

3. 전략목표 : 국민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문화 보존

1) 전략과제: 국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라왕경

- 국민,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 (신라왕경 핵심유적 활용사업 시민 참여 확대) 신라왕경 핵심유적 지역 거주민 중심의 활용 프로그램 추진
  - 신라왕경 핵심유적 문화재 보호 활동 시민 참여 확대
    - \* 핵심유적 시민 후원 협력사업 발굴 추진 → 1인 1유적 서포터 운동 단계적 추진
    - \*\* 핵심유적 문화재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 시민 관심도 제고(문화재 구역 위치, 범위 정보 등 자료 제공)
    - \*\*\*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과 연계 추진 검토(학교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연계)
  - (사회배려 계층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시민참여 활용 콘텐츠 육성) 시민 참여형 핵심유적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지원 확대
    - \* 핵심유적 관련 역사 스토리 창작 콘텐츠 콘테스트 추진
    - \*\*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신라왕경 핵심유적 이미지 →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경주시 관광자원 영상이미지 제공하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제작 상의 저작권 지원 사업 추진(신라 문화 상징물, 신라 관련 고취대 및 신라대종 소리 등의 음악 및 음원에 대한 공공저작물 제공 사업 확대 추진)
- (민관 거버넌스 강화) 민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네트워크 구축
  - \* 문화재 전문연구기관·학계·학교 등 산·학·연 협업 추진
  - \*\*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교류 강화
- (복원·정비 현장 교육 활용) 역사문화공간으로 복원·정비하여 교육의 장 활용

□ 신라왕경 핵심유적 대표 활용 프로그램 육성

-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계 스토리 개발)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스토리 기반 대표 방문 코스 개발
  - 신라왕경 핵심유적 스토리 기반 방문 코스 개발
    - \* 신라문화재 콘텐츠 스토리 공모 확대(경주시)
    - \*\* 핵심유적 관련 신라 제왕·위인·문화·역사 스토리 개발 및 활용 프로그램 육성 지원
  - 핵심유적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육성
    - \* 가치향유 프로그램(역사적 사건 재현행사 전시)과 가치 확산프로그램(강연, 둘레길 투어 등)을 다양하게 구성
    - \*\* 특별공연 및 이벤트 개최 → 핵심유적 간의 연계된 이벤트 추진
- (핵심 유적별 활용 프로그램 개발) 유적별 특색있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확대하여 유적지별 활용 프로그램 격차 해소
  - (신규 프로그램) 신규 핵심 유적지 활용 프로그램 신설 추진 (7개소)
  - (기존 프로그램) 핵심유적지 활용 프로그램 확대 시행
    - \*\* 동부사적지 꽃단지 조성 사업, 경주문화재야행(첨성대, 계림, 월성, 월정교) 등
- (신라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확대) 유적별 특색있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확대, 신라왕경의 역사적 회복

- (발굴현장 공개 확대) 발굴 현장 공개 확대하고 체험형 교육자원 활용
- (대민 직접 체험 프로그램 확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향유 콘텐츠 제공 확대
- 지역 축제(신라문화제, 경주시민의 날)와 연계한 대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추진

#### 4. 전략목표 : 세계유산의 책임있는 보존 및 활용

##### 1) 전략과제: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복원 · 정비 기본 정립 및 역사문화자원 브랜드화

###### □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 확보

- (온전한 세계유산 보수 정비)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고증과 시대별 특성을 반영한 세계유산의 보수정비
  - 경주역사유적지구 내 핵심유적 복원 · 정비 사업은 세계유산 관리 체계에 부합하도록 추진
  - 월성, 동궁과 월지, 황룡사지, 분황사 석탑, 첨성대, 경주 대릉원 일원, 동부사적지대 등의 복원 · 정비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 이행 후 정합성 확보
- (세계유산 관리 전문성 확보) 전문성을 가진 세계유산 관리 인력 확보
  - 경상북도경주시는 책임있는 세계유산 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보강 필요
  -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 유지
- (세계유산 협약 이행) 세계유산 관리 국제기준 이행 및 세계유산법 제정에 따른 제도 정비
  - 세계유산영향평가(HIA) 권고 이행
    - \* (문화재청) 세계유산 보존 관리 활용 종합계획 수립 결과 연계 검토 이행
    - \*\* (문화재청 추진방향)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 속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별행위(개발사업)가 미치는 영향 및 사업변경안, 기타 저감 방안을 전문연구팀이 작성한 각 사업 건별 별도 보고서를 통해 도출하여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 (지자체) 최초 사업계획안 작성, 세계유산영향평가 조사지역 및 과업범위 협의
  - 세계유산 모니터링 이행 (~2021년 5월)
- (세계유산 조사연구 체계적 추진 및 기록화 강화) 세계유산 고증을 위한 기록화 사업 추진
  - 세계유산 조사연구 및 정비복원 관련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추진
  - (고증 연구 체계적 추진)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고증연구 체계적 추진
  - 고증 기반 단계적 정비 사업 추진 방안 검토

###### □ 세계유산 자원 브랜드화 기반 구축

- (신라왕경 핵심유적 대표 사업의 세계유산 브랜드화) 세계유산의 인지도 향상과 국민 자긍심 향상을 위해 경쟁력 있는 대표 사업 개발
  - 국제적 홍보 강화 추진 \* 외국인 대상 대표 사업 모니터링 지속적 실시

■ (품격 높은 관람 서비스 제공)

- 문화유산 해설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유적 별 보수교육 추진(신규 핵심유적 교육내용 범위 확대)
- 고품질 안내 길잡이 발간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확대 → 디자인과 정보(유적 및 운영프로그램, 지도, 음식점, 숙박 정보 등)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제공
- 외국인 대상 홍보물(리플릿) 언어권 다변화 추진(신규 핵심유적 홍보 확대)

■ (편의시설 확충) 유적 관람 편의시설 개선

- 핵심유적 관람 시 일방통행 및 통행체계 제도 검토
- 알기 쉽고 재미있는 문화재 안내판으로 정비하여 관람 편의 제공
  - \* 안내문안 작성과정 국민 참여 → 안내문안 국민 감수체계 지속 운영
- (무장애 관람 공간) 핵심유적 내 물리적 장애물이 없는 문화재 관람 환경 조성

## 제3절 재원 투입계획 수립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의 사업예산을 140,415백만원으로 설계함
- 전체 핵심유적에서 발굴조사 22사업, 학술연구 70사업, 정비 40사업, 복원 16사업, 활용 82사업이 설계되었고, 유적별 사업비는 다음 <표 4-6>과 같음

<표4-6> 재원 투입계획

핵심 유적명	발굴조사	학술연구	정비	복원	활용	사업비(백만원)
경주 월성	1	11	4	1	5	16,530
경주 황룡사지	1	5	4	2	3	11,770
경주 분황사지	0	7	2	0	5	3,400
경주 구항동 원지 유적 일원	0	3	3	0	5	3,500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1	2	2	0	7	6,450
경주 동궁과 월지 (신라왕경 방)	2	9	4	1	10	11,900
	2	2	2	1	4	4,950
경주 첨성대	0	2	0	0	2	1,198
경주 대릉원 일원 (쪽샘지구)	2	3	3	1	5	15,647
	3	7	3	1	4	14,000
경주 동부 사적지대	1	4	1	5	2	2,598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2	2	3	0	7	10,702
경주 인왕동 사지	1	3	1	2	7	7,380
경주 천관사지	1	2	1	0	5	3,150
경주 낭산 일원	3	5	5	0	8	19,920
경주 사천왕사지	2	3	3	2	3	7,320
합계						<b>140,415</b>

- 상기 예산 내역은 종합계획 수립 시점('21~'23년)에서 투입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연도별 세부예산내역은 매년 유적별 보존관리상황을 감안하여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예산 신청 및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이 일단락되는 '25년 시점에서 그간의 복원·정비 성과와 제반 정책환경을 감안하여 검토할 계획임

## 제4절 전략 과제 이행 로드맵 수립

-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과제, 과제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여 추진
  - 매년 시행계획의 투자방향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환경변화와 국민 수요 등을 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정기적으로 보완(5년 단위)

추진 계획

<표 4-7> 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가치 창출의 추진계획

전략 1	추진계획				
	'21	'22	'23	'24	'25
<b>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가치 창출</b>					
<b>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통한 역사성 확립</b>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체계적 조사연구					
② 핵심유적지간의 입체적·맥락적 정비 복원					
③ 신라왕경 핵심유적 접점지역 관리					
④ 신라왕경 역사문화보존모델 추진					

<표4-8> 미래형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시스템 구축 강화의 추진계획

전략 2	추진계획				
	'21	'22	'23	'24	'25
<b>미래형 역사문화자원 보존·활용 시스템 구축 강화</b>					
<b>첨단과학을 활용한 신라왕경 역사문화 보존관리 및 서비스 제공</b>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디지털 복원(재현) 활용 서비스 확대					
②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핵심유적 관리체계 강화					

<표 4-9> 국민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문화 보존의 추진계획

전략 3	추진계획				
	'21	'22	'23	'24	'25
<b>국민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문화 보존</b>					
<b>국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라왕경</b>					
① 국민,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대표 활용 프로그램 육성					

<표 4-10> 세계유산의 책임있는 보존 및 활용의 추진계획

전략 4	추진계획				
	'21	'22	'23	'24	'25
<b>세계유산의 책임있는 보존 및 활용</b>					
<b>지속가능한 세계유산 정비복원 기준 정립 및 역사문화자원 브랜드화</b>					
①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 확보					
② 세계유산 자원 브랜드화 기반 구축					



<표4-11> 경주 월성 세부 이행과제 및 로드맵

구분	단기					중기	장기
	21	22	23	24	25		
발굴	월성 내부(성벽·문지·건물터 등) 정밀발굴조사(신라~통일신라시대 문화층 조사)						
연구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월성(왕궁) 복원 연구(해자, 성벽, 수목, 지형, 문지 등)						
	목간·문자자료 연구						
	월성 경관(환경지형) 복원 연구						
	월성 출토 나무재료 기록화/복원/실험 연구						
	건물지 성격, 생활사, 건축 계획·구조·의장, 기타 연구						
	사람뼈 분석 연구						
	동물 고DNA연구						
	발굴조사 디지털기록화 사업						
	월성 연대기 수립 절대연대측정 연구						
정비	성벽 축조공법 복원 연구						
	해자, 수목, 지형 복원·정비						
	문지, 주변 성벽 정비(동, 서, 북문지 등)					문지, 성벽, 내부 핵심 건물 설계 및 정비	
	유구보존·정비 실험 연구						
복원	주변시설 정비						
	월성 디지털 재현						
활용	월성발굴조사 운영시설건립						
	월성 발굴조사 및 심화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관람편의·안전·방재시설 정비						
	발굴현장 활용프로그램 운영(발굴현장 공개 행사, 테마해설, 고고학 축제 등)						
	현장중심 문화유산 교육 활용 (찾아가는 월성이랑 등)						

## 2. 경주 황룡사지

- 사업추진 방향 : 신라왕경의 최대 불교 사찰의 고증 및 연구를 토대로 복원·정비 사업 추진
-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통한 역사성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 (발굴)황룡사 회랑 외곽 발굴조사('21~)
  - (연구)황룡사 발굴조사보고서 발간('21~)
  - (연구)황룡사 중금당 고증 심화연구('21~'24)
  - (연구)주요 건물 고증 심화연구('25~)
  - (연구)황룡사 회랑내곽 기반정비 연구('21~)
- 첨단과학을 활용한 신라왕경 역사문화 보존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사업
  - (연구)황룡사 복원 콘텐츠 연구('21~)
  - (복원)황룡사 디지털 재현('21~)
  - (복원)황룡사 중금당 디지털 복원 콘텐츠 제작('23~)
  - (활용)중문 및 남회랑 등 황룡사 AR 서비스('21~)
- 국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라왕경을 위한 세부 사업
  - (활용)황룡사역사문화관 전시 및 홍보('21~)
  - (활용)황룡사 발굴체험, 역사교육('21~)
-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복원·정비 기준 정립 및 역사문화자원 브랜드화를 위한 세부사업



- (정비)황룡사 진입부 기단정비('21)
- (정비)황룡사 회랑내곽 기단정비('22)
- (정비)사역외 주변정비(방리제 도로, 조경)('21~'25)
- (정비)회랑외곽 정비 및 남문 등 출입시설 정비(남, 동, 북편)('21~'27)

<표 4-12> 경주 황룡사지 세부 이행과제 및 로드맵

구분	단기					중기	장기	
	21	22	23	24	25			
발굴	황룡사 회랑 외곽 발굴조사							
연구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황룡사 중금당 고증 심화연구			주요 건물 고증 심화연구				
	회랑내곽 기단정비 연구				회랑외곽 정비연구			
	황룡사 복원 콘텐츠 연구							
정비	진입부 기단정비	회랑내곽 기단정비						
	사역 외 주변(방리제 도로, 조경, 관람편의시설 등) 정비							
	회랑외곽 정비 및 남문 등 출입시설 정비(남, 동, 북편)							
복원	황룡사 중금당 디지털 복원 콘텐츠 제작							
활용	황룡사 디지털 재현 사업							
	황룡사역사문화관 전시 및 홍보							
	중문 및 남회랑 등 황룡사 AR 서비스 황룡사 발굴체험, 역사교육							

### 3. 경주 분황사지

- 사업추진 방향 : 황룡사, 미탄사지와 함께 신라를 대표하는 사찰벨트 조성
- 분황사와 관련이 깊은 원효대사와 자장대사의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한 활용 방안 모색
-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통한 역사성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 (발굴)보광전 하부 발굴조사(중기)
  - (발굴)분황사 서편도로 건너편 발굴조사(장기)
  - (연구)발굴조사보고서 발간(중 · 장기)
  - (연구)석탑부재 산지연구('22)
  - (연구)분황사 출토 석불상 심화연구('23)
  - (연구)분황사 가람복원연구('23)
  - (연구)모전석탑 원형연구('23~'25)
  - (연구)분황사 주변 고지형 심화연구('24)
  - (연구)분황사 내 우물연구(중기)
  - (연구)문지 · 회랑 심화연구('25)
  - (연구)창진금당지 심화연구(중기)
- 첨단과학을 활용한 신라왕경 역사문화 보존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사업
  - (연구)모전석탑 구조안정연구('22)
  - (연구)모전석탑 VR 복원연구(중기)
  - (활용)모전석탑 VR 시연(중기)
- 국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라왕경을 위한 세부 사업
  - (활용)분황사지 복원 · 정비 학술대회 개최('21)
  - (활용)분황사(원효, 석탑 등) 스토리텔링 개발('21~)

- (활용)원효 문화제 개최('21~)
- (활용)관람편의·안전·방재시설 정비('22~)
- (활용)황룡사지 일원(황룡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미탄사지 삼층석탑) 연계 관광코스 개발('22~)
- (활용)발굴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중기)
- (활용)야외 석물전시관 개관(중기)
- (활용)분황사·구황동 원지 전시실 건립(장기)

□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복원·정비 기준 정립 및 역사문화자원 브랜드화를 위한 세부사업

- (정비)분황사지 종합정비계획 및 실시설계('21~'22)
- (정비)분황사지 주변정비('23~'25)
- (정비)보광전 이전(중기)
- (정비)창건금당지, 강당지, 회랑지, 문지 정비(중기)
- (복원)석축배수로, 담장 복원(중기)
- (복원)창건금당지, 강당지, 동서회랑지, 문지, 복원(장기)
- (복원)모전석탑 원형복원(장기)

<표 4-13> 경주 분황사지 세부 이행과제 및 로드맵

구분	단기					중기	장기	
	21	22	23	24	25			
발굴						보광전 하부 발굴조사	분황사 서편도로 건너편 발굴조사	
연구	모전석탑 구조안정연구		모전석탑 원형연구			보광전 하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분황사 서편도로 건너편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석탑부재 산지연구					모전석탑 VR 복원연구		
			분황사 출토 석물상 심화연구					
			분황사 가람 복원 연구	분황사 주변 고지형 심화연구		분황사 내 우물 연구		
					문지·회랑 심화연구	창건금당지 심화연구		
정비	종합정비 계획 수립	실시설계	주변정비			보광전 이전		
복원						석축배수로, 담장 복원	모전석탑 원형복원	
							창건금당지, 강당지, 동서회랑지, 문지, 복원	
활용	분황사(원효, 석탑, 우물 등) 스트리텔링 개발							
	원효 문화제 개최							
	황룡사지 일원(황룡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미탄사지 삼층석탑) 연계 관광코스 개발							
	복원·정비 학술대회						발굴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	
						관람편의·안전·방재시설 정비		
					야외 석물전시관 개관	분황사·구황동 원지 전시실 건립		
					모전석탑 VR 시연			

#### 4.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 사업추진 방향 : 구황동 원지 성격 규명을 위한 비교 및 심화연구
-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통한 역사성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 (연구)경주지역 원지 심화연구('22~'23)
- (연구)분황사 주변 고지형 심화연구('24)
- (연구)원지 식생·경관 심화연구('25)
- (연구)양부(梁部)경계와 원지 관계 심화연구(중기)

□ 국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라왕경을 위한 세부 사업

- (활용)구황동 원지 복원·정비 학술대회 개최('21)
- (활용)구황동 원지 스토리텔링 개발('22~)
- (활용)황룡사지 일원(황룡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미탄사지 삼층석탑) 연계 관광코스 개발('22~)
- (활용)관람편의·안전·방재시설 정비('21~)
- (활용)정비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23~'25)
- (활용)분황사·구황동 원지 전시실 건립(장기)

□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복원·정비 기준 정립 및 역사문화자원 브랜드화를 위한 세부사업

- (정비)종합정비계획 수립('21)
- (정비)실시설계('22)
- (정비)원지 정비('23~'25)

<표 4-14>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세부 이행과제 및 로드맵

구분	단기					중기	장기	
	21	22	23	24	25			
연구		경주지역 원지 심화연구		분황사 주변 고지형 심화연구	원지 식생·경관 심화연구	양부(梁部)경계와 원지 관계 심화연구		
정비	종합정비계획수립	실시설계	원지 정비					
활용	복원·정비 학술대회							
	구황동 원지 스토리텔링 개발							
	황룡사지 일원(황룡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미탄사지 삼층석탑) 연계 관광코스 개발							
	관람편의·안전·방재시설 정비							
				정비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				
							분황사·구황동 원지 전시실건립	

## 5.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 사업추진 방향 : 미탄사지의 전체적인 경역 및 공간 구성 확인

□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통한 역사성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 (발굴)미탄사지 발굴조사('21~'25)
- (발굴)미탄사지 회랑 외곽 발굴조사(중·장기)
- (연구)발굴조사보고서 발간('21~)
- (연구)미탄사지 석탑 조형 심화연구('24~'25)
- (연구)미탄사와 신라왕경 방 연구(중기)

□ 국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라왕경을 위한 세부 사업

- (활용)발굴조사 현장체험 및 교육활동('21~'25)
- (활용)정비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22~'25)

- (활용)미탄사지 학술대회 개최('22, '25)
  - (활용)황룡사지 일원(황룡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미탄사지 삼층석탑) 연계 관광코스 개발('22~)
  - (활용)관람편의·안전·방재시설 정비('25~)      ■ (활용)미탄사지 스토리텔링 개발('25~)
-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복원·정비 기준 정립 및 역사문화자원 브랜드화를 위한 세부사업
- (정비)기본정비계획 수립('21)      ■ (정비)건물지 정비('22~'25)

<표 4-15>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세부 이행과제 및 로드맵

구분	단기					중기	장기
	21	22	23	24	25		
발굴	미탄사지 발굴조사					미탄사지 회랑 외곽 발굴조사	
연구	미탄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미탄사지 회랑 외곽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미탄사지 석탑 조형 심화연구		미탄사와 신라왕경 방 연구	
정비	기본정비계획 수립	건물지 정비					
활용	발굴조사 현장체험 및 교육활동						
	정비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						
	황룡사지 일원(황룡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미탄사지 삼층석탑) 연계 관광코스 개발						
	미탄사지 학술대회 개최					미탄사지 학술대회 개최	
						미탄사지 스토리텔링 개발	
						관람편의·안전·방재시설 정비	

## 6. 경주 동궁과 월지

- 사업추진 방향 : 월성과 통합된 왕성 권역으로 입체적·맥락적 경관 정비 사업 추진
-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통한 역사성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 (발굴)월지 서편 건물터 및 동편 남편 남서편 발굴조사('21~)      ■ (발굴)신라왕경 방 발굴조사('22~)
  - (발굴)지층레이더 탐사('21~'22)      ■ (연구)발굴조사보고서 발간('22~)
  - (연구)동궁과 월지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수립('20~'21)      ■ (연구)동궁과 월지 유적 보존·정비계획 수립 연구('22~'25)
  - (연구)신라왕경 방 정비 활용 기본계획 수립('21)      ■ (연구)신라왕경 건물지 유형화 분석 연구('21~'22)
  - (연구)신라왕경 도시기반시설 분석 연구('23~'25)      ■ (연구)신라왕경 출토유물 제작 및 유통 연구(중기)
  - (연구)동궁과 월지 퇴적환경 분석('21~'22)      ■ (연구)신라왕경 퇴적 층위별 유구·유물 자료 집성('21~'24)
  - (연구)동궁과 월지 활용방안 연구(중기)      ■ (정비)신라왕경 방 토지매입('21)
  - (정비)신라왕경 방 정비 실시설계('21~'22)      ■ (정비)신라왕경 방 종합 정비 사업('22~)
- 첨단과학을 활용한 신라왕경 역사문화 보존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사업
- (복원)동궁과 월지 서편 건물지 디지털 재현(~'25)      ■ (활용)동궁과 월지 관람 콘텐츠 개발('20~)
  - (복원)동궁과 월지 디지털 복원 사업(중기)      ■ (복원)신라왕경 방 디지털 재현 사업('22~)



## 7. 경주 첨성대

- 사업추진 방향 : 첨성대의 학술적 고증 연구를 통한 진정성 및 가치 확인
-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통한 역사성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 (연구)첨성대와 주변 문화재 연계 학술연구('22~'25)
  - (연구)첨성대 성격 연구('24~'25)
  - (연구)심화연구(중·장기)
- 국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라왕경을 위한 세부 사업
  - (활용)주변 요소 연계 스토리텔링 개발('21~)
  - (활용)관람편의·안전·방재시설 정비('21~)

<표 4-17> 경주 첨성대 세부 이행과제 및 로드맵

구분	단기				중기	장기
	21	22	23	24		
연구	첨성대와 주변 문화재 연계 학술연구				심화연구	
활용	주변 요소 연계 스토리텔링 개발				관람편의·안전·방재시설 정비	

## 8. 경주 대릉원 일원

- 사업추진 방향 : 신라왕경과 고분유적의 역사적 실체 고증, 훼손된 신라고분의 복원·정비를 통한 고분 경관 재현
- 신라왕경을 상징하는 지배계층의 대형고분과 출토 유물을 활용, 도로 등으로 단절된 유적의 원형 회복을 위한 장기 사업 구상
-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통한 역사성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 (발굴)쪽샘 44호 발굴조사(매장주체부 등)('21~'22)
  - (발굴)경주지역 주요 신라고분 발굴조사('21~)
  - (발굴)식리총 재발굴('22~'24)
  - (발굴)검총 재발굴(장기)
  - (연구)미발굴 대형고분 발굴 기초연구(~'21)
  - (연구)쪽샘지구 신라고분 입지 분석('21~'22)
  - (연구)쪽샘 주요 출토유물(C10호 찰갑 등) 심화연구('21~'25)
  - (연구)신라고분 형성 및 전개과정 연구('23~'25)
  - (발굴)쪽샘지구 분포조사('21~)
  - (발굴)황남동 120호분 및 미발굴 대형고분 발굴조사('21~'25)
  - (발굴)황남동 소형고분군 재발굴(중기)
  - (연구)발굴조사보고서 발간('21~)
  - (연구)황남대총 자료집 발간('21~'22)
  - (연구)쪽샘지구 정비·활용 방안 연구('21~'22)
  - (연구)대형고분 조사 발굴 심화연구('22~'25)
  - (연구)금령총, 식리총 일대 종합정비복원 연구(중기)
- 첨단과학을 활용한 신라왕경 역사문화 보존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사업
  - (연구)경주일대 신라고분 DB구축연구('21~중기)
  - (복원)재발굴 대형고분 디지털 재현('22~'25)
  - (복원)신라고분 디지털 재현(중기)

□ 국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라왕경을 위한 세부 사업

- (활용)쪽샘유적발굴관 상시 공개 운영(44호 적석목곽묘 해설 및 활용 프로그램 운영)(’21~)
- (활용)홍보물 제작 배포(’21~)
- (활용)학계/시민사회 조사성과 공개, 활용(’21~)
- (활용)미발굴·재발굴 대형고분 발굴현장 공개 및 전시(’21~)
- (활용)금관총 유구보존시설 및 고분정보센터 운영(’22~)
- (활용)서봉총 특별전 개최(’21)
- (활용)금령총 학술대회·특별전 개최(’22)
- (활용)동해남부선 활용사업(’22~)
- (활용)미발굴 대형고분 유적지 전시 및 활용(중기)

□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복원·정비 기준 정립 및 역사문화자원 브랜드화를 위한 세부사업

- (정비)노동·노서동 고분군, 황남동 120호분 일원 기본정비·활용계획 수립(’21~’22)
- (정비)차도 폐지 및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21~’25)
- (복원)봉분복원(~’22)
- (정비)동해 남부선 정비 사업(’22~)
- (정비)미발굴 대형고분에 대한 정비 구상(’23~’25)
- (정비)토지매입(’21~’25)
- (정비)가로정비(중기)
- (정비)대릉원 후문 이전 설치(중기)
- (정비)금령총, 식리총 일대 종합정비(중·장기)

<표 4-18> 경주 대릉원 일원 세부 이행과제 및 로드맵

구분	단기					중기	장기
	21	22	23	24	25		
발굴	쪽샘 44호분 발굴조사						
	황남동 120호분 및 미발굴 대형고분 발굴조사						
	쪽샘지구 분포조사						
	경주지역 주요 신라고분 발굴조사						
	식리총 재발굴					황남동 소형 고분군 재발굴	검총 재발굴
연구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황남대총 자료집 발간						
	쪽샘지구 신라고분 입지분석		신라고분 형성 및 전개과정 연구				
	쪽샘 중요 출토유물(C1호 찰갑 등) 심화연구						
	경주일대 신라고분 DB구축 연구						
	미발굴 대형고분 발굴 기초연구	대형고분 조사 발굴 심화연구					
						금령총, 식리총 일대 종합정복원 연구	
정비	쪽샘지구 정비·활용 방안 연구						
	노동·노서동 고분군, 황남동 120호분 일원 기본정비·활용 계획 수립		미발굴 대형고분에 대한 정비구상			금령총, 식리총 일대 종합정비	
	차도 폐지 및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가로정비	
	동해 남부선 정비 사업						
복원	토지매입					대릉원 후문 이전설치	
	봉분복원		재발굴 대형고분 디지털 재현			신라고분 디지털 재현	
활용	금관총 유구보존시설 및 고분정보센터 개관 및 운영						
	쪽샘유적발굴관 상시 공개 운영(44호 적석목곽묘 해설 및 활용프로그램 운영)						
	학계/시민사회 조사성과 공개, 활용						
	홍보물 제작 배포						
	동해남부선 활용						
	재발굴 대형고분 공개 및 전시					재발굴 대형고분 공개 및 전시	
미발굴 대형고분 발굴현장 공개 및 전시					미발굴 대형고분 유적 전시 및 활용		
서봉총 특별전 개최	금령총학술대회, 특별전 개최						

## 9. 경주 동부사적지대

- 사업추진 방향 : 월성과 첨성대로 연결되는 공간적 구조 확인
- 신라왕경의 구심점인 월성(왕궁)과의 연계 공간을 입체적·맥락적으로 가시화
- 장기적으로 월성, 동궁과 월지, 고분군 연결로 정비
- 월성의 동선과 연계되는 유적지대로 월성과의 관계를 고증하는 연구
-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통한 역사성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 (발굴)발천 발굴조사(~'21)
  - (연구)발천 복원정비를 위한 연구('21)
  - (연구)첨성대 및 주변 문화재 연계 학술연구('22~'25)
  - (연구)심화연구(중기)
  - (발굴)동부사적지대 내 발굴조사(중·장기)
  - (연구)발천 발굴조사보고서 발간('22~'23)
  - (연구)발천경계의 생활권 성격규명 연구('24~'25)
- 첨단과학을 활용한 신라왕경 역사문화 보존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사업
  - (복원)석교 디지털 재현('22~'25)
- 국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라왕경을 위한 세부 사업
  - (활용)발천 복원·정비를 위한 학술대회('21)
  - (활용)현장중심 문화유산교육의 장('21~)
-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복원·정비 기준 정립 및 역사문화자원 브랜드화를 위한 세부사업
  - (정비)동부사적지대 종합정비계획 수립('21)
  - (복원)발천 내 석교·수로 실시설계('22)
  - (복원)발천 내 석교·수로 복원('23~'25)

<표 4-19> 경주 동부사적지대 세부 이행과제 및 로드맵

구분	단기					중기	장기	
	21	22	23	24	25			
발굴	발천발굴조사					동부사적지대 내 발굴조사		
연구	발천복원·정비연구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첨성대 및 주변문화재와 연계 학술 연구				심화연구			
	발천 경계의 생활권 성격 규명 연구							
정비	동부사적지대 종합정비계획 수립							
복원	실시설계		수로복원					
	실시설계		석교복원					
	석교 디지털 재현(디지털 신라왕경 연계)							
활용	발천복원정비 학술대회							
	현장중심 문화유산교육의 장							



### 10.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 사업추진 방향 : 신라 궁성과 남산의 연결통로로 신라왕경의 공간적 연계성 고증 추진
- 장기적으로 도당산, 인왕동 사지, 남천 수변환경 정비와 연계
-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통한 역사성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 (발굴)춘양교지 동편 교대지 및 석축, 옛길 확인, 편의시설 부지 발굴조사('21~'23)
  - (발굴)춘양교지 서편 교대지 및 옛길 확인, 우회도로 주변부 발굴조사('23~'25)
  - (연구)춘양교지 교각·교대·석축 연구('21~'23)
  - (연구)춘양교지 동편 교대지·옛길·생활문화, 활용 연구('21~'23)
  - (정비)춘양교지 동편 석축 영역 정비('25~)      ■ (정비)춘양교지 주변 토지매입('21~'25)
  - (정비)춘양교 및 옛길 정비(중기)
- 첨단과학을 활용한 신라왕경 역사문화 보존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사업
  - (활용)춘양교지 디지털 재현('23~)                      ■ (활용)복원 과정 영상 홍보 사업(계속)
- 국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라왕경을 위한 세부 사업
  - (활용)월정교 전면 개방 사업(계속)                      ■ (활용)출토 유구 전시 사업(계속)
  - (활용)각종 문화 행사, 지역 축제 사업(계속)      ■ (활용)관람편의, 안전, 방재시설 정비('23~)
  - (활용)주변 연계 스토리텔링 개발 및 관광자원화('23~)

**<표 4-20>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세부 이행과제 및 로드맵**

구분	단기					중기	장기
	21	22	23	24	25		
발굴	춘양교지 동편 교대지 및 석축, 옛길, 편의시설 부지 발굴조사						
			춘양교지 서편 교대지, 옛길, 우회도로 주변부 발굴조사				
연구	춘양교지 교각, 교대, 석축 연구						
			춘양교지 동편 교대지, 옛길, 생활문화, 활용연구				
정비	토지매입						
				춘양교지 동편 석축 정비			
				춘양교 및 옛길 정비			
활용	월정교 전면 개방 사업						
	춘양교지 디지털 재현						
	복원 과정 영상 홍보 사업						
	출토 유구 전시 사업						
	각종 문화 행사, 지역축제 사업						
	관람편의, 안전, 방재시설 정비						
	주변 연계 스토리텔링 개발 및 관광자원화						

### 11. 경주 인왕동 사지

- 사업추진 방향 : 월성과의 관련성 확인을 위한 심화연구 및 주변 시설물과의 관계 파악

□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통한 역사성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 (발굴)연지 남편 발굴조사('23~'25)
- (연구)팔부중상 심화연구('23)
- (연구)십자형 건물지 심화연구('25)
- (연구)출토유물 심화연구(장기)
- (복원)석탑 복원('21~'23)
- (복원)금당지, 강당지 등 복원(장기)
- (발굴)강당지 북편 발굴조사(중기)
- (연구)와적 기단 심화연구('24)
- (연구)금당지 구조 심화연구(중기)
- (정비)금당지, 강당지 등 정비(중기)
- (복원)연지·우물 복원('24~'25)
- (정비)인왕동 사지 주변 토지매입('21~'25)

□ 국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라왕경을 위한 세부 사업

- (활용)관람편의·안전·방재시설 정비('21~)
- (활용)정비·발굴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21~)
- (활용)인왕동사지 스토리텔링 개발('22~)
- (활용)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인왕동 사지, 천관사지) 연계 관광코스 개발('22~)

<표 4-21> 경주 인왕동 사지 세부 이행과제 및 로드맵

구분	단기					중기	장기
	21	22	23	24	25		
발굴			연지 남편 발굴조사			강당지 북편 발굴조사	
연구			팔부중상 심화연구	와적 기단 심화연구	십자형건물지 심화연구	금당지 구조 심화연구	출토유물 심화연구
정비	토지매입					금당지, 강당지 등 정비	
복원	석탑 복원		연지·우물 복원				금당지, 강당지 등 복원
활용		석탑관련 학술대회개최		인왕동사지 건물지 학술대회 개최			
		인왕동사지 스토리텔링 개발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인왕동 사지, 천관사지) 연계 관광코스 개발					
		관람편의·안전·방재시설 정비					
	정비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		발굴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			정비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	

## 12. 경주 천관사지

- 사업추진 방향 : 전체적인 사역 확인 및 주변 시설과의 관계 확인
- 김유신과 천관과의 설화를 스토리텔링 개발하여 활용방안 모색
-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통한 역사성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 (발굴)연지 및 주변영역, 사역 북동측 발굴조사('23~'25)
- (발굴)천관사지 회랑외곽 발굴조사(중기)
- (연구)발굴조사보고서 발간('25~)
- (복원)연지복원(중기)
- (복원)강당지 복원(장기)
- (연구)강당지 복원 심화연구('23~'24)
- (정비)건물제·2·3·6 석등, 석주, 우물, 담장 정비('21~'22)
- (복원)강당지 복원설계(중기)

□ 국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라왕경을 위한 세부 사업

- (활용)천관사지(김유신, 천관, 원성왕 등) 스토리텔링 개발('22~)
- (활용)정비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21~'22)
- (활용)신라탐방길 개발('22~)
- (활용)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인왕동 사지, 천관사지) 연계 관광코스 개발('22~)
- (활용)천관사지 학술대회 개최('23)
- (활용)발굴조사 현장체험 및 교육활동('23~)

<표 4-22> 경주 천관사지 세부 이행과제 및 로드맵

구분	단기					중기	장기
	21	22	23	24	25		
발굴	연지 및 주변영역, 사역 복동측 발굴조사					천관사지 회랑외곽 발굴조사	
연구	강당지 복원 심화연구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정비	건물지1,2,3,6 석등, 석조, 우물, 담장 정비						
복원						연지 복원	
						강당지 복원 설계	강당지 복원
활용	천관사지(김유신, 천관, 원성왕 등) 스토리텔링 개발						
	학술대회 개최						
	신라탐방길 개발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인왕동 사지, 천관사지) 연계 관광코스 개발						
	정비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					발굴조사 현장체험 및 교육활동	

### 13. 경주 낭산 일원

□ 사업추진 방향 : 낭산 일대 산재한 유적들의 검토를 통한 신라왕경 내 낭산의 역사적인 위치 확인

□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통한 역사성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 (발굴)황복사지 발굴조사('21)
- (발굴)추정 왕릉지 주변 발굴조사('23~'24)
- (발굴)능지탑 재발굴조사('25)
- (발굴)구황동목탑지 발굴조사(중기)
- (발굴)중생사 발굴조사(장기)
- (연구)발굴조사보고서 발간('22~)
- (연구)낭산주변 석탑 심화연구('22~'23)
- (연구)십이지신상 심화연구('24~'25)
- (연구)능지탑 소조상 복원연구('25)
- (연구)낭산 내 폐고분 조사연구(중기)
- (정비)낭산 일원 토지매입('21~'25)
- (정비)황복사지 기본정비계획 수립('21)
- (정비)황복사지 정비실시설계수립('22)
- (정비)황복사지 정비('23~'25)
- (정비)황복사지 귀부정비('24~'25)
- (정비)추정 왕릉지 주변 정비(중기)
- (정비)구황동목탑지, 중생사 정비(장기)
- (복원)능지탑복원(중기)

□ 첨단과학을 활용한 신라왕경 역사문화 보존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사업

- (복원)능지탑소조상 3D복원(중기)

□ 국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라왕경을 위한 세부 사업

- (활용)낭산 관련(신유림, 선덕여왕 등) 스토리텔링 개발('22~)
- (활용)발굴 · 정비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21~)
- (활용)신유림을 거닐다(낭산 둘레길 걷기) 행사('21~)
- (활용)관람편의 · 안전 · 방재시설 정비('22~)

<표 4-23> 경주 낭산 일원 세부 이행과제 및 로드맵

구분	단기					중기	장기
	21	22	23	24	25		
발굴	항복사지 발굴조사		추정 왕릉지 주변 발굴조사		능지탑 재발굴조사	구황동목탑지, 발굴조사	중생사 발굴조사
연구	항복사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능지탑 추정 왕릉지 주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구황동목탑지,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중생사 발굴조사보고서 발간
	낭산주변 석탑 심화연구						
			십이지신상 심화연구				
					능지탑 소조상 복원연구		
정비	항복사지기본 정비계획수립	항복사지 정비 실시계획수립	항복사지 정비				
			항복사지 귀부정비		추정 왕릉지 주변 정비		
	토지매입						구황동목탑지, 중생사 정비
복원						능지탑소조상 3D복원	
						능지탑 복원	
활용	낭산 관련 학술대회 개최		낭산 관련 학술대회 개최		낭산 관련 학술대회 개최		
						독서당 체험관 활용	
	낭산 관련(신유림, 선덕여왕, 최치원 등) 스토리텔링 개발						
	발굴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		정비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			발굴현장 교육 및 관광자원화	
신유림을 거닐다(낭산 둘레길 걷기) 행사							
관람편의 · 안전 · 방재시설 정비							

## 14. 경주 사천왕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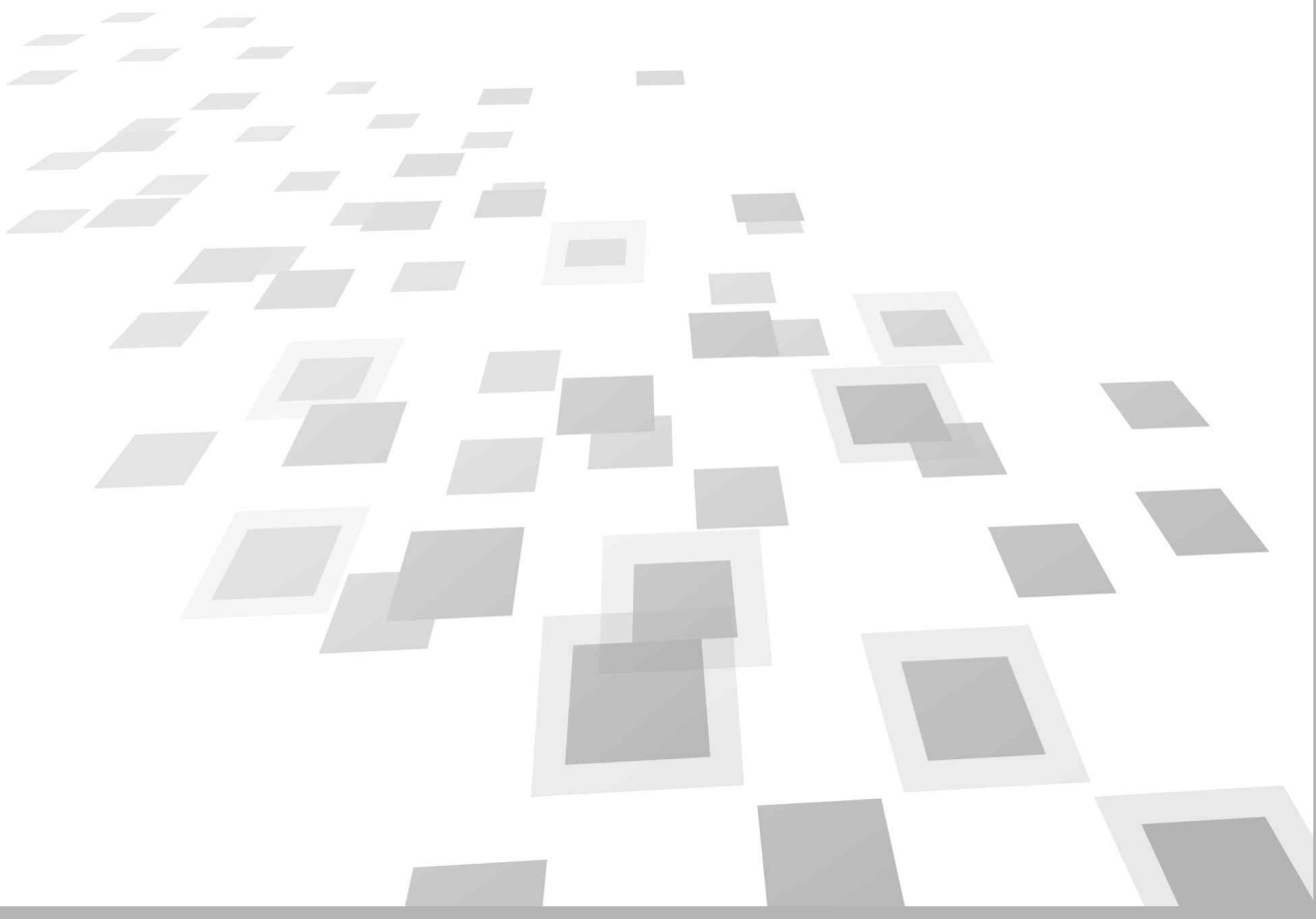
□ 사업추진 방향 : 전체적인 사역 확인 및 주변 시설과의 관계 확인

□ 신라왕경 핵심유적 골격 회복을 통한 역사성 확립을 위한 세부사업

- (발굴)중문지 남편 발굴조사('22)
- (발굴)회랑외곽 발굴조사(중기)
- (연구)발굴조사보고서 발간('23~)
- (연구)비편 심화연구(중기)
- (정비)동해남부선 정비 사업('22~)
- (정비)토지매입('21~'25)
- (복원)금당지 기단복원('22~'25)
- (복원)장당지, 회랑지 복원(장기)
- (발굴)장당지 북편 발굴조사('23~'25)
- (발굴)귀부남편 발굴조사(장기)
- (연구)귀부, 석교 심화연구('24)
- (연구)창건기록 심화연구(장기)
- (정비)중문지 남편 하강선마을 입구 도로 정비('22~'23)
- (복원)서탑지 기단복원('21)
- (복원)귀부 주변 복원(중기)



제 5 장  
맺 음 말



<그림 5-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체계도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상의 과제 계획은 시행계획과 연동계획으로 매년 추진 사항을 점검·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정·보완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집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추진을 통하여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신라왕경 핵심유적 원형 회복,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광자원 확보,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문화향유 제고할 수 있음